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에밀리의 못 말리는 상상

(Emily's RUNAWAY IMAGINATION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학과

허은진

2016年 2月

에밀리의 못 말리는 상상

(Emily's RUNAWAY IMAGINATION · 번역논문)

지도교수 박 경 란

허 은 진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年 12月

허은진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5年 12月

목 차

1. 에밀리, 우체국에 가다	1
2. 엄마의 우아한 오찬모임	13
3. 눈처럼 새하얀 에미리의 준마	23
4. 외할아버지와 턴 리지	37
5. 변색된 1달러짜리 은화	49
6. 무서운 밤	59
7. 에밀리와 가볍고 바삭바삭한 파이크러스트	71
8. 불경기 파티	82
9. 에밀리와 풍 쿠오크 할아버지	95

1.

에밀리, 우체국에 가다

그 해 에밀리 바틀렛에게 일어난 일들!

에밀리는 어느 눈부신 봄날, 마치 새로운 일이 펼쳐지기로 정해진 날 같았던 그날,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았다. 그날은 날씨가 정말 따뜻해서 엄마는 에밀리가 지난 가을부터 쪽 신었던 긴 스타킹을 벗고 처음으로 반 스타킹을 신게 해주었다. 에밀리는 겨울 스타킹을 벗은 무릎 위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치자 봄날의 어린 양처럼 활기차게 뛰어놀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들판은 이미 야생 물망초가 뒤덮여 푸르게 변해있었다. 저 아래 들판에서 있는 나무들은 축축한 겨우내 새들이 버리고 간 등지만 걸려있던 검은 실루엣에서 갑작스레 초록색으로 탈바꿈했다.

어느 곳이나 생기가 차오르고 있었고 에밀리 역시 몸속에서 생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기분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사촌 유리엘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 유리엘은 포틀랜드에 살고 있었고 멋진 걸 아주 많이 갖고 있었다— 아기 고양이 그림이 발끝에 장식된 양털 슬리퍼,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멘트 포장길, 책이 가득한 마을 도서관 등.

“쓰던 편지는 마무리 해야지, 에밀리,”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뒷 베란다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싱크대에서 냄비를 닦고 있었다. “다 쓰면 우체국에 부치러 가렴.”

편지를 쓰던 에밀리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오늘 뭔가 멋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에밀리는 말했다. “느낌이 딱 와요.”

엄마는 웃었다. “여기 피치포크에서 모험이랄 건 별로 없을 텐데. 엄마 생각에는 네 상상의 고삐가 풀린 것 같구나.”

엄마는 자주 이렇게 말했고, 그럴 때마다 에밀리는 깜짝 놀란 말이 메인스트리트를 따라 허둥지둥 끄는 마차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엄마가 학교에 부임하면서 처음 서부에 왔던 날, 놀란 말이 엄마를 태운 채 달아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엄마의 머리핀은 다 떨어지고, 검고 긴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훑날렸다. 누군가가 그 말을 멈췄을 때, 엄마는 이미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다. 그 모습이 에밀리의 고삐 풀린 상상이 자기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유리엘에게서 받은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보았다.

사랑하는 에밀리에게,

이번 주에 도서관에 다녀왔어. 거기서 『블랙 뷰티』라는 책을 빌렸어. 말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읽은 책 중에 최고야. 세 번이나 읽었다니까. 이제 가야겠다. 또 편지 할게.

그럼 안녕,

유리엘

P. S 엄마가 안부 전해 달래.

답장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편지였다. 유리엘은 에밀리가 들어본 적 없는 『하이드』나 『토비 타일러』 같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고서 편지에 항상 읽은 책에 대해 썼다. 유리엘의 엄마인 아이린 숙모는 유리엘이 단지 평범한 책벌레일 뿐이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유리엘이 누리는 양털 슬리퍼나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멘트 포장길이 부럽지 않았지만, 도서관만은 부러웠다. 책벌레로 불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책벌레가 되고는 싶었다. 안타깝게도 오리건 주의 피치포크 마을에는 도서관이 없었다. 아, 읽을거리가 있기는 있었다. 신문에 연재되는 버지스의 『잠들기 전 읽는 이야기』, 엘슨의 『리더 북 4호』, 주일학교 신문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읽는다고 해도 책벌레가 될 수는 없었다. 에밀리는 유리엘처럼 전차를 타고 시내로 가서 수백 아니, 수 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찬 커다란 도서관에 가는 행운을 누릴 수 없었다. 물론, 다른 쪽으로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에밀리가 가진 행운은 엄마 같은 분을 둔 것이었다. 뒷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에서 빨래가 돌아가는 지금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 엄마. 엄청나게 큰집 살림을 해야 했는데도 작은 키 때문에 늘 하이힐을 신었다. 또각또각 소리가 하루 종일 엄마를 따라다녔다. 삼년 전, 전쟁 중에 한번은 하이힐 구두 한 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여성 의장 대원이었던 엄마는 자유공채¹⁾ 구입 장려를 위한 퍼레이드에 참석 중이었다. 그 퍼레이드 한창 중에 하이힐 구두 한 짝을 잃어버렸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절뚝거리면서도 자유공채가 팔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메인스트리트까지 이어진 퍼레이드를 끝까지 마쳤다. 엄마는 대찬 여자였다.

엄마의 체구가 조그마한 것은 꽤나 웃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아빠는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잘생겼기 때문이다. 아빠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포틀랜드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빠한테 격투기선수가 되어 보라고 했지만, 아빠는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오히려 농부가 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아빠를 둔 것은 행운이었는데, 가끔 학교에서 다른 여자애랑 말싸움을 할 때면 이렇게 말하면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아빠는 격투기 선수를 할 수도 있었거든. 근데 아빠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거든. 어쩔래!”

에밀리네 선대 어른들이 서부개척자였다는 사실 역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엄마는 힘들 때면 언제나 “개척자였던 선대 분들을 기억하렴.” 라고 말했다. 에밀리는 지붕이 덮인 마차를 타고 평원을 가로 질렀던 선대 어른들의 여행 이야기가 언제나 재미있었다. 이제 그 분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잡초가 무성한 마운틴 레스트라는 작은 묘지에 묻혀있었지만, 슬레이터라는 성을 가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 곳, 피치포크에 살고 계셨다.

에밀리는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다.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행운이었다. 발코니가 세 개에, 둥근 지붕이 있고, 미끄럼타기에 딱 좋은 난간에다, 암힐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옥조를 들여 놓은 집이었다. 첫 번째 옥조가 어느 집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두 번째 옥조를 갖는다는 것도 꽤나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바틀렛가의 낡은 집이라고 불리는 에밀리네 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걸 말해주었다.

에밀리네 집에 있는 방 열 세 개 중 반은 가구가 없는 빈 방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식구 셋이서 그렇게 큰 집에 사니 너무 행하지 않아요?”라고 묻곤 했다. 에밀리는 엄마, 아빠와 셋이 집에 행하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 식구가 방을 옮겨 다니며 지내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행하게 살지는 않았다. 가끔은 아래층 침실에서, 때로는 위층의 이 방, 저 방에서 잘 때도 있었다. 여름

1)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판매한 국가 채권

밤에는 종종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자기도 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거실에 놓을 때도 있었고, 응접실에 놓은 적도 있었다. 엄마는 자기 집에서 집시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엄마, 피치포크에도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무리엘만 그 많은 책을 다 볼 수 있는 건 불공평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엄마는 발을 문지르며 대답했다. “이 세상의 물건들은 절대 공평하게 나뉘지지 않아.”

“그렇지만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난 『블랙 뷰티』랑 동화책들, 내가 읽고 싶은 아무 책이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피치포크에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또, 또, 네 상상력에 발동이 걸리나보다.” 엄마가 말했다.

“그렇지만 도서관 책들만큼은 좀 공평하게 나뉘도 될 거 같다고요.” 종종 외로움을 타는 에밀리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바틀렛가의 현관까지는 읍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집의 나머지 부분과 헛간과 텃밭부터는 시골이라 집 주변에 같이 놀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에밀리, 네 말이 맞아.” 갑자기 엄마가 말했다. “가서 편지지 좀 가지고 올래? 내가 편지를 한 통 쓸 테니 네가 가서 좀 부쳐주렴.”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요?” 에밀리가 물었다.

“세일럼에 있는 주립도서관.” 엄마가 대답했다. 엄마의 신조는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라’였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 다른 마을에는 도서관이 들어서고 있잖아. 코넬리우스에 하나 생긴걸 봐. 피치포크만 시대에 뒤쳐질 이유가 전혀 없지. 생각해봐, 에밀리. 우리 마을엔 평생 도서관 구경도 못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도서관이 들어서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제 알아봐야겠어.”

“엄마!” 에밀리가 기뻐하며 외쳤다. 그리고 쓰던 편지는 까맣게 잊고 좋은 편지를 가지러 달려갔다. 세탁기는 뒷 베란다에서 그냥 돌아가게 두라지! *이런! 이런! 이런!* 세탁기는 돌아가는 내내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탁기 흥! 불평할 테면 해봐! 엄마는 이제 편지를, 그것도 아주 중요한 편지를 쓸 참이었고, 에밀리가 그 편지를 부치게 될 것이었다.

엄마는 금세 편지를 다 썼고, 학교 선생님답게 정갈한 손 글씨로 주소를 적었다. 에밀리는 우표에 침을 발라 봉투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주먹으로 탕탕 내리쳐 우표를 단단히 붙였다. 굉장히 중요한 우표니까 오리건 주의 수도인 세일럼까지 가는 동안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코트를 입고 서둘러 우체국으로 향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드러난 무릎에 찬바람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에밀리는 마치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쓴 편지를 부칠 것이고 이제 마을에 도서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쁜 소식을 퍼뜨릴 것이다. 어쩌면 『블랙 뷰티』도 있는 도서관이.

멍멍하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콜리종인 프린스가 에밀리를 따라 달려오고 있었다. “이리 온, 프린스.” 에밀리는 프린스를 불렀다. 순한 개와 함께 가게 되어 좋았다.

프린스는 에밀리네 집에서 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개였다. 에밀리네 농장에서 일하며 소를 몰고 집을 지키는 개는 꼬리를 짧게 자른 검정 셰퍼드, 늙은 밥이었다. 아빠는 늘 늙은 밥이 웬만한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말했다. 프린스 말고. 프린스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빠가 주간지인 <피치포크 통신>에 주인을 찾는 광고를 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빠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집에 개 한 마리가 더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별로 없다고 했다. 녀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왕자(prince)다운 품위가 있어 보였다. 그 녀석은 에밀리네 집에 그대로 눌러앉았고, 프린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에밀리가 프린스의 머리를 쓰다듬자 프린스는 마치 자기도 봄이 오는 것을 느낀 것처럼, 그리고 모험을 기대하는 것처럼 깃털모양의 꼬리를 흔들었다.

둘은 함께 널빤지가 깔린 길을 따라 피트 진티 아저씨네 목공소와 풍 쿠오크 할아버지네 집과 텃밭을 지나 메소닉 홀 모퉁이를 돌았다. 그러자 포장된 도로와 시멘트가 깔린 인도가 있는 메인스트리트가 나왔다.

피치포크에서 봄의 생기를 느끼는 사람은 에밀리 뿐만이 아니었다. 이발소집 아들 버티 영이 낡은 자동차 타이어를 굴리며 뛰어오고 있었다. 에밀리 앞에 다다른 버티가 멈춰 섰다. “안녕, 에밀리.” 버티가 인사하며 허리를 구부렸다. “내 머리카락 냄새 맡아볼래?”

에밀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흙-흙-흙. 라일락 향! 버티는 이 동네에서 가

장 향기로운 헤어스타일을 가진 아이였다.

버티가 지나간 후, 에밀리는 사촌, 준 바틀렛과 마주쳤는데, 준은 심부름으로 잡화점에 가는 길이었다. 머리핀이 떨어질 듯 빠져나와 있었는데 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에밀리와 준은 이런 점이 달랐다. 에밀리는 매사에 섬세한 편이었고, 준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에밀리는 맥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피치포크에서는 사촌지간에 사이가 좋아야 했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했다.

“들어봐!” 에밀리가 말했다. “어쩌면 여기 피치포크에 도서관이 생길지도 몰라. 지금 그것 때문에 편지를 부치러 가는 중이야.”

“책들이 있는 도서관 말이야?” 준이 물었다.

“당연하지.” 에밀리는 대답하면서도 짜증이 났다. 도서관에 책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담?

“우리 집엔 타잔 책이 있어,” 준은 이렇게 말하고선 길 위에 갈라진 금은 모두 밟으면서 잡화점으로 갔다.

프린스와 함께 우체국에 도착한 에밀리는 주립 도서관 사서에게 보내는 그 중요한 편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는 우체국 창구 아래로 쓱 밀어 넣었다. 아직 창구가 열려있지 않아서 에밀리는 몸을 구부려 창구 틈 사이로 우체국장이자 피치포크의 읍장을 겸하고 있는 에이버리 삼촌을 들여다보았다. 삼촌은 편지들을 소인을 찍는 기계에 집어넣느라 바빴다.

“에이버리 삼촌,” 에밀리는 창구 틈 사이로 삼촌을 불렀다. “들어봐요! 어쩌면 피치포크에 도서관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야! 멋지구나!” 에이버리 삼촌은 편지들을 기계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에밀리가 우체국에서 막 나가려는데 풍 쿠오크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한때 피치포크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지만, 이제는 이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남은 중국 사람이었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는 에밀리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었고, 에밀리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지만, 에밀리는 웬지 이 할아버지 앞에서 낯을 가렸다. 에밀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봐왔고,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봐왔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중국에서 이곳으로 왔고, 그 때 아빠는 꼬마였다. 할아버지는 바틀렛가 근처에 살기 시작했고 빨래를 해주거나, 채소를 키워서 팔았다. 바틀렛 집안 아들이 청사과를 너무 많이 먹

어서 배탈이 나거나, 건초더미 위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면, 할머니는 늘 풍 쿠오크 영감님에게 의사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그러면 영감님은 땀은 머리를 휘날리고 슬리퍼를 딸각거리며 썩하고 다녀왔다. 물론 이제 영감님은 더 이상 머리를 땀지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도 않았다. 빨래를 해주는 일도 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피치포크 사람들이 사탕과 아이스크림소다²⁾를 사먹던 제과점을 팔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옷을 입었고, 썩하고 뛰어다니기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아빠, 그리고 에밀리의 고모와 삼촌들은 모두 풍 쿠오크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그건 너무 당연했다. 그 분은 정말 친절하고 유쾌한, 조그마한 할아버지였다.

에밀리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 앞에서 낮을 가리는 게 민망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영어를 썩 잘 하지 못했고, 아무리 애를 써도 ‘r(아르)’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늘 ‘l(엘)’ 처럼 들렸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다. 엄마도 동부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독일어를 배웠는데 독일식으로 ‘r’을 한 번도 제대로 발음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안녕, 꼬마 아가씨.”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인사했다. 할아버지는 피치포크에 있는 모든 여자애들을 꼬마 아가씨라고 불렀다.

“안녕하세요, 쿠오크 할아버지.” 에밀리도 공손하게 인사했다.

관심받기 좋아하는 프린스가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할아버지가 프린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착한 개로구나. 너 이름 플린스, 그렇지 녀석아?”

그 말에 에밀리는 공손하게 별 생각 없이 말했다. 적어도 공손하게는 말했다. “아뇨, 프린스예요. 할아버지.” 에밀리는 말을 뱉자마자 끔찍한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 말이 튀어나와 버린 다음이었다. 할아버지는 프린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r’ 발음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에밀리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에밀리는 절대로, 절대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는 재미있어하며 주름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플린스.”

2) 아이스크림이 없어진 시원한 음료수

우체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고, 풍 쿠오크 할아버지도 웃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이 엄청 웃긴 농담이라는 듯이 배를 부여잡고 웃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재미있지 않았다. 조금도.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한 나머지 그대로 뒤돌아서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프린스가 조용히 에밀리를 따라왔다. “넌 왜 즐즐 따라다니는 거니?” 에밀리는 자기의 모험심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생각은 잊어버린 채 투덜거렸다. 우체국 안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에밀리를 비웃는 것 같았다.

에밀리는 우체국에 있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잠잠해질 때까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네 가게로 가기로 했다.

외할아버지 가게 간판에는 W.A. 슬레이터 상회라고 쓰여 있었다. 에밀리가 외할아버지네 가게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외할아버지가 맡고 있는 가게 한 쪽은 통조림이 진열된 선반, 무게로 달아서 파는 식재료가 담긴 통들, 유리 뚜껑으로 덮어둔 킬라무크 치즈, 빨간색 커피 그라인더, 씹는담배 조각을 자르는 조그마한 도끼 등 식료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외할머니의 포목점 코너는 더 좋았다. 거기에는 돌돌 말아 정리한 옷감과 리본들, 갖가지 실이 들어 있는 회전 케이스, 자수 실타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뒤편은 그 곳에서 제일 별 볼일 없는 공간이었다. 작업복, 작업신발, 석유통이 있을 뿐이었다. 에밀리네 식구들도 이 가게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했지만, 이 마을에서 에밀리만 유일하게 계산대 너머로 갈 수 있는 아이였다는 것이 이 가게의 좋은 점 중 하나였다.

외할아버지는 계산대에 수그리고서 봉투 뒷면에다가 뭔가를, 아마도 수익과 손실이라고 하는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에밀리를 소개할 때면 늘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에밀리라고 해요. 내 하나 뿐인 손녀인데 아주 대단한 애예요.”

“에밀리 왔구나.” 외할아버지는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5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5센트를 주마.”

에밀리는 방긋 웃었다. 외할아버지는 에밀리가 가게에 올 때 마다 거의 매번 이런 제안을 했고, 에밀리는 정확히 5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5센트를 벌곤 했다. 에밀리는 엄마에게 회전식 달걀거품기를 사주려고 이렇게 번 돈을 모으고 있었다. 회전식 달걀거품기는 손잡이를 돌리고 돌리면 달걀을 마구 저어서 크

림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였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는 5센트를 벌기보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사는 위층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외할머니에게 인사도 하고 우체국에 다녀오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위층은 에밀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외할머니가 피치포크 여자들의 모자를 장식해주는 모자 가게였다. 시침핀 여러 개를 입술에 물고 하얀색 밀짚모자에 멋진 핑크색 나비리본을 달던 외할머니는 입술에 시침핀을 문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랑스러운 외할머니, 외할머니에게선 언제나 제비꽃향이 났다.

외할아버지가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즈음에 아래층 계산대에서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다. 에밀리는 손님들이 나가실 때까지 시간을 때우며 모자가게를 구경했다. 아직 장식이 안 된 모자가 들어있는 길쭉하고 둥근 모양의 박스들, 들들 말려있는 얇은 베일, 꽃 장식이 들어있는 박스들. 또, 겨울 모자용 벨벳 제비꽃장식, 데이지꽃과 양귀비꽃으로 된 화관, 에밀리가 집어 들자 달랑거리는 빨간 체리 장식, 작고 딱딱한 물망초 꽃다발도 있었고, 밀 이삭도 있었다. 어느 누가 평범한 밀 이삭으로 모자를 장식하고 싶어 할지 통 알 수가 없었지만. 그리고 타조 깃털! 멋지게 휘어있는 타조 깃털 하나하나는 커다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음표 모양 보관함에 곱게 뉘여 있었다. 깃털이 분명히 다시 유행 할 거라고 믿는 외할머니는 멋진 깃털을 수 십 개나 갖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뭐든지 7년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유행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외할머니가 입술에 물고 있던 시침핀들을 내려놓았다. “오늘 기분이 어때, 에밀리?” 외할머니가 말했다.

“좋아요, 외할머니.” 에밀리는 핀 꽃이에 시침핀을 꽂아 넣었다. “외할머니, 피치포크에 도서관이 생길수도 있는 거 아세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주립 도서관에다가 편지를 썼고요, 제가 그 편지를 부치고 왔어요.”

“이야, 멋지구나!” 외할머니는 능숙하게 리본 끈을 비틀어서 뺏뺏한 나비 모양을 만들었다. “다른 마을에도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던다. 피치포크만 시대에 뒤떨어 질 이유가 전혀 없지.”

“엄마도 똑같이 말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쯤이면 밖이 잠잠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게가 조용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안녕히 계세요,

외할머니.”라고 인사했다.

외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금방 가는구나.”

에밀리는 우체국에 있던 사람들과 안 마주치려고 숨었던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또 올게요.”라고 인사만 하고는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외할아버지는 손님에게 팔 찻잎의 무게를 달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외할아버지.”라고 에밀리가 인사했다.

외할아버지가 잠시 저울을 달다 말고 특유의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잘 가렴, 에밀리.” 그리고 덧붙였다. “플린스랑 조만간 다시 들르려무나.”

에밀리는 다시 얼굴이 화끈거렸다. “외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프린스도 총총총 따라 나왔다. 이미 누군가가 외할아버지에게 에밀리의 실수를 얘기한 것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다.

에밀리는 곧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할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모두들 “안녕, 에밀리. 아이구! 플린스, 안녕?”하고 인사했다. 피치포크에서 하얀 수염을 가장 길게 기른 조지 A. 바비 할아버지, 토요일 저녁에 극장에서 피아노를 치는 워티 톰슨 부인, 사료가게 아저씨. 전부 다! 에밀리는 너무 민망해서 방금 부친 중요한 편지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에밀리는 먼 길로 돌아서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풍 쿠오크 할아버지네 집을 지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피치포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밀리의 그 실수를 더 이상 비웃지 않을 때까지 할아버지와 오래 오래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골목길을 따라 농기계를 파는 창고와 차고를 지나서 대장간 옆의 모퉁이를 돌아서 로쿠스트 거리로 들어섰다.

에밀리는 대장장이 아저씨에게 상냥하게 대하려고 항상 신경을 썼다.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마지막 시간마다 시를 배웠는데, 조지 A. 바비 영감님처럼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시인이 쓴 『마을의 대장장이』를 읽은 이후로 줄곧 그랬다.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건장한 팔은
강철밴드만큼이나 단단하다네.

그 날 수업 이후로 남자애들은 대장간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그의 앙상한 팔은
고무밴드만큼이나 단단하다네.

그런 일 때문에 에밀리는 대장장이 월콕스 아저씨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아저씨한테는 항상 상냥하게 말했다. 자기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있길 바라며. 월콕스 아저씨는 언제나 에밀리를 반겨주었고, 한번은 말굽을 박는 못으로 반지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 날 아침, 아저씨는 보습을 만들고 있었다. “월콕스 아저씨,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열린 문 사이로 인사를 건넸다.

“오, 에밀리 안녕?” 월콕스씨도 인사를 했다. “이렇게 좋은 아침에 플린스와 함께 다니고 있구나.”

아저씨마저도, 에밀리의 좋은 친구인 월콕스 아저씨마저도 에밀리를 놀렸다. 에밀리는 뭐라고 말해야할지 몰라서 “네에...어..저기..이제 가 봐야겠어요.”라고 말하고는 가던 길을 재촉했고, 프린스는 조용히 뒤따라왔다.

집 농장에 다다랐을 때 엄마는 물탱크와 장작창고 사이에 걸린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었다. 엄마는 빨래집게로 긴 행주를 집었다. “어머, 에밀리, 플린스하고 산책 잘 했니?”

“엄마!” 에밀리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깔깔대며 웃었다. “워터 톰슨 부인이 이번 여성시민클럽 모임 때문에 전화했었어. 시내에서 영감님을 마주쳤다가 들었대. 영감님은 그게 엄청 재미있었나봐.”

“그럼 전화선을 같이 쓰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었겠네요.” 뽀로통해진 에밀리가 말했다. 에밀리는 놀림거리가 된 것이 싫었다. 에밀리네 집 전화선은 다른 4개의 집과 전화선을 같이 쓰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 곤란한 얘기는 절대 전화로 하지 않았다.

“통화하는 중에 다른 집에서 수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하더라.”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크게 내뿜었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네요.”

엄마는 베갯잇을 탁탁 털어 빨랫줄에 널었다. “작은 마을에 사는 게 어떤지 잘 알면서 그래,” 엄마가 말했다. “얘기는 돌기 마련이란다.”

분명 그렇긴 하지, 하고 에밀리리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메인스트리트에서도 얘기했고, 외할아버지네 가게에서도 얘기했고, 공동으로 쓰는 전화선에다가도 얘기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할 것은 정작 다른 것이라는 데 있었다. 에밀리리는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에 관한 기쁜 소식에 대해 얘기하기를 바랐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플린스였다. 어쩌면 에밀리리마저도 그 개를 플린스라고 불러야 할 판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그렇게 부를 테니까.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에밀리리가 어떻게 책벌레가 되고 유리엘처럼 『블랙 뷰티』를 읽을 수 있을까?

2.

엄마의 우아한 오찬모임

이날 아침, 엄마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들뜬 나머지 토스트를 태우고 말았다. 에밀리도 이런 들뜬 기분에 토스트 따위는 먹고 싶지 않았다. 특히 탄 부분만 굵어낸 토스트는 더 더욱.

“자, 에밀리,” 엄마가 말했다, “음식을 버리면 못 써.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생각해봐.”

에밀리는 특히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듣는 배고픈 아르메니아 사람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토스트를 주고 싶었지만, 피치포크에는 배고픈 아르메니아 사람이 없어서 탄 토스트를 야금야금 뜯어 먹었다. 엄마가 모임을, 그것도 우아한 모임을 여는 날 탄 토스트라니! 여성시민클럽 회원들이 오찬모임에 오는 날이었다. 바틀렛 집안사람들이 늘 저녁 만찬을 하는 농장에서 열리는 한낮의 *근사한 오찬모임*.

엄마는 이번 모임에서 피치포크 마을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꺼낼 생각이었다. 정말로 주립 도서관에서 엄마에게 답장을 보냈고 한 번에 75권씩 책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책들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도서관 사서는 누가 할지를 정해야 했다. 엄마는 여기에 덧붙일 아이디어도 있었다. 피치포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집에 있는 책을 기증한다면 어쩌면 상설 도서관을 열 수 있을 만큼의 책을 모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에밀리는 이번 모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아빠가 소젖을 짜야 해서 항상 일찍 일어나는 바틀렛 식구들은 그날따라 더 분주했다. 에밀리는 엄마의 모임을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었다. 풀밭에 가서 테이블 장식용으로 미나리아재비와 팬지를 꺾어왔다. 또 과일 샐러드에 얹을 마라스키노 체리³⁾를 작고 좁은 병에서 꺼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잡화점에 갈 때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와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지름길로 다녀오기까지 했는데, 그건 얼른 다녀와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그 전날 암탉 몇 마리를 잡았고, 엄마는 외할아버지네 가게에서 사온

3) 채색한 시럽에 절여서 모조 마라스키노주로 맛을 곁들인 버찌

피망 통조림을 곁들여 치킨 알라킹⁴⁾을 만들었다. 그리고 동부에 살던 시절에 먹던 패티 셸 파이⁵⁾도 만들었다. 그걸 만드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처음에 구운 파이들은 부풀어 오르지 않아서 에밀리가 갖고 나가 닭 모이로 줘야 했다. 에밀리네 집에 버터와 밀가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절대로 음식을 버릴 수 없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으니까. 엄마의 엔젤 푸드 케이크⁶⁾는 패티 셸 파이를 만드느라 고생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잘 만들어졌다. 흰자를 저을 회전식 달걀거품기가 없었는데도 깃털처럼 가벼운 케이크가 만들어졌다. 엄마는 그 많이 남은 달걀노른자로 뭘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꽤 고급스러운 요리가 나오고 있구먼.” 아빠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여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냥 수다만 떠는데도 준비할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엄마는 정신없이 바빠서 장난을 받아줄 겨를도 없었다. “정말 이번 모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말하고 잽싸게 카펫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했다. 그 동안 아빠는 집 앞의 풀을 낫으로 베어 냈고, 에밀리는 아빠 뒤에서 베인 풀을 쓸어 담았다.

아빠가 과수원과 마당 사이에 있는 담장을 넘어가서 낫을 휘둘러 풀을 베다가 덩굴에 가려져있었던 엷어진 사과상자를 제대로 후려치고 말았다.

“콜리앗 녀석!” 아빠가 소리쳤다. “그 녀석이 넘어뜨린 사과를 잊고 있었어.”

에밀리도 그제야 기억이 났다. 지난겨울에 아빠는 사과 두 상자를 뺐는데, 황소 콜리앗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과수원에 풀어 놓을 때, 그 상자들을 담장 너머로 옮겨서 녀석이 건드리지 못하게 해 두었었다. 그렇다고 콜리앗을 막을 수는 없었다. 녀석이 담장 너머로 머리를 들이밀어서 그 상자들을 넘어뜨린 것이었다. 콜리앗은 입에 닿는 사과는 모조리 조금씩 베어 먹었다. 에밀리네 집에는 사과가 넘쳐났고, 게다가 황소가 코로 비벼댄 사과는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아서 콜리앗이 먹다 만 사과들은 바람에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들 사이에 섞여서 높이 자란 풀 사이에서 썩고 있었다.

4) 한입 크기로 도톰하게 익힌 닭고기와 베사멜소스를 사용하여 토스트 또는 파이 시트에 올려놓는 음식으로 왕을 위한 닭고기 요리라는 뜻이다

5) 페이스트리의 일종 (채소·고기·생선·크림 등을 채운 컵 모양의 파이 요리)

6) 달걀 흰자를 사용한 스폰지 케이크

“에밀리, 있잖아,” 아빠가 풀을 베며 말했다. “내가 여기 남은 풀을 다 벨 수 있게 에밀리가 이 사과들을 치워주겠니?”

“이 사과들을 어떻게 해요?” 에밀리가 물었다.

“맘대로 해도 돼,” 아빠가 대답했다. “그냥 여기서 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에밀리는 풀 위에 널브러진 사과들을 살펴봤다. 모두 썩은 사과들이었다. 갈색을 띠고 물렁물렁하게 썩은 사과들. 그 중에 제일 시큼한 사과술 냄새가 나는 사과를 집어 담장 너머 과수원 쪽으로 훑 하고 던졌더니 풀썩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더욱 시큼한 사과술 냄새를 풍겼다. 엄마가 우아한 모임을 가지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사과들이 담장 너머에 떨어져 있으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돼지들에게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녀석들이 이런 사과를 좋아할 것 같았다. 에밀리는 사과를 따서는 나무 울타리에 대고 눌러서 사과를 멍들게 한 다음 먹는 걸 좋아했다. 과즙이 흐르는 멍든 쪽이 제일 맛있었다. 에밀리에게 사과의 멍든 부분이 맛있다면, 돼지들에게 통째로 다 썩은 사과는 아주 맛있을게 분명했다. 게다가 엄마는 음식을 버리면 못 쓴다고 했다. 배고픈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에밀리는 낡은 통을 찾아다가 그 물컹한 사과들을 담고서 집 뒤편을 돌아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돼지우리까지 힘들게 끌고 갔다. 그런데 그 통을 양손에 들고는 담장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사과들을 땅바닥에 쏟아 부으려고 돼지우리 문을 열었다.

돼지들이 아주 좋아했다. 녀석들은 껍썩대며 냄새도 맡아보고 뒤적거리보다가 게걸스럽게 먹어댔고 그 동안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사과를 더 가지러 뛰어갔다. 에밀리가 썩은 사과 한 통을 돼지우리에 또 쏟아 붓고 있을 때 뒷 베란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에밀리! 얼른 들어와, 옷 갈아입어야지!”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에밀리는 전속력으로 달려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허둥지둥 부엌 싱크대에서 대충 씻은 다음 위층으로 올라가 제일 좋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메리제인 구두를 신었다. 이젠 구두가 조금 작은 것도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마당으로 이어진 쥐똥나무 울타리 길로 아주머니 몇 분이 벌써 걸어오고 있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복도를 샅샅이 지나갈 때, 하얀색 러플 목장식이 달린 회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드레스를 차려입고 봄철 모자를 쓴 아주머니들도 얼마나 근사했던지! 그 모자들 중에는 외할머니네 가게에서 제일 좋은 모자들도 있었다. 오렌지 빛 양귀비꽃으로 장식한 검은 밀짚모자를 쓴 은행가의 아내, 아처 부인도 왔다. 그 모자에 실크 양귀비꽃 장식이 죽히 열두 송이는 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인 알린 트위첼의 엄마, 트위첼 부인이 외할머니가 이미 두 번이나 리폼해 준 모자를 쓰고 왔다. 에밀리네 그 모자가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피치포크 아주머니들은 그 애 엄마가 알린에게는 항상 새 원피스를 입히면서 자기는 매년 같은 모자를 쓰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수군댔다. 워티 톰슨 부인은 꽃 장식이 된 실크 토크를 썼고, 조지 톰슨 부인은 모두가 부인이 직접 장식했다는 걸 알고 있는 모자를 쓰고 왔다. 지난해 조지 톰슨 부인 남편의 자두 농사 수입이 별로 좋지 못했다.

마침내 모자 열아홉 개가 아래층 침실에 있는 증조할머니의 기둥 침대 위에 놓였다. 참석한 아주머니들은 스무 명 모두가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큼 펼쳐진 널찍한 만찬 테이블 위에 놓인 이름표를 살펴보았다. 지난여름 엄마가 건초더미를 만들러 왔던 아빠의 인부들에게 저녁을 대접한 이후로 테이블을 이렇게 넓게 펼친 건 처음이었다. 아주머니들 모두 어찌나 우아한 차림이었던지, 대화가 어찌나 세련되었던지. 땀내 나는 작업복을 입고 시끄럽게 떠들던 그 때 건초 인부들과는 사뭇 달랐다. 엄마의 모임은 성공적일 것 같았다. 에밀리네 알 수 있었다.

에밀리네 그 모임의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를 도와 치킨 알라킹과 과일 샐러드를 내어가야 했다. “엄마, 왼쪽에 계신 분부터 드려요, 아님 오른쪽부터예요?” 에밀리가 초조해하며 속삭였다. “항상 그게 헛갈려요.”

엄마는 상기된 얼굴로 멋진 회색 실크 드레스에 치킨 알라킹이 튀지 않게 조심하고 있었다. 엄마도 “오른쪽부터-아니, 내 말은 왼쪽부터.” 라며 갈팡질팡했다.

에밀리네 두 접시씩 식당으로 가지고 가서 손님들께 조심조심 내어드렸다. 크림이 묻은 닭고기를 손님 무릎에 쏟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마지막 접시까지 다 차려지고 엄마가 테이블 상석에 앉자, 에밀리도 부엌스툴에 올라가 앉아 싱크대

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참석한 손님들이 다 앉을 수 있도록 바틀렛 집안에 있는 의자가 다 나왔고, 몇 개는 빌려오기도 했다. 아주머니들이 맛있게 차려진 엄마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식당에서 들려오던 대화 소리도 잠잠해졌다. “제가 먹어 본 음식 중 최고예요!” 라던가 “어떻게 만드는지 꼭 알려주세요.”같은 의례적인 속삭임이 오고가던 그 때, 에밀리에게, 또 손님들에게도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쩌나 시끄러웠는지-뿅뿅, 꿀꿀 소리와 킁킁하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다.

“내 마당이!”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밖에 대체 무슨 일이지?”

에밀리는 부엌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장작 창고가 가리고 있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뿅뿅하고 꿀꿀대는 소리는 계속 커졌고 개들은 맹렬히 짖어댔다. 그리고 그 때, 에밀리의 머리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돼지우리에 사과를 던져 놓고 나서 문을 잠갔던가? 절대, 절대 하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짓을 저질러서 돼지우리 문이 열린 걸까? 문을 닫은 것까지는 분명히 기억이 났지만 문을 잠갔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았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써보아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엄마가 불렀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서 단장을 했고...밥 소사...에밀리는 만약에 자기가 문을 안 잠근 게 맞으면 아빠가 엄청 화를 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에밀리가 바랄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만약 자기가 문을 잠그지 않아서 돼지들이 우리 밖으로 나온 게 맞다면 손님들이 다 간 다음에 혼나는 것이었다. 어쩌면 엉덩이를 맞을지도 모른다!

손님들이 하던 얘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가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뒷 베란다로 달려 나갔고, 에밀리와 열아홉 명의 아주머니들이 그 뒤를 쫓아갔다. 엄마는 뒷문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 농장 마당으로 이어진 길을 뛰어갔고, 에밀리와 열아홉 명의 아주머니들이 그 뒤를 따랐다. 끔찍한 상황이었다. 아주머니들이 도서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엄마가 준비한 점심 식사자리를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이란! 돼지 열두 마리 전부가 과수원을 뛰어다니며 뿅뿅, 킁킁, 꿀꿀대고 있었다. 플린스는,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이렇게 부르다시피, 물탱크 계단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짖어대고 있었고, 자기가 할 일을 잘 알았던 늙은 밥은 돼지들을 우리로 몰아넣으려고 짖기도 하고, 돼지 발 뒤꿈치를

무는 척도 하면서 녀석들의 뒤를 쫓았다.

오오..이건 너무 끔찍해, 에밀리는 생각했다.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에밀리의 눈에 헛간 문에 서서 돼지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빠가 보였다.

그런데 잠깐! 뭔가 잘못됐다. 늙은 밥이 애써서 농장으로 몰아넣은 돼지 떼의 상태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던 것이다. 자세히 보니 녀석들은 뛰어 다니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 비틀비틀, 휘청거리고 있었다. 늙은 밥은 애처롭게도 최선을 다해서 돼지 떼를 모으려 했지만, 녀석들은 더 이상 늙은 밥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체 뭐가 어떻게...”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놀란 마음이 가라앉은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다. “설마...”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살다 살다...” 그 때 누군가가 킁킁대기 시작하더니 다른 아주머니들도 웃음이 터졌다. 돼지들의 모습이 웃기긴 했다.

에밀리도 돼지들이 웃기긴 했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웃을 수가 없었다. 대체 아빠의 돼지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것도 하필 아빠가 돼지 값을 잘 받기를 기대하는 해에! 바로 그 때, 에밀리의 눈앞에서 돼지 한 마리가 픽하고 쓰러지더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빠가 헛간 경사로를 뛰어내려와 돼지 한 마리를 우리로 모는 모습이 보였다. 그 녀석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휘청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수조를 들이받았다. 그렇게 쓰러져버린 다음에는 늙은 밥이 아무리 짚어대도 꿈쩍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한 마리 더 쓰러졌네, 하고 생각하며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잘 모르지만,” 아처 부인이 말했다, “저 돼지들은 취한 것 같아요.”

“말도 안돼요.”라고 트위첼 부인이 말했다. 피치포크 아주머니들은 모두 독한 술을 먹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브루투스라는 이름이 붙은 돼지는 그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녀석이었는데, 어느 한 손님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아주머니들이 깽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울타리 뒤로 물러섰고, 브루투스는 휘청거리고 서서 그 작고 반짝이는 눈망울로 아주머니들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지친 듯이 한 번 꼴꼴 대고는 다리를 한 쪽씩 접는 것 같더니 쿵하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렇게 한 마리가 또 쓰러졌다.

“어머나, 난 이런 건 한번도!” 약사 부인이 외쳤다.

또 다른 돼지는 포틀랜드에서 열린 가축 박람회에서 1등을 해서 아빠가 사 온

햄프셔종의 암돼지였는데, 이 녀석이 물탱크 계단을 오르려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킁킁 거렸다. 늙은 밥이 녀석의 발뒤꿈치를 물려고 했지만 녀석은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돌아다닐 뿐이었다. 에밀리는 이 모습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다.

“상관없어요.” 아처 부인이 제일 못마땅해 하며 말했다. “저 돼지들은 *취한 거예요*. 확실해요.”

에밀리는 아빠가 잘 키운 토실토실한 돼지들에게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만약 아처 부인이 아빠의 돼지들을 못마땅해 하면 다른 것들도, 이를테면 도서관에 관한 엄마의 계획도 못마땅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째서요, 시빌, 우리 돼지들이 뭘 했기에 취했겠어요?” 아처 부인의 말에 엄마는 속이 상한 것 같았다.

“그건 모르죠, 리디아,” 아처 부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재네들이 취했다는 건 확실해요.”

“저기, 시빌,” 트위첵 부인도 거들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재들은 취한 게 맞아요.”

“취했어!” 조지 톱슨 부인이 외쳤다. “재들은 분명히 취한 거예요.”

“당연히 제 말이 맞아요.” 아처 부인이 말했다. “저 돼지들은 술만 깨면 돼요.”

“그렇지만 말도 안돼요.” 엄마는 바틀렛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 애를 쓰며 반박했다. “우리 돼지들이 어떻게 술에 취했겠어요?”

“제...제 생각엔 제가 돼지우리 문을 잠그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침에 돼지들한테 썩은 사과 몇 개를 주고 나서요.” 에밀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돼지들이 이상하게 구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랬구나!” 엄마가 외쳤다. “에밀리, 정말 돼지들한테 썩은 사과를 먹었니?”

에밀리는 아직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는 채로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서... 썩은 사과는 발효되잖니.” 엄마가 말했다. “그건 돼지들한테 독한 사과술을 먹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다음 돼지들이 나와서 과수원으로 들어갔

고, 바닥에 있던 썩은 사과를 더 먹은 거구나...”

“돼지들을 취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전 녀석들이 가끔은 그런 사과도 좋아할 것 같았어요.”

“돼지들이 좋아한 건 확실하구나.” 아처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더 먹으려고 뛰쳐나갔잖니.”

“에구머니나, 깜짝 놀랐네.”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뒷문 계단에 털썩 주저앉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그렇게 앉아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웃었다.

놀랍게도 다른 아주머니들도 같이 웃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들은 킁킁, 피식피식 거리기도 하고 눈물을 닦으면서까지 웃었다.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 배꼽을 잡고 웃다가 가쁜 숨을 쉬기를 반복했다.

에밀리는 분했다. 하나도 재밌지 않았다. 엉망진창이었다. 아빠가 키운 멋진 햄프셔종의 돼지들이 모두 취해버렸다. 돼지 값을 잘 받기를 기대하고 있던 해에.

“엄마, 엄마가 음식을 버리는 건 못 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굶주리고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때문이에요,” 에밀리가 원망하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과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썩은 사과라고 해도요.”

“어머나, 에밀리.” 엄마는 숨을 헐떡이더니 또 다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에밀리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에밀리의 고삐 풀린 상상이 또 에밀리를 태우고 달아났다고.

돼지들이 하나둘씩 땅바닥에 축 늘어져 곧바로 잠에 빠져들면서 마당에서 나던 짹 짹 소리, 꿀꿀 소리가 잦아들었다.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네요. 한 마리도 빠짐없어요.” 라고 시빌 아처 부인이 말하자 다른 아주머니들이 다들 또 한 번 배꼽을 잡고 웃었다.

“어머, 이런!” 아주머니들의 웃음이 가실 때쯤 엄마가 말했다. “음식이 다 식겠어요.”

“팬찮아요,” 아주머니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아처 부인이 말했다. “이렇게 크게 웃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에밀리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 난장판을 보고 있자니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다. 패티 셸에 들어간 닭고기도, 마라스키노 체리가 곁들여진 과일 샐러드도. 아빠가 마당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걸 울상을 하고 쳐다보았다. 아빠는 잠시 멈춰

서 발가락으로 브루투스를 툭 하고 건드려봤지만, 브루투스는 한 쪽 귀만 펠럭, 꼬부랑한 꼬리를 쉴룩 거릴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서부를 개척한 선조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리고 뒷문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다. 집 안에서는 또 한 번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처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살다 살다 이렇게 재밌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에밀리 옆으로 와서 앉았다. “문을 잠가야지 했는데, 안 잠갔나 봐요.” 에밀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음, 에밀리.” 아빠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에밀리는 문을 잠가야 된다는 걸 아주 잘 아는 걸.”

에밀리는 정말 규칙들을 줄줄 꿰고 있었다! 절대로 문을 열어 두지 말 것. 절대로 건초 더미 뒤에서 언덕을 올라가지 말 것. 절대로 황소가 풀을 뜯고 있을 때는 밭에 들어가지 말 것.

집 안에서는 손님들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다. 그건 확실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엄청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나누지 않았다.

“있잖아.” 아빠가 말을 이어나갔다. “아빠 생각엔 네가 돼지들에게 썩은 사과를 준 덕분에 엄마 모임이 아주 잘 될 것 같아. 네가 엄마 친구 분들께 애깃거리를 준 거고 그 분들은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아빠 말이 맞았다. 엄마는 늘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한다고 말했다. 프린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플린스로 바뀌었는지를 보라.

“엉덩이 맞는 건 건너뛰자.” 아빠가 몸을 구부리며 에밀리의 뺨에 턱을 비볐다. 아빠한테서는 좋은 향기가 났다. 밭을 방금 갈았을 때 나는 흙냄새였다. “어쨌거나 이제는 엉덩이를 맞기엔 너무 커버리기도 했고.” 라고 아빠가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들은 기분 좋은 말이었다. 엉덩이를 맞기엔 너무 커버렸다니!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를 통과한 것이었다.

집 안에서는 손님들이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록 치킨 알라킹이 식었다고 해도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번 모임은 엄마가 바라던 대로 성공적인 게 분명했다.

“조잘, 조잘, 조잘.” 아빠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봐. 너도 모

르는 새에 엄마가 모두들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게 할 거야.”

“아빠는 엄마가 잊어버렸다고 생각 안 해요?” 에밀리가 물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안 그래.” 아빠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거 알아? 여성시민클럽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회원들은 엄마가 제안하는 건 뭐든지 다 찬성할걸? 이제 보면 알게 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빠 말이 맞았다는 것이다. 에밀리도 그걸 확신했다.

“그럼 이제 배고픈 아빠를 위해서 엄마의 맛있는 요리를 차려주는 건 어떨까?” 아빠가 말했다.

에밀리도 이제는 배가 고파졌다. 게다가 부엌은 식당에서 하는 얘기를 엿듣기에 아주 좋은 자리였다.

3.

눈처럼 새하얀 에밀리와 준마

여성시민클럽은 피치포크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의견에 모두 찬성했다. 회원들이 도서관 자리를 알아보느라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에밀리는 포틀랜드에 사는 사촌 유리엘로부터 핑크색 봉투에 담긴 핑크색 편지를 받았다. 유리엘은 한 번도 일반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 항상 박스에 담겨 판매되는 문구점 편지를 썼다.

에밀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편지를 읽었고, 엄마는 아침에 아빠가 우체국에서 유리엘의 편지와 같이 가지고 온 『레이디스 홈 저널』 최신호를 훑어보았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사랑하는 에밀리에게,

이번 현충일에 피치포크에 갈 거라고 엄마가 얘기하셨어. 지난 토요일에는 도서관에 다녀왔어. 『블랙뷰티』를 또 빌려왔어. 우리 집에도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 넌 좋겠다. 현충일에 너희 집 농장에서 말을 타보고 싶어.

그럼 안녕,
유리엘

오호, 이걸 뉴스였다. 에밀리는 유리엘이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다. 그 애는 도서관에도 갈 수 있고, 개네 아빠는 맥스웰이라고 이름 붙인 자동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니다. 이제 운이 좋은 쪽은 에밀리였다. 그건 바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있다는 게 멋진 일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농장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말 한 두 필쯤은 갖고 있었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기 때문이었다. 매일 말이 끄는 마차택시가 마차차고지에서 정류장으로 와서 열차 승객들을 메인 스트리트로 태워다 주었다. 피치포크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작은 마을은 아니었다.

에밀리는 빅 모굴(Big Mogul)이란 이름이 있고 옆면에 그 이름이 쓰여 있는 에밀리네 트랙터가 에밀리네 말, 피크와 레이디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웠다. 가끔

한 녀석의 등에 안장 없이 타고 다니기는 했지만, 말 타는 걸 대수롭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에밀리는 자동차 타는 것을 정말 좋아했지만, 그 보다 트랙터 조절판 위에 앉아서 아빠와 함께 빅 모굴을 타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에밀리는 오리건 주 축제에서 회전목마를 탈 때도 말처럼 평범한 건 고르지도 않았다. 첫 번째 선택은 언제나 사자였다. 오르간 음악에 맞춰 사자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며 회전목마를 타는 건 정말 신이 났다. 운 좋게 두 번 타게 되면 다음 선택은 수탉이었다. 수탉을 타는 것은 웃겼기 때문이었다. 매일 보는 평범한 말을 타는 것이 신이 나거나 재미있을 리 없었다.

식탁보 위로 파리 하나가 윙윙 거렸다. 엄마는 잡지를 내려놓고 파리채를 집어들었다. “성가신 파리 녀석!” 파리라면 질색하는 엄마가 말했다. “잡았다,” 엄마는 파리를 잡고 나서 물었다. “뮤리엘이 뭐라던?”

“뮤리엘네 식구들이 현충일에 온다고요.” 에밀리가 대답했다. 딱히 특별한 소식은 아니었다.

도시에 사는 바틀렛네와 시골에 사는 바틀렛네는 여느 피치포크의 가족들처럼 매년 5월 30일마다 마운틴 레스트 묘지를 찾아갔다. 잡초도 뽑고 낙엽도 쓸어내서 서부를 개척한 집안 어른들의 무덤을 깔끔히 정리했다. 에밀리는 그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올해도 그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뮤리엘이 이번에 오면 말을 타보고 싶대요. 『블랙 뷰티』를 또 읽고 있다면서요.”

“ 좋겠네,” 엄마는 동부의 최신 스타일을 살피는 중이어서 그런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러다 문득 잡지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 말이 승마용이 아니고 농사용 말이라서 실망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에밀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헛간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고 거름 냄새도 싫어하는 뮤리엘이 어떤 말을 타고 싶은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검은 말. 뻘했다. 그 애가 읽고 있는 책 제목처럼. 에밀리는 『블랙 뷰티』를 보고 대체 어떤 말과 경쟁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있게 주립 도서관에서 피치포크로 책을 보내줄 수 있는 도서관이 열린 문을 열기를 바랐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피크나 레이디는 책을 통해서만 말에 대해서 알게 된 뮤리엘 같은 도시 여자애가 좋아할만 한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 둘은 검은 말도

아니었다. 그 녀석들은 하얀 말이었다.

저녁 식사 전에 에밀리는 달걀을 가지러 나갔다가 헛간에 들렀다. 아빠가 머리로 소 옆구리를 밀면서 젖을 짜고 있었다. “친구여, 내 친구여, 어이 이별할까나” 아빠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빠는 노래를 부르면 소젖이 잘 나온다고 말하고는 했다. 치익-쭉, 치익-쭉 소리와 함께 우유가 통 안에 차고 있었고, 헛간에 사는 고양이들이 배고픈 표정으로 우유 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에밀리가 오는 소리를 들은 아빠가 통에다 우유를 짜는 대신 고양이들을 향해서 짜주었고, 녀석들은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아빠는 그게 에밀리가 좋아하는 구경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에밀리는 피크와 레이디의 마구간 사이 칸막이 위에 앉아서 그 둘을 내려다보았다. 이 두 녀석은 하얀 색, 진짜 하얀색도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하얗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리기리한 색이었고, 게다가 꼬리는 진흙으로 얼룩덜룩했다. 집에 안장이 있기는 했지만 두 녀석의 등이 너무 넓어서 안장이 맞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맘에 드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현충일이 가까워오면서 『블랙 뷰티』를 읽은 도시 여자애라면 피크와 레이디를 맘에 안 들어 할 거라는 에밀리의 걱정은 더욱 커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에밀리는 닭 모이를 주러 나갔다가 엄마가 뒷 베란다에서 구리로 된 빨래통에 수건을 담그는 걸 보게 되었다. 엄마는 빨래통에 물을 채워 놓고 락스를 부었다.

“락스로 빨면 수건이 정말 하얘져요?” 에밀리가 물었다.

“응, 하얘져.” 엄마는 수건을 푹 담근 다음 낡은 대걸레 막대로 휘휘 저었다.

이 정도면 에밀리에겐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엄마!” 에밀리는 외쳤다. “락스로 말을 씻겨줘도 돼요?”

“어머나, 에밀리!” 엄마는 웃었다. “나는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긴 한데, 그래도 아빠한테 꼭 물어보렴.”

그날 아침, 에밀리는 허겁지겁 닭 모이를 주고 와서 장비창고에서 썬레를 손보고 있는 아빠를 찾아냈다. “아빠, 락스로 말 씻겨줘도 돼요?” 에밀리가 물었다.

아빠는 엄마처럼 웃지 않고 에밀리의 물음에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렴, 에밀리.” 아빠가 말했다. “대신 꼼꼼히 잘 행귀줘야 해.”

“아아, 고마워요!” 정말 안심이 된 에밀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그 날 에밀리는 산수시간에 최소공분모를 찾는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헤맸는데, 그건 어느 말을 표백시킬지 고민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레이디로 결정했고, 표백을 다 마치면 레이디는 눈처럼 새하얗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긴 갈기와 꼬리를 찰랑이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말이라니. 쳇, 승마용 말 따위는 필요 없다! 외할아버지가 맥민빌에서 열린 개와 조랑말 쇼에서 데리고 가 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본 멋진 여자 기수처럼 유리엘도 안장 없이 타면 된다. 그 멋진 여자 기수처럼 말 위에서 일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안장 없이 타는 편이 훨씬 더 낭만적일 것 같았다. 유리엘은 레이디를 올라타고서 피트 진티 아저씨네 목공소에 있는 대팻밥 색깔을 띤 긴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바람처럼 마당을 가로지르며 달릴 것이다. 어디 보자, 표백 작업을 하려면 락스, 솔, 물, 양동이, 털을 말릴 때 쓸 헨 옷들 여러 개가 필요했다. 물론 말뱃도 필요했다. 그리고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다.

플룻킨 선생님이 교탁을 자로 탕탕 쳤다. “에밀리 바틀렛.”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불렀다. “공상(woolgathering)⁷⁾은 그만하고 산수 문제에 집중하도록.” 플룻킨 선생님이 에밀리에게 공상은 그만하라고 할 때면 에밀리는 새들이 철조망에 걸린 양털을 주워서 아기 새들을 위해 아주 부드러운 양털 등지를 만들어 주는 모습을 상상했다. “에밀리-” 플룻킨 선생님이 혼내는 투로 에밀리를 한 번 더 불렀다. 에밀리는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외투를 걸어놓는 방에서 벌을 서고 싶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에밀리는 집으로 달려갔고, 엄마는 식품 저장고에서 파이 크리스트 반죽을 만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저한테 말 표백시켜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조금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먼저 옷부터 갈아입으렴. 제일 낡은 옷으로 입어야해. 락스 통 위에 적힌 사용법을 자세히 읽고 회석하는 거 잊지 마. 절대로 통에 있는 락스 그대로 쓰면 안 돼.”

“네, 엄마.” 에밀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제일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계단 난간을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마당에 있

7) woolgathering은 공상 또는 양털 걷어 모으기의 의미

는 수조 옆에 가져다 두었다. 그리고 헛간 벽에 걸린 고삐를 챙겨 언덕을 뛰어 내려가 울타리를 타고 풀밭으로 넘어갔다. 레이디를 찾아서 목에 고삐를 걸고 수조 옆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이제 에밀리는 락스를 희석시키기 위해 사용법을 꼼꼼히 읽었다. 긴 행주, 칫대보. 아니야, 이건 에밀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불에 그을린 것, 흰 곰팡이가 핀 것. 아니야, 레이디는 불에 그슬리지도, 흰 곰팡이가 피지도 않았다. 사용법은 말을 표백시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래서 사용법을 한 번 더 읽고 나서 찌든 얼룩을 지울 때의 희석 방법이 그나마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수조 물을 양동이에 길은 후 락스를 타서 희석시켰는데, 레이디가 크고 힘이 센 걸 감안해서 사용법에 적힌 양보다 락스를 조금 더 탔다. 사용법은 15분간 담그라고 적혀있었다. 그럼 이제 말 한 마리를 15분 동안 담그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밀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레이디를 관찰해보았는데, 오늘따라 엄청나게 거대해보였다. 특히 꼬리와 구절-발 주변에 무성한 털-상태가 제일 심했다. 레이디는 검코 커다란 눈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에밀리는 양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헛간에서 하나를 더 찾아와 락스 희석액을 또 만들었다. 그리고는 레이디의 뒷발 한쪽을 힘껏 잡아끌어서 발을 들게 한 후 양동이 안으로 집어넣었다.

“됐다!” 에밀리는 말했다. “그대로 그렇게 15분 동안 양동이에 발 담그고 있어. 그럼 구절이 훨씬 깨끗하고 하얗게 될 거야.”

레이디가 히힃하고 대답했다.

이제 에밀리는 다른 양동이 물에 솔을 침병 침병 적신다음 수조 난간 위에 올라서서 레이디의 등을 벽벽 문지르기 시작했다. 레이디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가만히-, 착하지.” 에밀리는 이렇게 말하며 솔에 물을 다시 묻히기 위해 폴짝하고 뛰어 내려왔다. 레이디의 등에서 땀물이 여러 줄기로 흘러내렸다. 에밀리는 다시 수조 난간 위로 올라가서 레이디의 등을 쓱쓱, 벽벽 문질렀다. 그러다 또 뛰어내려서 양동이에 담갔던 레이디의 발을 빼게 했다. 그랬더니 정말 구절이 하얗게 변해있었다! 에밀리는 양동이를 다른 뒷발 쪽으로 질질 끌어서 옮기고 한숨

을 한번 크게 쉰 후 그 뒷발을 있는 힘껏 들어 올렸다. 레이디는 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양동이에 발을 담가 주었다. 녀석은 정말 순한 말이었다.

에밀리는 계속해서 문지르고 벽벽 씻고, 헹구고, 말렸다. 젖은 말 냄새와 락스 냄새가 고약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물에 너무 오래 젖어 있던 탓에 에밀리의 두 손이 쪼글쪼글 해졌다. 그 때, 레이디가 발을 구르더니 양동이를 걷어찼다.

에밀리는 슬슬 지쳤지만 다시 양동이 물에 락스를 희석시킨 다음 레이디를 달래서 발 한쪽을 담그게 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껏 씻긴 노력의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에밀리가 문지른 군데군데는 정말로 하얗게 변해있었다. 그렇지만, 오오, 세상에, 아직도 남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그 꼬리! 치렁치렁하고 온통 진흙으로 얼룩진 그 꼬리를 표백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꼬리를 물에 담그려면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십오 분이나 들고 서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에밀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꼬리를 표백하는 동안 레이디를 양동이에 걸터앉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다. 에밀리는 다시 레이디를 문지르고 닦기 시작했지만, 꼬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스러웠다. 꼬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눈처럼 새하얀 말이라면 아름답게 찰랑이는 새하얀 꼬리가 있어야 했다.

에밀리는 더욱 더 지쳐갔다. 레이디의 꼬리에 찰싹하고 맞기도 여러 번이었다. 팔도 아파왔다. 두 손은 하얗게 되고 코듀로이처럼 쪼글쪼글해졌다. 옷도 젖었고 몇 군데는 락스에 바렸다. 레이디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말이었고, 녀석이 조금씩 하얗질수록, 꼬리는 더 더러워보였다.

쉬운 부분은 모두 표백을 끝냈고, 이제 막 배 아래쪽을 마무리하던 참이었다—다행히도 레이디가 간지럼을 타지는 않았다—그 때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헛간 뒤에서 피트 진티 아저씨가 팔에 사냥용 총을 걸치고 나타났다.

자, 에밀리가 말을 표백할 때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피트 진티 아저씨였다. 이 아저씨 앞에서는 웬지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다. 아저씨의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했고, 피치포크에서 유일한 검은색 수염은 정말 덩수룩했다. 아저씨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결혼을 못한 것도 당연해 보였다. 아저씨 말투를 들어

보면 농담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아저씨가 토끼나 꿩 사냥을 할 때 바틀렛 집안 땅을 가로지를 때면 에밀리는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엄마는 피트 진티 아저씨가 다른 데로 가서 꿩 사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흠, 피트가 나하고 동창이라서...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번엔 숨을 틔이 없었다. 피트 진티 아저씨가 다가와서 에밀리가 레이디를 문지르고 닦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에밀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아저씨가 남의 땅에서 어슬렁거리며 사냥하지 말고 그냥 아저씨네 목공소에만 있으면 하고 생각했다.

피트 진티 아저씨는 땀자국으로 얼룩진 모자를 다시 고쳐 썼다. “에밀리.” 마침내 아저씨가 말을 걸었다. “말 아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에밀리는 말 아래에서 나왔다. “표백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달리 할 말이 뭐가 있었을까?

“어이구야, 이렇게 놀라울 수가,” 피트 진티 아저씨가 말했다. “말을 표백하다니! 여자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유난스럽게 깔꿈을 떠다고 늘 말하고 다니긴 했다만, 이건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최고네.”

에밀리는 피트 진티 아저씨가 목공소 일이나 얘기하고 다른 데로 갔으면 하고 생각했다. “깔꿈을 떠는 게 아니에요,” 에밀리가 흥분하며 말했다. 너무나 지치고 몸은 다 젖은 데다 락스와 말 젖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눈물이 나기 일보 직전이였다. “내가 이려고 있는 건 포틀랜드에서 사촌 유리엘이 오기로 했는데 개가 엄청 멋진 검은 말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서 나는 레이디를 엄청 멋진 하얀 말로 만들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아저씨가 마차 차고지를 오가는 다른 아저씨들에게 소문을 내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이제 사람들은 에밀리를 볼 때마다, “에밀리, 잘 있었니? 이번엔 어느 말을 표백했어?” 라던가, “요즘에도 돼지들한테 썩은 사과를 주고 있지?”라고 말할 게 뻔했다. 작은 마을에 살면 이런 게 불편했다.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녔다.

“딱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피트 진티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에밀리는 아저씨가 칭찬으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꼬마 여자애가 아니라 여자라는 단어를 말한 것은 기분이 좋았다.

“꼬리는 어떻게 하려고?” 아저씨가 궁금해 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에밀리는 지친 기색을 띠며 털어놓았다. “원래는 십오 분 동안 락스물에 담가야 해요.”

피트 진티 아저씨는 수조 벽에 총을 기대어 놓았다. “양동이 이리 쥐봐.” 에밀리는 아저씨의 말에 양동이를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는 양동이를 레이디의 꼬리 밑에서 잡고는 그 기다란 꼬리가 물속에서 떠다닐 수 있을 정도로 들어 올렸다.

에밀리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분명히 이 일을 신나게 떠벌리고 다닐 것만 같은 이 아저씨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엄마는 늘 “피트 진티의 허풍은 정말!”

피트 진티 아저씨도 십오 분 동안 양동이를 들고 있는 건 무리였다. 여러 번 팔을 내리긴 했지만, 십오 분이 지나자 레이디의 꼬리가 하얗게 있었다.

“아아, 고맙습니다, 아저씨.” 에밀리가 말했다. “저 혼자선 절대로 꼬리를 씻지 못했을 거예요.”

아저씨는 괜찮다는 말로 화답할 만큼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총을 집어 들고는, “여자들이란!”하고 콧방귀를 끼고는 쿵쿵거리며 가버렸다.

기진맥진해진 에밀리는 수조에 몸을 기대어 레이디를 쳐다보았다. 녀석은 이제 하얀 말이 되어 있었다. 5월 오후 늦은 저녁,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해를 지고 서 있는 레이디가 에밀리의 눈에는 정말이지 멋진 갈기와 찰랑거리는 꼬리를 가진 눈처럼 새하얀 준마였다. 이제 녀석은 유리엘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해졌고, 에밀리는 녀석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유리엘이 묘지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레이디에게 반해버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벤 삼촌의 맥스웰에 타는 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에밀리!” 에밀리가 레이디를 마구간에 넣어두고 집으로 들어오자 엄마가 깜짝 놀랐다. “네 꼴 좀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질꼬질하네.” 엄마는 부엌 바로 옆에 있는 욕실로 들어가 얇힐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욕조에다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엄마.” 에밀리가 말했다 “내가 레이디를 눈처럼 새하얀 멋진 준마로 변신시켰어요.”

욕조에 물이 찰박찰박 차고 있었고, 엄마는 에밀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

보았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밀리가 물었다.

“아름다움이란 건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야.”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묘한 말들이란!

다음날 아침은 분주했다. 아침을 먹은 후, 에밀리는 엄마가 저녁 식사 때 튀길 닭의 털을 뽑았다. 그런 다음 서부를 개척한 선조들의 무덤에 놓고 올 라일락꽃을 같이 준비했다. 외할머니네 모자가게에 둘둘 말린 베일처럼 과수원에 꽃이 예쁘게 피어서 시골 나들이하기에 정말 좋은 날이었다.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모두 마친 에밀리는 나무 울타리에 예쁘게 피어있는 야생 스위트피 꽃 덩굴을 꺾었다. 눈처럼 새하얀 준말의 목에 연녹색 잎사귀와 보랏빛이 도는 붉은 꽃이 감겨져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에밀리가 헛간에 들어서자 레이디는 부드럽게 히힃 하고 울며 반겨주었고, 에밀리는 햇살 속에 보이는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녀석의 옆구리를 토닥여 뒷걸음질로 마구간에서 나오게 한 다음 문가에 세웠다. 그리고 스위트피 꽃으로 꽃목걸이를 만들어 녀석의 목에 걸어주고 뒤로 물러서서 레이디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비춰 보았더니, 춤추듯 떠다니는 작은 먼지와 함께 금빛 아침 햇살 속에서 에밀리의 말은 더 이상 준말로 보이지 않았다. 눈처럼 새하얀 색을 띠는 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제일 깨끗하긴 했지만 목에 허접스러운 스위트피 꽃 덩굴을 걸친, 그저 밧을 가는 늙은 말일 뿐이었다. 에밀리는 어째서 레이디가 다르게 보였었던 걸까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실망스러웠던 때가 또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노을 진 하늘의 구름같이 폭신 폭신하고 핑크색을 띤, 설탕을 휘저어 만든 막대과자를 오리건 주 축제에서 아빠가 사줘서 한 입 먹었을 때, 분명 천상의 맛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입 안 가득 달짝지근하고 끈적거리는 것 빼고는 아무 맛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그 때 이후로 이렇게 실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이제 아침 햇살은 또 하나의 꿈을 녹여서 없애버렸다. 에밀리는 고삐 풀린 상상이 에밀리를 태우고 달아나기 전에 워-워-하고 멈춰야 했다.

에밀리는 조용히 레이디를 다시 마구간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 말이 맞았다. 아름다움은 말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에밀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레이디가 근사해 보이기를 너무나 바랐던 나머지, 아주 잠깐이었지만 녀석이 진짜로 근사해 보였던 것이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에밀리?”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오늘은 레이디가 눈처럼 새하얀 준마가 아니에요.” 에밀리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디는 그냥 말을 가는 엄청 깨끗한 말이에요. 하룻밤사이에 아름다움이 내 눈에서 빠져나갔나 봐요.”

엄마는 에밀리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들 모두는 언젠간 꿈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단다, 에밀리.”

“그치만 유리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걸요.” 에밀리가 말했다.

“나라면 유리엘 걱정은 안 할 거야.” 엄마는 이렇게 조언해주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말을 『블랙뷰티』라는 책으로만 접했고 일반 편지지가 아니라 문구점에 파는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쓰는 도시 소녀, 유리엘이 걱정되었다.

드디어 벤 삼촌의 자동차가 농장 길을 따라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에밀리는 도시 친척들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갔다. 에밀리는 벤 삼촌과 아이린 숙모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수줍어하며, “안녕, 유리엘.” 하고 인사했다. 탐스럽게 빛나는 머리카락가닥이 모두 길고 동글동글 말려있는 머리 모양 때문에 유리엘은 정말 화려해보였다.

“안녕, 에밀리.” 유리엘이 자동차 발판을 딛고 뛰어내렸다. “내 편지 받았니?”

“응.” 에밀리는 대답했다. “여기 피치포크에도 도서관이 생길 건데 어쩌면 『블랙뷰티』가 있을지도 몰라.”

“정말이지 너무나 좋은 책이야.” 유리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읽어본 책 중에 최고야. 말이 자기의 삶을 말해 준다구.”

“말이 말을 한다고?”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 『블랙뷰티』라는 책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책이지?

“오오, 그렇다니까!” 유리엘이 말했다. “거기 나온 말은 모두 말을 해. 서로에게 각자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에밀리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유리엘이 하는 말

을 들어보면 거기 나오는 말은 피치포크의 아주머니들만큼이나 수다스러웠다.

엄마도 도시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러 서둘러 나왔다. 그리고 뺨에 입을 맞추며 모두와 인사를 나눈 후 “날씨 좋은 날에 잘 오셨어요. 그래도 포틀랜드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시느라 피곤하시겠네요.”라고 말했다.

“엄마.” 유리엘이 자기 엄마에게 속삭였다.

아이린 숙모가 미소를 지었다. “유리엘이 말을 타 보고 싶어 하네요. 애가 어찌나 타고 싶다고 하는지, 소원을 들어주면 이제 그만 얘기할까 싶어요.”

“물론이지, 애야.” 엄마가 숙모의 말에 민망해 하는 유리엘에게 말했다.

“에밀리, 유리엘을 레이디에 좀 태워주렴.”

엄마가 레이디를 표백한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웠다. “가자, 유리엘.” 에밀리가 여전히 도시 친척들 앞에서 수줍음을 타며 말했다. 에밀리는 레이디의 목에서 스위트피 꽃목걸이를 뺄 걸 하고 후회했다. 지금쯤이면 시들어서 아까보다 더 우스워 보일게 분명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수조에 다다르자 에밀리가 말했다. “내가 레이디를 데리고 나올게.” 에밀리는 헛간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레이디가 이미 스위트피 꽃목걸이를 야금야금 뜯어 먹었고 몇 개 안 남은 꽃은 마구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레이디를 끌고 헛간 경사로를 내려오면서 “애는 그냥 밭을 가는 늙은 말이야.”라고 미안해하며 말하려던 순간 유리엘의 표정이 보였다.

“하얀 말이야!” 감동에 벅찬 표정의 유리엘은 탄성을 질렀다. “검은 말보다 더 멋지다!”

좋아! 에밀리는 자신감이 생겼다. 굳이 뭐 하러 유리엘한테 레이디가 그냥 밭을 가는 늙은 말이라고 얘기해야 하나? 엄마가 옳았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었다. 바로 유리엘의 눈에서 그 아름다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레이디가 머리를 위로 쳐들며 히힃 하고 울었다. 유리엘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고, 에밀리는 더욱 더 자신감이 생겼다. 유리엘은 밭을 가는 말을 구분하는 건 둘째 치고 말을 무서워했다.

“착하지, 예쁜이.” 자신감을 얻은 에밀리가 레이디를 달렸다. “유리엘, 이 수조 난간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레이디 위에 탈 수 있어.”

“마...말에 안장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유리엘이 물었다.

“난 안장 없이 타.” 라고 대답한 에밀리는 유리엘이 감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레이디를 끌어서 수조 옆에 세우며 에밀리의 자신감은 더욱더 높아졌다. “올라 타봐,” 라고 유리엘에게 말했다.

“도...도망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까?” 겁을 먹은 유리엘이 물었다. “『블랙뷰티』에서 보면 가끔 말들이 도망가거든.”

“안 그럴 거야.” 에밀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나 탄다.” 유리엘이 레이디의 갈기를 잡고 녀석의 넓은 등판 너머로 한쪽 다리를 걸쳤다. 속바지가 보였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주위에 남자애들은 없었다. “마...말이 이렇게 미끄러울 줄은 몰랐어.”

에밀리는 레이디를 끌고 마당을 돌기 시작했다. 녀석은 이끄는 대로 터벅터벅 걸어와 주었지만, 유리엘은 두 손으로 갈기를 아주 꽉 쥐고 있었다. 그 애의 얼굴에는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나타났다.

레이디가 꼬리를 흔들다가 유리엘의 다리를 쳤다.

“에밀리!” 유리엘이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괜찮아.” 에밀리는 유리엘을 안심시켜 주었다. “녀석이 파리를 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마당을 돌고 또 돌았다. 유리엘도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다. 허리를 바로 세우기도 하고, 너무 힘을 세게 쥐어 하얗던 두 주먹에도 다시 핏기가 돌았다. “말이 너무 지치진 않겠지, 그렇지?” 유리엘이 물었다.

“응.” 에밀리는 레이디가 몇 시간동안이고 발을 갈던 말이라는 걸 사촌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블랙뷰티』를 보면 어떤 주인들은 말들을 엄청 못되게 다루거든.” 유리엘이 말했다. “나는 말한테 못되게 굴고 싶지 않아.”

에밀리는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레이디한테 마당을 걸어다니는 게 힘들 거라니! 에밀리는 유리엘이 말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면 어쩌나하고 내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벤 삼촌의 자동차 맥스웰을 타고 묘지에 다녀오는 드라이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마당을 돌고 또 돌았다. 이제 가족들이 외출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다. 유리엘을 보니 말 위에서 영원히 내려올 생각이 없어보였다.

“좀 더 빨리 가볼래?” 갑자기 에밀리가 제안했다.

“아, 그래.” 유리엘이 자신 있게 말했다.

“이랴!” 에밀리는 이렇게 외친 후 밧줄을 당기며 달리기 시작했다.

레이디는 고분고분하게 그 큰 몸으로 쿵쿵쿵 걷기 시작했다. 유리엘의 몸이 통통 튀기기 시작했다. 레이디의 등이 미끄러워서 유리엘의 몸이 한쪽으로 튕졌다가 다른 쪽으로 튕졌다. “너어무우 빠아르른 거어엇 가아타아.” 유리엘의 몸이 흔들리면서 목소리가 울렸다.

에밀리는 못 들은 척 했다. 쿵. 쿵. 쿵. 레이디가 묵직한 발굽소리를 내며 빠른 걸음을 이어갔다. 유리엘한테서 찰싹, 찰싹, 찰싹 소리가 났다. 유리엘의 돌돌 말린 긴 머리카락이 스프링처럼 위아래로 통통 튀고 있었다.

“도오-도오-와쥬!” 유리엘이 험떡이며 외쳤다.

“위어-!” 에밀리는 보통 속도로 걸음을 늦췄다.

“애들아!” 뒷 베란다에서 아이린 숙모가 불렀다. “이제 출발할거야, 같이 갈거니?”

“저희도 가요.” 에밀리가 외쳤다. 유리엘은 숨이 차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에밀리는 레이디를 다시 수조로 데리고 가서 유리엘이 내려오는 걸 도와주었다. “너도 가고 싶은 거 맞지, 그렇지, 유리엘?” 에밀리가 물었다.

유리엘은 고개를 끄덕였고, 에밀리는 레이디를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목줄을 풀어주고 인사의 의미로 토닥여주었다.

“담요를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마침내 숨을 고른 유리엘이 물었다.

“담요?” 에밀리는 어리둥절했다. “왜?”

“음, 『블랙뷰티』에서 보면 말이 운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마부가 말 등에 담요를 덮어주더라고.” 유리엘이 대답했다. 또, “가끔씩은 마부가 따뜻하게 삶은 사료를 주기도 해.”라고 꿈을 꾸듯 말했다.

에밀리는 레이디가 운동이라고 느낄 만큼 움직인 것도 아니라는 말로 유리엘의 꿈을 깨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햇볕이 좋은 날이라서 담요는 안 덮어줘도 될 거야,” 에밀리는 재치 있게 돌려 말했다. “그리고 레이디는 삶은 사료보다 신선한 풀을 더 좋아하거든.”

유리엘에겐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다녀온 다음에 또 탈 수 있어.” 에밀리는

뮤리엘과 부모님들께 달려가면서 말했다. “내가 또 태워줄게.”

“오오, 정말?” 뮤리엘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재밌게 잘 탔니?” 두 소녀가 자동차에 다다르자 아이린 숙모가 물었다.

“아아, 엄마, 정말 신났어요!” 뮤리엘이 대답했다. “보세요, 제가 진짜로 살아 있는 말을 탄 거예요. 아름다운 백마를요!”

엄마와 에밀리는 미소를 살짝 주고받았다.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었는지 둘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에밀리는 벤 삼촌의 맥스웰 뒷자리에 올라타서 운기가 흐르는 가죽 쿠션 위에 앉았다. 차 안에 있는 조그만 꽃병과 앞좌석 등받이 뒤에 걸려있는 격자무늬의 자동차용 담요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에밀리가 엉덩이를 톱톱 튕겨보았고, 의자 쿠션이 스프링처럼 받쳐주어 더욱 기분이 좋았다. 묘지로 향하는 길은 멋지지만 울퉁불퉁했다.

4.

외할아버지와 틴 리지⁸⁾

외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자동차를 사겠노라고! 외할아버지는 ‘그래, 시대가 변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처럼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 말과 마차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시대에 발을 맞추고 싶었고 그래서 포드 자동차, 모델-T 포드를 사기로 했다.

에밀리는 엄청나게 멋지다고 생각했다. 외할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서 시대에 발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늘 외할아버지가 수영이 없어도 꽤나 옛날사람 같다고 생각했었다. 아직도 전기를 “주스”라고 말하질 않나, “전등을 꺼다오. 주스를 아껴야지,” 라고 하니깐. 그렇지만 이제 외할아버지는 달라질 것이고, 에밀리는 자동차와 꽤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었다. 학교에서 애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자동차를 자랑할 때면, 에밀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집에 자동차는 없어. 우리 집엔 트랙터가 있지.”

외할아버지가 자동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뭐 하러 그런 복잡한 기계를 사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에나, 피치포크는 얼마든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마을인데다가, 하루 종일 가계를 봐야하면서 대체 언제 운전을 하겠다는 거람?’라고 하면서.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나이를 생각해서 무모한 일은 안 벌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빠는 그저 웃으며 외할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게 두라고 했다.

가게 손님들은 자동차를 사겠다는 외할아버지의 계획을 놀렸다. 에이버리 삼촌의 오전 우편물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가게에서 시간을 때우다 가는 할아버지들은 매일 아침 “그래, 월, 틴 리지는 샀는가?” 라고 물었다.

에밀리는 외할아버지가 시대에 발을 맞추겠다는 결심을 바꿀까봐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러나 마침내 대망의 그 날이 왔다. 엄마와 에밀리는 가게를 보는 외할머니를 도우러 갔다. 바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온 합승택시를 타고 맥민빌로 모델-T 포드를 사러 갔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외할아버지처럼 멋지게 종이봉투를 확! 하고 한 번에 벌리는 연습을

8) T형 포드 자동차(1908-28)의 애칭

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감탄하며, “어머, 저 꼬마가 종이봉투를 펴는 기술 좀 봐!”라고 말할 테니까. 에밀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동안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운전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맥민빌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복잡한 기계를 운전해서 오겠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것이라고 걱정하며 투덜거렸다.

오후 늦게부터는 엄마가 계속 현관에 나가보며 맥민빌 방향의 메인스트리트를 훑어져라 쳐다보았다. 에밀리는 다들 뭘 그리 걱정하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동을 걸고, 멈추고, 만일의 경우에 후진하는 것 말고 운전하는데 또 뭐가 있단 걸까? 외할아버지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조지 A. 바비 할아버지가 방법을 다 설명해 주었다. 단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는 기름이 엔진까지 흘러가야 되니까 후진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 빼고는 별게 없었다.

“제발!” 외할머니는 메인스트리트를 보러 나갈 때마다 소리쳤다. “이 영감이 오면서 지난번 조지 A. 바비 영감처럼 소를 친 게 아니길.”

결국엔 현관 계단에 앉아서 외할아버지가 길을 따라 보기 좋게 운전하고 오는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비닐봉지를 털어서 확! 여는 연습을 하다가 지쳐버린 에밀리였다. “외할아버지가 와요!” 에밀리가 외쳤다. “외할아버지가 온다고요!”

엄마, 외할머니, 가게에 있던 손님들 모두 길가로 뛰쳐나가서 외할아버지가 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외할아버지가 길을 따라 다리를 건너 메인스트리로 들어섰다. 환희와 승리감에 도취된 외할아버지는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워어!” 할아버지는 새 자동차를 멈추며 이렇게 외쳤다.

“윌리엄, 해냈네요!” 그제야 마음이 놓인 외할머니가 감탄하며 외쳤다.

“물론 해냈고말고.” 외할아버지가 운전석 문을 넘어오며 대답했다. 운전석 문은 열리지 않게 되어 있었다.

모두들 둥글게 모여 외할아버지의 검은색 새 오픈카를 구경하며 감탄했다. 조지 A. 바비 할아버지도 와서 후드를 열어 엔진을 살펴보았다. 피치포크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조지 A. 바비 할아버지를 포드 자동차의 권위자라고 불렀는데, 그건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 처음 포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에밀리는 대시보드 위에 꽃병이 없어서 조금 실망했지만 그 대신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 낯설로 된 라디에이터 장식, 여분의 물, 가스, 기름을 넣는 발판

위의 빨강, 하양, 파랑색의 깡통들. 에밀리는 자동차 주인의 가족이었으니까 마음대로 앞좌석에 앉아 검은 가죽 쿠션 위에서 엉덩이를 통통 튕겨보았다.

“가자, 에밀리.” 엄마가 불렀다. “집에 가서 저녁 할 시간이야.”

“엄마! 저는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에밀리는 고집을 부렸다.

“오늘은 안 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가자.”

“내가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마.”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가 대답했다. “어머니 혼자 가게를 보시기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가자*, 에밀리.”

너무나 낙담한 에밀리는 차에서 내려왔다. “그렇지만 엄마.” 시멘트로 된 길에서 널빤지가 깔린 길로 들어설 때쯤 에밀리가 투정을 부렸다. “하루 종일 외할아버지 모델-T를 타려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에밀리.”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동안 그 자동차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하지도 마. 외할아버지의 운전 실력을 못 믿겠거든.”

“엄마!” 에밀리는 큰 소리로 투덜댔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엄마는 에밀리가 외할아버지의 자동차를 탈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냈고, 에밀리는 외할아버지가 동네를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 돌아다닐 때마다 아쉬운 표정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사람은 외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여성시민클럽은 피치포크 주립은행 위층 커머셜 클럽룸 한 구석에 도서관 자리를 마련했다. 아주머니 두 분이 잠기는 유리문이 달린 낡은 중국식 수납장을 책 선반으로 쓸 수 있게 빌려주었다. 엄마가 도서관 사서로 정해졌다. 이젠 책만 있으면 됐다.

엄마가 <피치포크 통신> 맨 첫 페이지에 실기 위해 편지를 한 통 썼다. 그 편지에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싶다면 외할아버지의 가게에 있는 박스 안에 넣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컨츄리 젠틀맨』이라는 잡지를 1달러에 일 년 동안 구독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 잡지를 5권 신청할 때마다 도서관은 새 책 5권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다. 주립 도서관에서 빌려주기로 한 75권의 책도 곧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가게는 정기 휴일이었고, 가게 문을 두드리며 외할아버지

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던 그 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에밀리네 농장까지 새 포드 자동차를 타고 왔다. 외할머니는 멋진 서지 정장을 입고 제일 좋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온화한 얼굴에 죽기밖에 더하겠냐는 듯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서 타거라.”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너희 식구들 다 태우고 드라이브 가려고 왔단다.”

“좋지요.” 아빠가 말했다. “드라이브 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에밀리와 엄마, 아빠는 뒷자리에 올라탔다. 외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크랭크를 돌렸다- 돌리고, 또 돌렸다. 마치 커다란 기계가 재채기를 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마침내 엔진에 시동이 걸렸고 자동차가 덜덜 거리기 시작했다. 외할아버지는 얼른 돌아와서 다시 차에 올라탔고, 자동차가 두 줄기의 열은 갈색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출발했다. 뒷발을 손질하고 있던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손을 흔들었다. 외할아버지도 경적을 울려 화답했다. 삐익--삐익--

“에구머니나!” 시내 큰길에 들어서며 외할아버지가 슈웅하고 코너를 돌자 외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삐익--삐익-- 외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자애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엄마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빠는 아주 신이 났다. 에밀리는 보이는 사람 모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렇게 신나는 드라이브라니! 메인스트리트를 달려 학교를 지나 먼지를 일으키고 닭들도 놀라게 하며 비포장도로도 지나, 데포 가를 통과해서 메인스트리트를 돌아 다시 농장으로 연결되는 길로 들어섰다.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사고는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소 한 마리는 커녕 닭 한 마리도 치지 않았다!

“어떠냐, 에밀리?” 드라이브가 끝나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떠나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 이 할아버랑 올드 스키너에 가볼래?” 올드 스키너는 외할아버지의 땅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 동네 분이 외할아버지 대신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 스키너 집안에서 1890년쯤에 그 땅을 판 이후, 땅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다. 하지만 피치포크 지역의 땅은 여전히 미국 이주지원법을 통해 맨 처음에 땅을 소유했던 집안의 이름으로 불렸다.

“오오, 외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래요.” 에밀리는 바로 대답했다.

엄마는 조금 망설이다가, “스콧 여사가 도서관에 기부할 책이 몇 권 있는데 시내에 나올 수가 없다고 전화했었어. 그럼 내일 스콧 여사 댁에 들러서 책을 갖고 올 수 있겠니?” 라고 했다.

나쁘지 않았다. 드디어 에밀리도 외할아버지의 포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시내에 발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동이 트자마자 외할아버지가 에밀리를 태우러 왔다. 에밀리는 대문 밖 오동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드라이브는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았다. 외할아버지가 차 지붕을 열고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아직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현관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주었다.

공교롭게도, 에밀리와 외할아버지가 시골로 나가는 길에 조지 A. 바비 할아버지네 집이 있었다. 조지 할아버지는 차 소리가 들리자 손보고 있던 모델-T 포드 자동차 밑에서 기어 나와 큰 소리로 그 둘을 불렀다. 당연히 외할아버지는 그 집 앞에 멈춰 섰다, 시동은 끄지 않았지만. 조지 A. 바비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외할아버지 차에 기대어 섰다. 에밀리는 조지 할아버지가 자동차 내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꽤 길게 수다를 떨 것을 직감했다. 할아버지들 둘이서 떨림 방지 회전축, 클러치 미끄러짐, 닳을 수 있는 로우 밴드, 렉스텔 차축이 좋은 점 등등 지루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동안 에밀리는 가죽시트 위에서 꿈지락거렸다. 계속 부릉부릉 하고 돌고 있는 모터 소리가 마치 에밀리만큼이나 다시 달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들렸다.

에밀리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외할아버지.” 부릉거리는 엔진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에밀리가 재촉했다. “저희 가야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에밀리, 가 봐야겠구나.” 외할아버지도 말했다. “조언 고맙네, 조지 A.”

드디어 다시 출발했다! 자동차 지붕을 열고 시골길을 달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날이었다. 푸른 들판, 뭉게구름이 떠다니는 파란 하늘, 울타리를 따라 자라는 야생 장미와 앤 여왕의 레이스 꽃.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찌르레기 새들. 외할아버지의 자동차 소리가 조금만 작았더라면 들종다리가 우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다.

길은 멋졌지만 울퉁불퉁했고, 둔덕을 지날 때마다 차가 덜컹거리는 게 재미있었다. “좀 더 빨리 가면 안돼요? 외할아버지?” 에밀리가 즐랐다.

외할아버지가 운전대 옆에 있는 기어를 잡아 당겼다. 자동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에밀리의 몸이 가죽시트 위에서 툭툭 튀어 올랐다. 그 와중에도 에밀리는 외할아버지가 장착한 속도 계기판을 보았다. “외할아버지!” 흥분한 에밀리가 소리를 질렀다. “지금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신나고 즐거울 수가! 시속 90킬로미터로 질주하다니!

둘은 스콧 씨네 집 앞 오래된 메이플 나무 아래에 멈춰 섰고, 스콧 여사는 도서관에 기증할 책을 들고 나왔다. 에밀리는 크게 실망했지만, 가냘프고 지쳐 보이는 스콧 부인이 눈치 채지 않도록 조심했다. 책이 고작 3권 뿐 인데다 모두 낡고 누렇게 바랬으며, 글자가 작은 책들이었다. 케닐워스⁹⁾와 설교책 2권이었다. 『블랙 뷰티』는 없었다. 에밀리는 스콧 부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책을 기부해 준 건 고마운 일이었다. 집에 있는 책 전부를.

올드 스키너로 가려면 더 외진 시골로 나가서 여러 개의 농장을 지나는 마차길로 가야해서, 농장을 지날 때마다 외할아버지는 차를 멈추고 내려야 했다. 농장 문을 열고, 다시 차에 올라타서, 농장 문을 통과한 다음, 또 다시 차에서 내려 농장 문을 닫았다. 첫 번째로 지나간 곳은 어느 농가 마당이었는데 닭 몇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를 피하느라 외할아버지가 차를 급히 틀어야 했다.

마침내 그 둘은 올드 스키너에 도착했다. 외할아버지의 자동차 시동이 꺼지자 어찌나 조용했던지! 외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알팔파가 잘 여물고 있는지 살펴 보았고, 에밀리는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울타리를 따라 자라고 있는 야생 매발톱꽃을 한 다발 꺾었다.

“얼른 와, 에밀리.” 결국 외할아버지가 에밀리를 불렀다. “그만 가자, 아침 내내 외할머니 혼자서 가게를 보게 할 수는 없지.”

에밀리가 매발톱꽃 한 다발을 손에 쥐고 발판을 디더 차에 올라타려 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트랙터라고 생각했는데, 잘 들어보니 아니었다. 그건 비행기였다! “보세요, 외할아버지!” 에밀리가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비행기예요!”

9) 월터 스콧 작가의 로맨스 소설

“어이구나, 정말이네!” 외할아버지가 눈부신 햇빛을 손으로 가리며 외쳤다.

“외할아버지, 비행기 조종사가 보여요!” 에밀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정말로 비행기 조종사가 보였다. 조종사의 갈색 가죽 재킷과 헬멧과 고글도 다 볼 수 있었다. 너무나 흥미진진한 아침이었다! 에밀리는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조종사도 조종석 밖으로 손을 내밀어 에밀리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에밀리에게 조종사가 손을 흔들어 준 것이다! “외할아버지, 조종사가 손을 흔들어줬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서서 비행기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난 후 다시 포드에 올라타고 문을 쾅하고 닫았다. 엄마한테 해 줄 얘기들이 생겼다!

외할아버지가 클러치를 위아래로 밟았다가 떼길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는 첫 번째 통과해야 할 문 근처에도 채 못 간 때였다. 발밑의 클러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 에밀리는 불안해했다.

"아이쿠 이런!" 외할아버지 역시 불안해했다. "조지 A. 영감이 이럴 때 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외할아버지는 클러치가 완전히 제자리에 오기도 전에 한 번 더 밟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멈추지 말라고 그 영감이 그랬는데, 언덕이 아니면 다시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럼 멈추지 마세요." 에밀리는 애원했다. 거기서부터 언덕까지는 꽤 먼 거리여서 언덕까지 가 볼 도리가 없었다.

"문에 가까워지고 있어!" 외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멈추면 안돼요!" 에밀리도 소리를 질렀다. 그 문이 마치 에밀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 같았다. "외할아버지, 멈추지 마세요!"

"멈춰야해!" 외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다. "우린 절대 집에 못 갈 거야." 맏소사, 만약 에밀리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엄마는 걱정할 테고, 그럼 다시는 자동차 드라이빙의 꿈도 못 꾸게 되는 것이었다. 이제 꼼짝없이 문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외할아버지가 자동차 방향을 틀어서 알팔파 받을 덜컹덜컹 달리고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계속 원을 그리면서 차를 몰았다. "어쩔 수 없구나, 에밀리," 할아버지는 말했다. "차를 세워야겠어. 달리 방법이 없구나. 가까운 농장까

지 걸어가서 거기 농부한테 사람을 모아서 시내까지 우리를 끌어달라고 해보는 수밖에."

"안돼요. 잠깐만요, 외할아버지." 에밀리는 애원했다. 구식으로 말들이 끌어서 시내까지 간다고? 그건 절대 안 돼! 외할아버지와 이 멋진 새 자동차가 피치포크의 놀림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되면 아침 내내, 어찌면 오후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엄마가 걱정할까봐 너무나 초조했다. "만약에 차를 정말 천천히 몰 수 있으면요." 에밀리는 방법을 떠올렸다. "제가 뛰어내려서 문을 열어 볼게요."

"에밀리,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어."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안 다쳐요." 에밀리는 외할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조심할게요."

"얼마나 천천히 차를 몰아볼 수 있을지 그럼 어디 한번 보자꾸나." 외할아버지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하긴 했지만, 말 뒤에 끌려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그 자동차가 자랑스러웠고 폼 나게 돌아가고 싶었다. 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바닥에 이미 생긴 바퀴자국 위로 차를 몰아서 덜컹거림이 조금 덜 해졌다. 에밀리는 차가 멈출까봐 그리고 알팔파 밭 한 가운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덜컹 남겨질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정말 할 수 있겠니?" 외할아버지가 물었다.

"할 수 있어요." 에밀리는 매발톱 꽃다발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차 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땅바닥이 빠르게 지나갔다. 에밀리는 크게 숨을 들이 쉰 다음 뛰어내렸다. 발을 헛디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까졌다. 상관없었다. 반 양말을 신고 다니는 날씨였고 무릎은 낫는다. "진 괜찮아요." 에밀리는 큰 소리로 말한 뒤, 외할아버지가 속도를 다시 올려서 원을 그리며 도는 동안 문으로 뛰어가서 매달린 다음 울타리 말뚝에 고정시켜 둔 고리를 들어서 빼냈다. 그리고는 한 발로 울타리를 힘껏 밀어서 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건 정말 재미있었을 것이다. 문에 대롱대롱 매달리기는 집에선 금지였다.

외할아버지가 문을 통과했고 반대편 밭에서 원을 그리며 돌아왔다. 에밀리는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뛰어내려 문을 다시 밀어서 닫았다. 잠금 고리를 다시 제자리로 한 뒤에 포드를 쫓아갔다. 이쪽 밭은 외할아버지 땅이 아니었고, 외할아

버지가 밭작물 위로 차를 모는 걸 보면 땅 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으니 모든 동작을 신속히 해야 했다. 에밀리는 이쪽 밭이 자두 과수원이 아니라 밀밭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과수원에서 원을 그리며 차를 몰아야 했다면 외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차가 너무 느려서 가다가 멈추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외할아버지가 속도를 낮췄다. 에밀리는 포드 의자 쪽 테두리를 꼭 잡고 몸을 당겨서 자동차 발판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나서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휴우! 에밀리가 해냈다!

"잘했다, 에밀리." 외할아버지는 다시 마차길 위로 차를 몰았다.

다음 문이 나타날 때까지 에밀리는 등을 뒤에 기대어 가쁜 숨을 가다듬었다. 한 번 성공했으니 다음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말 뒤에 끌려가야 했다.

두 번째 문 앞에서 외할아버지가 다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차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엄마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감히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이번에도 발을 헛디디긴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분명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았다. 이번에도 잠금 고리를 빼냈다. 이번 문은 삐걱거리서 에밀리가 매달릴 수는 없었다. 밀어서 열어야 했다. 외할아버지는 다시 직진해서 문을 통과했다. 에밀리는 힘겹게 문을 밀어서 닫는 동안 먼지를 들이마시지 않으려 애썼고, 외할아버지는 에밀리가 재빨리 다시 탈 때까지 귀리밭을 빙빙 돌았다. 휴우! 이번엔 힘들었다. 에밀리는 세 번째와 마지막 문을 열 때까지 힘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이번 문 근처에는 농장 건물이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원을 그렸다. 에밀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뛰어내렸다. 좋아, 확실히 요령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이번엔 정확히 두 발로 착지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는 문으로 달려가서 잠금 고리를 풀고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문이 꿈쩍도 안했다. 에밀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다. 외할아버지가 빙빙 돌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문을 들 수 있겠니, 에밀리?" 외할아버지가 다시 속도를 내서 운전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에밀리는 문을 들어보았다. 문이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한 번 더 들어 올렸더니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는 아니었다. 하느님

게 이렇게 사소한 소원을 빈다면 너무 이기적인 걸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멈추지 마세요, 외할아버지." 에밀리는 애원했다. "제가 방법을 생각해볼게요."

호기심 많은 송아지 한 마리가 무슨 일인가 하고 농장 마당을 경충경충 뛰며 가로질러 왔다. 이 녀석이 문 밖으로 나가면 끝장이었다. 에밀리는 이렇게 넓은 밭에서 이 녀석을 절대 잡지 못 할뿐더러, 잡으러 다니는 동안 차의 기름이 바닥 나 버릴 것이었다. 에밀리는 한 손으로 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기둥을 잡아서 막아섰다. 송아지가 장난을 치며 축축한 코를 에밀리에게 부벼댔다. "위이위이" 에밀리는 소리쳤다. "저리 가!"

쇠스랑을 든 농부가 헛간에서 나왔다. "대체 무슨 일이야?" 농부가 큰 소리를 지르며 쇠스랑을 떨어뜨리고 에밀리에게 뛰어왔다.

"멈추지 마세요, 외할아버지." 에밀리는 간청했다. 이 와중에 그 송아지는 길고 축축한 혀로 에밀리의 얼굴을 핥고 있었다. "저 분께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볼게요."

"내 귀리 밭에서 왜 차를 몰고 있는 거요?" 농부가 따져 물었다.

"차를 멈출 수가 없소." 외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시동이 다시 안 걸릴 거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한쪽 발로 송아지를 밀어내며 에밀리가 사정했다. 이 농부아저씨가 지나가게 도와만 준다면!

아저씨가 꺾꺾 웃기 시작했다. "저리 가, 버터컵." 송아지의 엉덩이를 찰싹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주었다.

"아아, 고맙습니다." 감격한 에밀리가 인사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리는 자기가 인사를 제대로 했기를 바랐다. 만약 외할아버지가 직접 농부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차를 멈추려고 할지도 모른다. 아니다. 괜찮았다. 외할아버지는 닭 세 마리와 팔짝팔짝 뛰어노는 버터컵을 요령 있게 피하며 농장 마당에서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농부 아저씨는 외할아버지가 지나갈 때 에밀리가 차 문 발판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고맙습니다." 에밀리는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도 확실히 인사해두려고 한 번 더 외쳤다.

"고맙소." 외할아버지도 자동차 엔진소리보다 더 크게 인사했다.

"천만에요." 농부 아저씨도 인사했다. "다음번엔 말을 타시오!"

이를 어찌! 에밀리는 그 농부 아저씨가 시내에 자주 안 오는 사람이길 바랬다. 이번 소동이 피치포크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이고, 엄마가 다시는 에밀리가 드라이브를 못 가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정말이야, 에밀리." 다시 피치포크로 돌아가면서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늘 네가 대단한 아이라고 했잖니."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평화로웠지만, 에밀리는 가다가 소가 길 가운데에 있어서 차를 세워야 하면 어떡하나 하고 조금 불안했다. 에밀리가 이제껏 했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워야 한다면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었다. 메인스트리트에 들어서자, 에밀리가 말했다 "가게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돼요. 외할아버지. 바로 코앞인걸요." "알겠다, 에밀리." 외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있잖니, 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게 두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걸 너하고 나 사이에 비밀로 하는 게 좋겠구나."

"네, 그렇게 해요." 에밀리가 외할아버지도 이 일을 말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대답했다. 비밀을 갖는 것도 신났지만 에밀리와 외할아버지, 둘만의 비밀이 생긴다는 것은 더 신났다.

"위어-"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외치며 모델-T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조지 A. 바비 할아버지가 차를 고치는 법을 알려주게 되어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 에밀리는 스콧 여사한테서 받아 온 책 세 권과 매발톱꽃 한 다발을 들고 차에서 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드라이브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외할아버지."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대단한 아이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다. "내가 고맙구나, 에밀리. 네가 없었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할아버지도 진심이었다.

에밀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집까지 걸어갔다. 오늘 아침엔 달리기도, 폴짝폴짝 뛰기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뒷 베란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아주 한참을 나갔다 온 것 같았는데 아직도 아침이었다.

"어머나, 매발톱꽃이 정말 예쁘구나!" 탈수기 너머에서 엄마가 미소를 보냈다.

"드라이브는 재미있었니, 에밀리?"

"네, 엄마." 기운이 쭉 빠진 에밀리는 뒤 계단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엄마, 스콧 부인이 기부한 책을 읽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저런." 엄마는 탈수기에 넣을 수 있도록 오버올 작업복을 접었다.

"그리고 엄마." 에밀리가 말했다. "진짜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저한테 손을 흔들어줬어요!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는데요, 제가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저한테 손을 흔들어줬어요."

"어머나 에밀리, 이 동네에 비행기가 지나간 게 올해 두 번째로구나!" 엄마는 행굼 물이 들어있는 빨래통으로 아까 그 오버올 작업복을 집어넣었다. "생각해보렴, 서부를 개척한 선조들이 지붕달린 마차를 타고 이곳에 온 지 75년 밖에 안 됐는데, 이제 너희 외할아버지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야!" 엄마는 세탁기 안의 거품 물에서 또 다른 오버올 작업복을 끄집어냈다. "에밀리, 외할아버지 말이 맞아. 시대가 변하고 있고, 외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도 그 시대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 옳아."

에밀리는 몸을 구부려 무릎을 살펴보면서 외할아버지의 애마, 틴 리지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그 방법 밖에는 없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변색된 1달러짜리 은화

농장의 여름은 바쁜 계절이었다. 엄마와 에밀리는 야채와 과일로 통조림을 하기도 하고, 많고 많은 병에 담은 작업을 했다. 에밀리는 콩을 까서 껍질을 벗겼는데 콩 껍질을 어찌나 많이 벗겼던지 손바닥이 벗겨질 것 같았다. 엄마는 파이 체리까지도 통조림 할 짬을 냈고 에밀리는 단추걸이로 체리 꼭지를 따는 선수가 되었다.

병으로 꽉 찬 양철통은 하루 종일 스토브 위에서 증기를 뿜어내며 보글보글 끓었다. 그래도 에밀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찌는 듯 한 부엌에서 벗어나 농장에서 일하는 아빠에게 설탕을 넣지 않은 레모네이드를 갖다 주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청 셔츠를 입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땀을 줄줄 흘리며 일하던 아빠는 에밀리와 레모네이드를 정말 반가워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늘 수레국화를 한 다발 꺾어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 아빠가 어린 시절, 에밀리 나이쯤이었을 때, 형제들과 함께 오랜 시간동안 밭에서 수레국화를 뽑는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빠는 집안에 그 잡초같이 성가신 꽃이 꽃병에 꽂혀있는 것을 싫어했다. 야생화를 꺾어다 놓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에밀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여름은 정말 바쁜 계절이어서 에밀리는 엄마와 여성시민클럽 회원들이 도서관에 대한 일을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었다. 엄마가 뭐든지 한 번 시작하면 절대 잊는 법이 없다는 것은 알만도 했지만. 엄마는 매주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 대한 소식을 <피치포크 통신>에 실었다. 도서관에는 62권의 책이 기증됐다. (엄마는 그 62권이 좋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책을 기증하려는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도 책이 더 많이 필요했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필요했다. 책장이나 잠글 수 있는 문이 달린 찬장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책이나 선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거라면 어떤 계획도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바로 토요일 오후에 피치포크 주립은행 위층 커머셜 클럽룸에서 드디어 도서관이 개장하고, 개장식도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초대받았고 이

때 실버 티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람들은 한 번에 2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었다. 이 날은 피치포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다.

“엄마, 실버 티(silver tea)가 뭐예요?” 에밀리가 물었다. 실버 티라는 말이 금혼식(golden wedding)이라는 표현처럼 굉장히 특별하게 들렸다.

“돈을 모금하는 방법이란다.” 엄마가 대답했다. “티 테이블 위에 접시를 올려 놓는 거야. 도서관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그 위에 은화 한 닢을 두고 가는 거란다.”

은화 한 닢은 1달러일 수도, 10센트일 수도 있었다. 에밀리는 1달러짜리들이 모이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많이. 엄마가 피치포크에도 언젠가는 백과사전도 있고 개가식 선반이 책으로 가득 찬, 제대로 된 도서관이 생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토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 주에 역장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주립도서관에서 보낸 책 한 상자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께 포드 자동차로 책 상자를 실어 커머셜 클럽룸에 갖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나? 그 때가 토마토를 수확하는 시기여서 엄마는 토마토 통조림을 만드느라, 또 토마토 통조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다른 아주머니들에게 토마토를 파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시내에 나가 상자를 열어볼 짬이 없었다. 에밀리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주립도서관에서 에밀리가 그토록 읽어보고 싶었던, 수다쟁이 말들에 관한 책, 『블랙 뷰티』를 보냈는지 알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다. 그러다가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오리건 주의 수도, 살렘에 있는 주립도서관은 너무 크고, 위엄이 있어서 어린이 책은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마침내 토요일이 왔고, 엄마는 실버 티 행사 준비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녁 설거지를 싱크대에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다. 엄마는 제일 좋은 회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고, 에밀리는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까슬까슬한 노란색 오건디 원피스를 입었다. 이 원피스를 입으면 짙더미 위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간지러웠지만, 오늘날만큼은 간지러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실버 티 행사에서 제일 멋지게 보이고 싶었다. 엄마는 에밀리도 티 테이블 위의 접시에 동전을 놓을 수 있게 10센트를 손수건 끝에 달아주었다.

엄마와 에밀리가 가파른 계단을 올라 커머셜 클럽룸에 도착했을 때 여성시민 클럽 회원들은 실버 티 행사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미 티 테이블은 누군가의 집에서 가져온 제일 좋은 흰색 린넨 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분홍색 코스모스 꽃이 장식된 유리 상자가 놓여있었다. 접시 위에 쿠키와 꼬마 샌드위치 조각들도 놓여 있었다. 비록 그 방은 퀴퀴한 담배 냄새가 배어있고 재떨이와 솜이 빠져나온 가죽 의자들도 있었지만, 테이블만큼은 정말 근사해 보였다. 책장으로 사용하도록 누군가가 빌려준 낡은 중국식 찬장 너머 방 한 편에 주립도서관에서 보낸 책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엄마,” 에밀리가 속삭였다. “저 상자는 언제 열어 볼 거예요?”

“자, 에밀리.” 엄마가 근엄하게 대답했다. “내가 연설을 마치기 전에는 아무도 책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해. 그리고 또, 너는 도서관 사서의 딸이란 것도 기억하렴. 책은 딱 한 권만 고를 수 있어. 네가 책을 더 가져가면 옳지 않아 보일거야.”

“딱 한 권이요, 엄마?”

“딱 한 권.”

에밀리는 아무 것도 못 빌리는 것보다는 한 권이라도 빌릴 수 있는 게 어디야,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다른 책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었다. 단지 그 딱 한 권이 『블랙 뷰티』 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 좀 시킵시다.” 아처 부인이 말했다.

사람들이 클럽룸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방은 이내 외할머니가 만든 예쁜 모자들로 꽃이 피었다. 모자를 쓰지 않은 아주머니들도 더러 있기는 했다. 주말에 시내에서 장도 봐야하는 농장 아주머니들은 평범한 먼 드레스에 모자도 쓰지 않고 왔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 알린 트위첼이 악보 몇 개를 들고 나타났고, 왓티 톰슨 부인은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엄마, 알린 언니가 노래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요?” 에밀리가 속삭였다. 에밀리는 도서관 개장식이 열린 시작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알린이 한 번 노래를 시작하면 절대 멈추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다.

“쉬잇, 맞아.” 엄마가 대답했다.

그러던 중 아무도 각설탕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에밀리가

외할아버지네 가게로 가서 각설탕을 갖고 오는 심부름을 맡았다. 돌아왔을 때는 접이식 의자들이 모두 펼쳐져 있었고, 엄마가 책 상자를 열어 주립도서관에서 보낸 책들을 선반 위에 정리해 둔 후였다. 에밀리는 중국식 찬장 쪽으로 가까이 갔다.

엄마가 핸드백을 뒤적거리더니 오십 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다. “자, 에밀리.” 엄마가 속삭였다. “저기 빈 접시에 너한테 있는 십 센트짜리 동전하고 이걸 두고 오렴. 사람들이 접시 위에 은화가 있는 걸 보면 도서관에 돈을 기부하고 싶은 생각이 더 생길거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동전을 두고 오자, 와티 톰슨 부인이 피아노 앞에 앉았고 알린 트위첼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알린은 『오, 인생의 달콤한 미스터리여』와 『나는 영원히 비눗방울을 불거야』를 불렀다. 에밀리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알린이 세 번째 노래를 부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을 만큼만 박수를 치려고 애썼다. 짙은 색 머리카락 컬이 동그랗게 잘 말려있고, 하얀 물방울무늬가 있는 스위스풍의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알린은 정말 예뻐다.

“어쨌든, 저 원피스에 재네 엄마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보세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재가 응석받이가 될 수밖에요.” 그 말에 누군가가 속삭이며 대답했다. “재랑 결혼하는 애가 불쌍해서 어쩌나.”

에밀리는 저렇게 예쁜 머리를 하고 응석을 부려도 되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 없었다. 그 때 조지 톰슨 부인이 바이올린으로 유머레스크를 연주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톰슨 여사의 유머레스크 연주를 열 번도 넘게 들었지만, 바이올린 독주 덕분에 실버 티 행사가 더욱 우아해진 것 같았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지 톰슨 부인을 좋아했다. 아무도 톰슨 부인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계속 더 찾아왔고, 개중에는 도서관을 한 번 구경해보고 싶어서 왔다는 동네 아저씨들도 있었다. 아저씨들은 계속 남아서 꼬마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에 대한 농담을 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사람은, 오- 이럴 수가-, 풍 쿠오크 할아버지였다. 에밀리는 할아버지가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를 못 알아보길 바랐다. 할아버지가 볼 수 없도록 방 뒤쪽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엄마는 피치포크에도 언젠가는 개가식 선반에 책이 가득 찬 제대로 된 도서관이 생기를 바라고 (누가 기증한 낡은 중국식 찬장 말고, 하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백과사전이 있다는 게 마을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짙은 연설을 했다. 그때 에밀리는 자기 머리카락은 동그랗게 잘 말려있지도 않고,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이로 자랄 가망도 없었지만, 그래도 피치포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 사서의 딸이자, 읍장의 조카이며, 동네에서 외할아버지가 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아이였다. 게다가 엄마가 주립도서관에 보내는 편지에 침을 발라 우표를 붙인 아이였다.

엄마의 연설이 끝났고, 오리건 주의 피치포크 마을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차가 대접되었고, 에밀리는 책들을 살짝살짝 봐야할지, 은화가 놓이는 접시를 지켜봐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엄마가 에밀리에게 조그만 쟁반 위에 크림과 설탕을 내어가라고 시켰다.

“준이 하면 안돼요?” 에밀리가 사람들 속에서 사촌을 알아보고 속삭였다.

“준은 크림을 쏟을지도 몰라.” 엄마가 말했다.

“주립도서관에서 『블랙 뷰티』를 보내왔어요?” 에밀리는 설탕통과 크림 주전자 놓인 쟁반을 들며 속삭였다.

“이번엔 없더구나. 자, 걱정할 거 없어. 책들이 다 나갈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책 한 권을 남겨둘게.” 엄마는 도서관 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리로 갔다.

크림 주전자를 담당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던 에밀리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크림이나 설탕 필요하세요?” 에밀리는 찻잔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물어보았다.

“어머나, 에밀리, 오늘 근사하구나,”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예쁘구나가 아니고 근사하구나라고. “그래, 각설탕 하나 주렴.”

에밀리는 결눈질로 사촌 준을 보았다. 준의 속바지 한쪽 고무줄이 느슨해져 빠져나와있었다. 그 애는 티 테이블에 기대서 쿠키를 먹으며 은화가 놓이는 접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짹. 짹. 10센트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1달러를 떨어뜨리는 땡그랑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썩그랑. 이번에는 25센트짜리 소리 같았다. 짹. 썩그랑. 10센트 한 개와 25센트 한 개. 작은 동전 한 닢도 모두

도움이 되었다.

그 때 조지 톰슨 부인이 풍 쿠오크 할아버지에게 차를 한 잔 드렸다.

아...이런..., 에밀리는 생각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가서 크림이나 설탕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했다. 에밀리는 우물쭈물했고 그래도 혹시 할아버지가 플린스에 대한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하고 기대도 했다.

“에밀리.” 톰슨 부인이 말했다. “쿠오크씨께 크림이나 설탕이 필요한지 여쭙보는 게 좋겠구나.” 에밀리는 꼼짝없이 쿠오크 할아버지에게 가서 설탕이나 크림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크림이나 설탕 필요하세요?”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물어보았다.

“아니, 괜찮아요.”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아가씨가 오늘은 플린스를 집에 두고 왔어요?”

“네, 그랬어요.” 에밀리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의 얼굴에 핀 미소를 보기보다는 주변을 살피며 웅얼거렸다.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랬다. 할아버지가 크림이나 설탕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에밀리는 서둘러서 차를 마시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 크림이 출렁거리며 밖으로 튀었다.

준이 쿠키를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았다. 책을 훑어보려고 중국식 찬장 쪽을 서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는 쟁반을 든 채로 살금살금 걸어서 재떨이까지 간 다음 도서관 쪽으로 갔다. 책을 빌리는 일에서는 준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아, 설탕과 크림을 들고 있는 에밀리가 저기 있었네.”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찾아다니던 바로 그 아이로구나.”

아주머니가 각설탕 세 개를 집어가는 동안 에밀리는 예의바르게 쟁반을 들고 있었다.

“어머나, 그러고 보니 노란색 오건디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아주 근사하구나.” 아주머니가 말했다. “조그마한 미나리아재비 같아.”

에밀리는 조그마한 미나리아재비가 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오건디 원피스 때문에 목과 팔이 따끔거렸고 짜증이 났다. 그 때, 땡그랑. 누군가가 테이블 위의 동전 접시에 엄청난 거금 1달러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쯡긋 세우고 있던 에밀리의 귀에 들어왔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바로 풍 쿠오크 할아버지였

다! 티 테이블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은 놀라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영감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계단 쪽으로 나갔다. 깜짝 놀란 에밀리의 두 눈은 영감님의 뒷모습을 쫓았다. 거금 1달러짜리 은화라니!

그 날 오후 땡그랑 소리는 두 번 더 울렸다. 아래층 은행장님인 아쳐씨가 1달러를 냈고, 가게를 보던 외할머니가 차 한 잔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짬을 내어 와서 1달러를 두고 갔다. 거금 1달러짜리 은화 세 닢, 그래도 그날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던 은화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낸 것이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좋은 분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영어를 잘 읽지도 못하시는 데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이 계단을 다 올라오셔서 도서관에 1달러를 주고 가신 거잖아요. 과자가게를 팔고 나니 외로운 게 아닐까요?” “중국 사람들이 학구열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세상에나, 그거 보셨어요? 두고 가신 그 은화가 변색이 됐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은화인가 봐요. 맨 처음에 번 1달러를 아직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젠 아니죠, 방금 도서관에 주고 가셨으니까요.” 이 마지막 말에 사람들의 훈훈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이제는 크림과 설탕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보이자 에밀리는 쟁반을 티 테이블에 올려놓고 도서관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엄마, 책 남겨뒀어요?” 에밀리가 물었다.

“아직은 고를 수 있을 만큼 남아있단다.” 엄마가 대답했다.

정말 그랬다! 생각해보라, 바로 여기 오리건 주 피치포크에 진짜 도서관 책이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쌍둥이들』, 『체미마 퍼들덕의 이야기』-책이 조그맣기도 하지! 에밀리는 이렇게 작은 책도 있는 줄 몰랐다. 『곰슬머리 암탉』, 『영국 동화 모음집』. 하지만 『블랙 뷰티』는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다음에도 기회는 있으니까. 에밀리는 『영국 동화 모음집』을 골랐다. 왜냐하면 그 책이 제일 두꺼웠다. 엄마는 책 안에 있는 붙어있는 봉투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서 에밀리의 이름을 썼다. 에밀리로 이제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빌린 것이었다. 포틀랜드에 있는 사촌 유리엘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렸다.

에밀리가 미끄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단 쪽을 보게 되었다. 에밀리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낯선 남자가 문간

에 서 있었다. 그 애는 색은 바랬지만 깨끗한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애의 아빠가 날이 무딘 가위로 잘라준 것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애는 머뭇거리다가 아주머니들의 모자와 티 테이블을 보더니 뒤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들어와 보렴.” 엄마가 미소를 띠며 말을 걸었다.

그 애는 누군가가 반겨준 것에 기뻐했다. 그리고는 수줍어하며 엄마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서 물었다. “아주머니, 제 가족들이 읽을 책 몇 권을 빌려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그 애를 향해 미소를 보냈다. “피치포크에서는 본적이 없는 것 같구나. 시골에 사니?”

“아니요, 아주머니. 저는 그린베일에 살아요.” 그 애가 대답했다. “저희 가족들이 <피치포크 통신>에서 도서관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책을 좀 빌려 갈 수 있을까 하고 기차길을 따라 걸어왔어요.”

“어머나, 못해도 6킬로미터는 될 텐데.”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 또 6킬로미터를 되돌아가야 하잖니.”

그 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네, 아주머니.”

“아무렴, 가족들이 읽을 책을 빌려가도 되고 말고.” 엄마가 말했다. 이 남자애는 책을 읽고 싶은 것이었다. 엄마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애가 어디에 사는지는 상관없었다.

에밀리는 그 애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게 신중히 책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야생 동물에 관한 책. 이건 분명 자기가 읽을 책이다. 동생이 읽을 『제미마 퍼들덕의 이야기』. 그 애 엄마와 아빠가 읽을 어른들이 읽을 만한 책 두 권. 엄마가 책 속의 작은 카드에 그 애의 이름을 모두 적자, 그 애는 바지 영덩이 주머니에서 하얀색의 깨끗한 밀가루 포대자루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책들을 담아 넣었다. “조심히 잘 다루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재밌게 읽으렴.”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그 애가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생각해 봐, 저 아이는 책을 빌리려고 기차길을 따라서 12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걷는 거야.” 라고 말한 엄마는 기쁘면서도 슬퍼보였다.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갔고, 마지막엔 에밀리와 여성시민클럽 회원들만 남았다. 아주머니들은 엄마가 책상으로 썼던 테이블에 모여서 엄마가 사람들이 도서관에 주고 간 은화를 세는 걸 보고 있었다. 16달러 20센트. 에밀리는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실망스러워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도서관에 돈을 줄만큼 넉넉하지 않은가 봐요.”

여성시민클럽의 아주머니들은 낙담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휘스트 파티¹⁰⁾를 열어보자고 했다. 어찌됐든 이들은 진짜 도서관을 만들어냈다. 오늘 오후에 사람들이 빌려간 책들을 생각해 보라.

먼 시골지역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쪽지를 보내서 유쾌한 책 한 권을 빌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숲에 대한 책이 있냐고 물어보던 한 남자애, 오리건 주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싶었던 한 아저씨... 이만 하면 피치포크의 사람들이 도서관을 원한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 것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밀가루 포대자루를 가져왔던 남자애도요.” 에밀리는 엄마에게 속삭였다. “그 애도 잊지 말아요.”

“특히 밀가루 포대자루를 가져왔던 남자애도요.”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도서관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나, 에밀리는 생각했다. 난 그래도 『블랙 뷰티』가 있었으면 좋겠어. 에밀리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두고 간 검게 변색된 1달러짜리 은화를 집어 들었다. “엄마, 이 동전이 정말 할아버지가 처음 번 1달러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웃었다. “오, 에밀리.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 잘 알잖니. 엄마는 그게 첫 번째 1달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영감님은 그 동안 쭉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거든.”

에밀리는 깜짝 놀랐다. 이제껏 영감님도 피트 진티 아저씨처럼 독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왜 피치포크에 사시는 거예요?” 에밀리는 물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오리건에 오셨어.” 엄마는 중국식 찬장에 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도 찬장 문을 잠그며 대답해주었다. “예전에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많

10)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파티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참석해서 다과와 게임 등 오락을 즐겼다.

왔거든. 그러다가 영감님은 피치포크로 오게 됐고, 그 후로 계속 살고 계신거지. 그럴 만도 해.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니, 비록 개척자들은 여기를 피치포크라고 이름 지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라! 학교 독서수업에서 읽었던 디 워팅턴¹¹⁾처럼. “엄마는 영감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에밀리는 확신이 들지 않아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피치포크는 성공을 찾기에 알맞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다지가 쏟아지는 땅도, 근엄한 시장님이 있을 만큼 큰 도시도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시골에, 우체국장인 에이버리 삼촌이 읍장도 겸하는 동네였다.

“잘 모르겠구나.” 엄마는 자기가 읽으려고 골라둔 책과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 자기만의 조그마한 집도 있고 얼마 전에 과자가게를 팔기 전까지는 작지만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운영했잖니. 어쨌든 그 오랜 시간동안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부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에밀리는 빌린 책을 품에 안고 엄마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결국 엄마 말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말로 성공이란 건 사람마다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에밀리에게 성공이라는 건 노다지가 나는 땅도, 중국에 보낼 돈도 아니었다. 피치포크에 사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었다. 개가식 선반이 갖춰져 있고 백과사전도 있고 또, 『블랙뷰티』를 꽂아 둘 자리가 있는 그런 도서관.

11) 가난한 시골 소년이 돈을 벌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어린이 동화 주인공의 이름

6.

무서운 밤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에밀리의 생활은 달라졌다. 에밀리는 틈 날 때마다 영국 동화 모음집을 읽었다. 손전등을 위층에 몰래 가지고 올라가 이불 밑에서 책을 읽다가 엄마한테 뺏기기까지 했다. 다행히 보름달이 뜬 밤이라서, 에밀리는 엄마가 책을 마저 읽으러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달빛 아래에서 읽던 이야기를 끝까지 읽었다. 잘생긴 청년으로 변신한 비둘기, 우물물을 체에 길어 와야 했던 소녀, 계단식 문을 넘지 못하는 돼지를 키우는 할머니- 책에 적힌 이야기들 모두 좋았다. 그 중에서도 거인과 괴물 이야기들과 한쪽 팔이 금으로 된 아가씨가 유명이 된 이야기 등의 무서운 이야기가 특히 재미있었다. 정말 섬뜩한 이야기였다. 학교 독서시간에 읽은 책 중에는 무섭고 으스스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

엄마가 읽던 책은 시 모음집이었고, 엄마도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 이제 일을 할 때면 노래를 부르는 대신 시를 암송했다. 엄마가 암송한 시는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기억하네, 나는 기억하네
나 태어난 그 집을,
아침이 되면 햇살이
살짝 엿보고 가던 작은 창문을.”

엄마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부의 고향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에밀리가 좋아하는 시는 따로 있었다.

“그 옛날 어느 황량한 밤, 무력하고 지친 나,
기이하고 기묘한 태곳적 민담집들을 생각하다,”

엄마는 감자를 튀기며 으스스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꾸벅꾸벅 졸음에 빠졌을 때 불현듯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푹푹 가볍게 방문 두드리는 소리,”

엄마가 그런 목소리로 시를 읊으면 에밀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들어본 이야기 중에 제일 무서운 내용인데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근사하게 느껴졌다.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 라고 자꾸 말하는, 또는 옛말로, 가로는 까마귀에 대한 시였다. 여러 개의 연이 “까마귀가 말했노라,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로 끝났다.

“그 무서운 시를 한 번 더 읊어주세요, 엄마.” 에밀리의 부탁에 엄마가 읊어주는 시를 들으면 오싹거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아, 분명 음산한 12월이었어.
죽어가는 불씨가 바닥 위에 저마다의 유령을 자아냈지.”

에밀리는 무서운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으스스한 얘기가 재미있었다. 아마도 그래서 에밀리는 준이 하룻밤을 자러 올 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밤을 보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다. 아니면 그날이 유독 더워서 웬지 모르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을 수도 있다. 에밀리는 잘 시간이 되면 준과 위층에 자러 올라가서 마녀나 유령 이야기 같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재밌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즉, 준이 만약 협조적으로 나오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준이 어떤 아이인지 잘 아는 에밀리는 생각대로 잘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 플룻킨 선생님은 음악시간에 노래를 가르쳐줄 때 각각의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서 또렷하게 들리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그대들의 충을 울려라.” 에밀리와 다른 아이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입술도 정확하게 움직여서 각 단어마다 또렷하게 발음했다. 준은 달랐다. 준은 신이 나서 크게 노래를 불렀다. “크태트레 충을 울려라.” 준은 이런 아이였다. “크태트레 충을 울려라.”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에이버리 삼촌과 베씨 숙모가 휘스트 파티에 가는 길에 에밀리네 집에 준을 데려다 주고 갔다. 준은 돌돌 말은 잠옷과 칫솔을 챙겨왔다. “안녕, 에밀리.” 에밀리가 현관문을 열자 준이 인사했다. 준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른 집에서 자게 되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알 수 있었다. 좋은 신호였다.

그리고 나서 에밀리는 아빠가 시내에 밴드 연습을 하러 가는 날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잘된 일이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집에 엄마하고만 있으면 왠지 무서웠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오붓하기도 했다. 가끔은 엄마와 단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다. 물론 오늘밤에는 준도 함께였지만.

아빠는 시내에서 악단 멤버들, 보이즈와 만나기 전에 바리톤 호른 독주곡 ‘세일러, 비웨어’를 몇 번 연습해보고 나갔다. 아빠가 속한 피치포크 밴드의 악단원들은 보이즈라고 불렸다. 마을사람들은 오리건 주 축제나 가축박람회에서 연주를 하는 이 밴드가 피치포크 마을이 지도에 표시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에밀리는 피치포크가 이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지도책을 봤더니 오리건 주 지도 위에 아주 조그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빠가 나간 후 엄마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기 시작했고, 에밀리와 준은 몽고메리 워드에서 나온 카탈로그를 보며 만약 돈이 있으면 무엇을 살지 골라보았다. 늘 그랬듯 에밀리는 회전식 달걀거품기 그림을 보았다. 순식간에 휘핑크림을 만들 수 있는 도구였다. 그러다가 에밀리와 준은 더 이상 카탈로그를 같이 볼 수 없었다. 에밀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인형들을 보고 싶어 했고, 준은 다양한 자동차용 담요를 보고 싶어 했다, 그 중 여러 개는 진짜 인디언 담요 같았다. 결국 에밀리가 준에게 카탈로그를 양보했다. 준이 손님이었으니까. 대신 벽지 샘플 책을 보면서 집을 새로 꾸미는 상상을 하며 벽지를 골랐다. 먼저, 아래층 욕실에는 노란 장미무늬 벽지가 좋을 것 같았다. 노란색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었다. 엄마는 항상 노란색이 정말 화사하다고 했다.

뒷 베란다 밖에서 플린스가 칭얼대며 방충망을 긁어댔다.

응접실에 있던 엄마가 식당으로 가서 “왜 그래, 플린스?”하고 물었다.

플린스는 킁킁거리며 앞발로 방충문을 열려고 했다.

유령, 에밀리는 생각했다. 플린스는 유령이 무서웠던 것이다.

“자, 플린스, 저기로 가서 평소처럼 장작창고에서 자려무나,” 엄마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개들은 돼지나 소와 마찬가지로 집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동물들은 밖에서 지내는 게 당연했다.

“플린스가 겁을 먹은 것 같은 소리를 내요, 그렇죠?” 엄마가 다시 의자에 앉았을 때 에밀리가 말했다.

“자, 에밀리.” 엄마가 말했다. “네 상상의 고삐를 꼭 잡으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상상의 고삐를 풀어 같이 달아나는 건 재미있었다. 마치 언젠가 진짜 말이 전속력으로 도망가려 했을 때 엄마의 일상이 잠깐이나마 즐거웠던 것처럼 상상이 질주하게 두면 삶이 흥미로워졌다.

에밀리는 아껴두었던 간식을 꺼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바나나! 외할아버지네 가게 창문에 바나나 한 송이가 걸려있었는데, 준이 에밀리네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얘기를 듣고서 외할아버지가 바나나 두 개를 간식으로 먹으라고 줬던 것이다. 에밀리가 바나나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자, 플린스가 또 다시 킁킁거리며 방충문을 긁어댔다.

두 소녀는 각자 바나나 껍질을 까서 먹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최대한 천천히 야금야금 먹으며 그 진귀한 과일을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입안에 물고 있었다. 준은 한 입 크게 베어 먹었다. “크게 베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 준이 설명했다.

“그러면 오래 먹을 수 없잖아.” 에밀리가 말했다.

“그래도 먹는 동안에는 더 맛있잖아.” 준이 대꾸했다.

“자, 에밀리,” 엄마가 말했다.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바나나를 먹기를 바랄 수는 없단다.”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에밀리는 단 한 번만이라도 준과 뭔가를 똑같이 해보고 싶었다. 만약 유리엘이 여기에 있었다면, 왜 바나나를 가능한 한 오래오래 먹어야 하는지 바로 이해했을 것 같았다. 물론 포틀랜드사는 유리엘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만큼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겠지만.

플린스가 부엌 방충문을 계속 긁어댔다. “플린스, 그만해!” 엄마가 명령했다. 녀석은 굽기를 멈추고 킁킁대기 시작했다.

“플린스는 겁쟁이 고양이네.” 준이 말했다.

“겁쟁이 개라는 말이지?” 에밀리가 말했고, 그 둘은 킁킁거렸다.

바나나를 다 먹고 나서 에밀리는 엄마를 향해 돌아보았다. “그 시 한 번 더 읊어주세요. 그 무서운 시.”

엄마는 읽던 책을 덮었다. “딱 한 구절만이야,” 엄마는 말하고 시를 읊어주었다. “그 옛날 어느 황량한 밤” 그 때 라일락 덩불이 마치 집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듯이 창문을 긁기 시작했고, 커튼은 유령처럼 펄럭거렸다. 엄마가 시의 한 구절을 다 읊고 나서 힘차게 말했다. “잘 시간이야.”

“한 구절만 더요,” 에밀리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어서 가.” 엄마는 말했다.

두 소녀는 부엌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고 이도 닦았다. 그리고 에밀리는 손님이 있는 날이니까 특별히 손전등을 비추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혼자서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 어둡고 긴 계단을 올라가서 어두운 방안으로 들어갔다. 에밀리네 집은 어두웠다. 모든 방에는 전기선으로 연결된 전등이 천장에 하나씩만 달려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장은 높았고, 바틀렛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엄마만 빼면 바틀렛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키가 컸기 때문에 전등이 높이가 달려있어서 에밀리가 의자 위에 올라가야만 전등에 닿을 수 있었다. 엄마는 까치발을 해야 겨우 닿았다. 키가 큰 바틀렛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거치적거리는 높이에 전등이 달려있는 걸 원하지 않았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침실로 들어간 두 소녀는 침대에 뛰어 들어가 켈트 담요를 퍽뿔까지 당겨서 덮었다. 이제는 집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손전등으로 그 큰 방의 여기저기를 비쳤다. 불빛이 약해서 그 방에 하나뿐인 가구, 하얀 철제 기둥 침대가 유령처럼 보였다. 밤에 보니 커튼 대신 덧문이 달려있는 창문조차도 길쭉한 눈처럼 보였다. “무섭지 않니?” 에밀리가 속삭였다. “그리고 플린스가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아마 바나나가 먹고 싶었겠지.” 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개는 바나나 안 먹어.” 에밀리는 말했다. 그리고 밤을 함께 보내기엔 유리엘이 훨씬 더 좋은 짝꿍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리엘이라면 유령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침대 가운데에 틀어박혀 있는 것도 재미있어 했을 것이다. 준의 상

상은 절대 고삐가 풀리지 않았다. 그 애의 상상은 마치...마치 농사용 말처럼 고분고분 매어있었다.

그 낡은 집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다. “유령이 지붕 위를 걸어가는 소리가 분명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에밀리는 상대가 준이기는 했어도 재밌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내보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건 온도가 바뀌니까 나는 소리야.” 준이 말했다. “너도 너희 집이 온도가 떨어질 때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걸 잘 알잖아.”

어쩌면 에밀리는 현실적인 준이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다. 으스스한 분위기라고는 전혀 내지 못하는 준. 그래도 다시 한 번 시도했다. 엄마가 위층 침실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여전히 속삭이며 말했다. “이 집에 방이 13개라는 거 알고 있니?”

“음.” 준이 말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네가 대가족이었잖아. 방이 많이 필요했지.”

오오, 정말로, 준, 에밀리는 심술이 났다. 넌 정말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 준이 한 말은 다 맞는 얘기였다. 하지만 잠깐만이라도 방이 13개인 집 지붕위에 유령이 걸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아빠가 밴드 연주를 하러 시내에 나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재미있는 일이었다. 서부를 개척한 선조들이 집안에, 어쩌면 둥근 지붕 안에, 유령 하나 둘쯤은 남겨두고 갔다고 생각해보면 딱 재미있을 만큼 무서울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분들은 밭을 개간하고 오리건 주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빴던 나머지, 엄마가 이따금씩 부르는 어떤 슬픈 노래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유령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했나보다. 돌아가신 집안 어른들 중에는 실연을 겪은 처녀도, 결투를 하다가 죽은 연인도 없었다. 물론 오리건 주까지 오는 여정의 마지막쯤에는 꽤 배가 고팠지만, 그렇다고 아프거나 죽은 사람은 없었다. 듣자하니, 오리건에 도착한 후에는 꽤 푸짐한 식사를 했고, 바로 나무를 베고 나무 그루터기를 뽑고 곡물을 심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집에 방이 아무리 13개가 있다고 해도 유령이 있을 리가 없었다.

에밀리는 뭔가 으스스한 걸 생각해 보려고 애썼지만,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초원에 텅굴던 소 뼈다귀밖에 없었고, 그건 무서워할만 한 게 전혀 아니었다. 그 소는 실연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니었다. 포장용 철사를 먹는 바람에 아빠가 충으

로 썩어서 죽은 소였다. 녀석은 젖이 많이 나오던 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유지방이 풍부한 우유를 만들어내던 소가 포장용 철사를 먹는 바람에 죽어야 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던 그때, 플린스가 울부짖었다. 아주 우울하고 섬뜩한, 긴 울음 소리였는데, 소리가 낮게 시작해서 으스스할 정도로 아주 높아졌다.

두 소녀는 모두 숨을 죽였다. “준.” 에밀리가 속삭였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개가 저렇게 우는 건 누군가가 죽는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준의 반응이 현실적이지는 않았다. “아마 달을 향해 우는 걸 거야.”

“달이 안 보이잖아.” 에밀리는 그 날 저녁 구름이 하늘을 가린 적이 있었던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는 말했다. “오늘은 구름이 끼고 어두운 밤이야.”

두 소녀는 침대 가운데에 바짝 붙어 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험거운 덧문이 부딪치는 소리가 어디선가에서 계속 들려왔다. 에밀리는 엄마가 읽어준 으스스한 시에서 “똑똑 가볍게 방문 두드리는 소리”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에밀리의 심장이 교유기¹²⁾처럼 콩닥거렸다.

플린스의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울음소리에 두 소녀는 겁에 질려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방바닥에서 ‘딱’소리가 나자 둘은 동시에 깜짝 놀랐다. 그 둘은 어색하게 킁킁 거렸고 긴장한 채로 가만히 누워있었다. 플린스의 울음소리가 잠잠해지자 그 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플린스가 울부짖는 게 누군가가 죽을 거라는 뜻일 리가 없어.” 준이 씩씩하게 말했다. “피치포크에는 아픈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그 때, 번쩍하고 번개가 쳤다. 그 순간 방은 밝은 대낮처럼 환해졌고 하얀 철제 기동침대가 유령침대처럼 보였다. 두 소녀는 우르르 쿵 하고 천둥이 온 세상을 뒤흔들듯이 몰아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내...내가 보기엔 플린스가 폭풍이 오는 걸 알고 온 것 같아.” 플린스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안심인 에밀리가 말했다.

“으..으응.” 준도 같은 생각이었다. “나 잠깐 좀 무서울 뻔 했어.”

번개가 한 번 더 내리치자 방이 대낮처럼 환해졌고, 두 소녀는 밤을 뒤흔들어 줄 천둥이 칠 때를 기다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준이 숫자를 션다. “-

12) 버터를 만드는 기계

스물넷, 스물다섯.” 천둥이 쳤다. “번개가 25킬로미터 거리에서 쳤어. 번쩍한 다음에 천둥이 칠 때까지 숫자를 세면 알 수 있거든.”

그 말에 안심이 되었다. 에밀리는 준에게 의지하며 바짝 붙었다. 24킬로미터. 20킬로미터. 폭풍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다란 빗방울이 조약돌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지붕에 떨어지다가, 천둥이 점점 다가오면서 빗물이 북소리를 내며 양철 지붕위로 주룩주룩 떨어졌다. 에밀리는 지붕에 떨어지는 익숙한 빗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침대에서 졸면서 준의 상상이 농사용 말 같기는 해도, 준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다. 준은 기운도 세고 학교에서 줄넘기와 구슬치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였다.

에밀리는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확실하지는 않았다. 천둥소리가 계속 들렸던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조금 후에 그날 밤 들어서 처음 듣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주 가까운 곳, 거의 뒷 베란다 바로 아래에서 나는 것 같은, 철경철경하고 부딪치는 소리였다. 이번에 에밀리의 상상은 고삐가 풀리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준, 저게 무슨 소리야?” 바람소리와 빗소리 때문에 더 크게 말했다.

준도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쿵. 탕. 파광. 너무나 이상했다. 개 울음소리, 천둥, 비-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이건... 에밀리는 침대를 박차고 나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에 세차게 휘날리는 마로니에 나뭇가지 사이로 유령 같은 하얀 형체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유령 같은 형체가 정말 있었다. 에밀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준!” 에밀리가 외쳤다. “봐봐!”

준이 에밀리 옆으로 와서 창문턱에 기댔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아!” 준은 에밀리의 팔을 꼭 잡았다. “유령이야. 가까이 오고 있어!”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에밀리는 겁싸게 손전등을 쥐고 차가운 바닥을 뛰어서 엄마의 침실로 갔다.

“같이 가!” 준이 애타게 말했다.

처음으로 두 사촌자매가 뭔가에 대해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

“엄마!” 에밀리는 손전등을 침대에 비추며 엄마를 크게 불렀다. 침대가 비어있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황. 탕. 파광. 뒷 베란다에서 뭔가가 두드리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황소 골리앗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에밀리는 유령이 골리앗을 쫓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엄마가 없어!”

“유령이 잡아갔나봐.” 준이 벌벌 떨면서 말했다.

“네 상상이 고삐가 풀렸어.” 에밀리가 준에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어디로 간 걸까? 마당에 있는 그...그제 엄마를 데리고 가버린 걸까? 에밀리는 상상을 위-위-하고 세우려 했지만, 세울 수 없었다. 아빠가 밴드 연습하러 가는 날만 아니었더라면...

“부엌에 계실지도 몰라.” 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래층에 가보자.”

두 소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어두운 복도에 비치는 손전등의 가느다란 불빛이 너무나 약해보였다. 순간 찬바람이 휘몰아쳐 잠옷이 펄럭였다. 이걸 엄마가 저녁에 닫아 둔 뒷문이 지금은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다. 에밀리는 “엄마!”하고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외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부엌에는 찬바람이 더 세게 불고 있었다. 두 소녀는 벌벌 떨며 서로를 꼭 껴안았다.

“뒷문이 바람에 날려서 열린 게 분명해.” 준이 말했다. “우리가 닫아야 할 것 같아. 혹시라도 그제...”

“맞아.” 에밀리가 바로 맞장구를 쳤다. “네가 닫아.”

“여긴 너네 집이잖아.” 준이 말했다.

둘 중 누구도 뒷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다. “같이 닫자.” 에밀리가 말했고, 둘은 겁에 질린 채 문으로 다가갔다. 에밀리가 손전등을 비추자 방충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너털너털해진 것이 보였다. “이것 봐!” 에밀리가 소리를 치르며 허둥지둥 문을 광하고 닫은 다음 등으로 막아섰다. “부...분명 유령이 한 짓 일거야.”

“마...맞아.” 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유...유령이라면 방충망에 구멍을 낼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령이라면 문을 그냥 지나갔을 거야.”

“유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간 거였으면 좋겠다.” 준이 말했다. “제발, 우리 아무데라도 불을 좀 켜보자.”

쾅. 탕. 파광.

“나 너무 무서워.” 에밀리가 말했다. 그러면서도 식당과 부엌을 손전등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저길 봐!” 준이 외쳤다.

에밀리는 고개를 돌려 보았고, 바로 거기, 부엌 식탁 아래에 웅크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플린스였다. 안도감에 눈물이 날 뻔 했다. “플린스가 방충망을 뚫은 게 분명해. 너무 겁이 나서 그대로 뚫고 들어온 거지.”

“그런가보다. 그런데 뭇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은 걸까?” 준은 궁금해 했다.

바닥에 납작 웅크린 녀석은 에밀리가 몸을 숙여 토닥거리주자 킁킁댔다. 플린스는 기분이 좋아진 듯이 에밀리의 손을 핏고 에밀리도 정말 실제로 살아있는 게가 핏해주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엄마...엄마는 어디 있을까? 밖으로 나간 걸까? 이런 밤에?

유령이거나 말거나, 에밀리는 용감하게 뒷문 쪽으로 다시 가보았고, 문을 여는 순간 어딘가에서 황소 골리앗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골리앗처럼 그렇게 크고 사납게 생긴 것이 울고 있다는 것이 불길했다. 에밀리는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바람과 빗줄기 때문에 흐릿한 손전등 불빛이 휘날리는 마로니에 나무에 악몽 같은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 때 에밀리는 유령 같은 형체를 언뜻 보았다. 손에 쇠스랑을 들고 있는 형체. “준!” 에밀리는 소리를 질렀다. 손전등도 떨어트렸다. “진짜 유령이야! 쇠스랑을 든 유령이야!” 결국엔 서부를 개척한 선조들 중에 유령이 된 분이 있었나보다.

준은 에밀리에게 딱 달라붙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야?” 겁에 질린 준이 물었다.

쾅. 탕. 파광.

유령이 소리를 질렀다. “이리 나와!” 그 유령의 목소리..아니, 아빠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리긴 했지만, 겁에 질린 두 소녀의 귀에 들려왔다. 에밀리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이제는 살았다. 아빠가

밴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가 집에 왔으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엄마도 안전한 것이었다. 이제 모두 안전했다.

꽝. 탕. 파꽝.

또 한 번의 번개가 무시무시하게 날쌌던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세상을 번쩍하고 비췄다. 그 유령은 아빠였다. 하얀 셔츠를 입은 아빠! 아빠는 쇠스랑을 들고 뿔에 엄마의 양철 빨래통을 뒤집어 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었다.

꽝. 탕. 파꽝. 에밀리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되었다. 골리앗이 뒤집어쓴 빨래통을 뿔에서 빼려고 울타리에 부딪치는 소리였다. 이젠 이 소리가 전혀 무섭지 않았다. “이건 그냥 골리앗이 내는 소리야.” 에밀리는 말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당으로 나왔나봐.”

추위에 떨며 문간에 서 있던 둘은 무슨 일이 있는 지 볼 수 있게 번개가 한번 더 쳤으면 하고 바랐다.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씩 마당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아빠가 골리앗을 다시 헛간으로 들여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두 소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고, 체온을 높이려고 팔을 비볐다. 곧 에밀리는 부엌 의자 위로 올라가서 불을 켜다. 전구 불빛 하나로 세상이 얼마나 달라보이는지! 유령처럼 보이던 것들은 탁자와 의자였다. 플린스는 마치 집안에 있는 걸 허락받은 것 마냥 두 앞발에 코를 묻고 즐기고 있었다. 놀랍게도 선반에 놓인 알람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1시라니! 에밀리는 한 번도 이 시간까지 깨어있어 본적이 없었다. 지난겨울에 엄마 아빠와 메소닉홀 행사에 참석했을 때조차도. “생각해봐, 준.” 에밀리가 말했다. “우린 밤을 샌 거야, 지금은 아침이니까.”

“새벽 5시까지야 밤이라고 봐야 될 거 같은데.” 전등불이 켜지자 준은 다시 예전의 씩씩한 준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우린 분명히 잠들었었어.”

“난 분명히 한숨도 안 잤어.” 밤을 꼬박 샐다고 믿고 싶었던 에밀리가 말했다. “나는 유령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야.”

“세상에 유령이란 건 없어.” 준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아까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었다.

엄마가 뒷 베란다에서 뛰어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맨발에 고무장화를 신고 잠옷 위에 낀 코트를 입고 있

었다. 윤기 나는 엄마의 검은색 머리카락은 한 갈래로 떨어져 어깨에서 달랑거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에밀리가 물었다.

“쇠스랑을 들고 장작창고 문에 서 있었어. 아빠한테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불을 피우기 위해 난로에다 종이를 구겨 넣고 불쏘시개로 쭉시며 대답했다. “아빠가 결국엔 골리앗을 헛간에 매어놨고, 이제 빨에서 빨래통을 빼내고 있어. 아까운 내 빨래통...” 엄마가 성냥불을 종이에 갖다 대자 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렇게 엄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쇠스랑으로 골리앗을 공격할 태세로 서있었던 것이다. 그까짓 유령이 엄마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엄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엄마는 너무나도 용감했다.

“집에선 이렇게 신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준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가끔씩 고양이들이 싸우는 정도야.”

“애들아, 이제 자러 가야지.” 엄마가 재촉했다. “어서 가! 지금 바로!”

그 날 밤, 두 사촌자매는 위층에 다시 올라가서 침대로 파고 들어갔다. 이제 집에 아빠가 있으니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난 여기 와서 자는 게 좋아.” 준이 잠이 들며 말했다.

“으-으음.” 에밀리는 너무나 피곤해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결국, 에밀리가 원하던 대로 으스스한 밤을 보냈다. 어쨌면 너무 으스스한 밤이었다. 하지만 준에게도 여차하면 고삐가 풀리는 하는 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다. 에밀리는 꿈지락거리며 준에게 다가갔고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에밀리와 가볍고 바삭바삭한 파이크리스트

에밀리는 포목점에서 할머니가 옷감을 재단하는 것을 구경하는 게 좋았다. 그 해는 어려운 시기였고 옷감을 사러 온 아주머니들은 필요한 옷감에서 1인치도 더 사려고 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옷감을 자르기 전에 드레스 패턴을 꺼내서 옷감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가 옷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동안, 가게에 온 아주머니들은 모두 모여서 할머니가 재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에밀리는 계산대에 기대어 지켜보았다. 듣기도 했다. 그리고 온갖 재밌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가령, 알린 트위첼은 샌드위치 빵의 가장자리를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건 그 애 엄마도 빵의 가장자리를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직접 알린의 샌드위치 가장자리를 잘라 준다고 했다. 그 애 엄마가 딸을 응석받이로 키우는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그런데도 남자애들이 알린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꼴이라니! 음...

에밀리는 사람들이 왜 알린이 샌드위치 가장자리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알린의 머리카락은 탐스럽게 컬이 살아있는 데다가,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였다.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판지로 만든 햇불을 높이 들고 자유의 여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나? 물론 알린이었다. 고등학교 전교생 앞에서 오월의 여왕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나? 당연히 알린이었다. 에밀리같은 여자애들이나 샌드위치 가장자리를 먹는 거고, 당근도, 그리고 탄 토스트도 먹는 것이다. 그러면 컬이 살아있는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에밀리는 외할머니가 옷감에 드레스 패턴을 펴 보는 동안 다른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러셀 할머니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직접 지붕 판자를 고쳤다는 것과 그 분의 나이가 적어도 82세라는 것을 들었다. 이런걸 보면 개척자의 피가 몸속에 조금이라도 흐르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번은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계산대 밑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종이 가방 틈에 앉아 있는 동안에 한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바삭바삭한 파이

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은 반죽에다가 베이킹파우더를 넉넉한 한 꼬집 정도 넣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에밀리는 이 막간의 정보에 귀를 쫑긋 세웠다. 넉넉한 한 꼬집 정도의 베이킹파우더를 반죽에 넣으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바삭바삭한 파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꼭 기억했다가 엄마한테 알려줘야 했다. 엄마는 반죽을 만들 때마다 미안해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데 파이가 생각만큼 부풀어 오르지 않네.”

아빠는 늘 “나는 맛만 좋은걸.” 라고 대답했다. 에밀리는 파이크리스트가 맛이 없어서 대개는 파이 속만 먹고 크리스트는 남겼다. 파이크리스트를 먹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에 쉰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에밀리는 입수한 요리 비법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일요일 아침에 엄마가 갑자기 “어떡해, 교회에서 포틀럭 만찬¹³⁾이 열리는 날이잖아. 너무 바빠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라고 소리를 쳤을 때서야 기억이 났다.

“우린 뭘 가지고 가요?” 에밀리가 물었다.

엄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생각을 했다. 엄마는 그 해 여름에 일이 너무 많아서 기진맥진해 있었다.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에밀리, 미안하지만 오늘은 교회 예배 보고나서 저녁시간까지 남아있지 못하겠어. 닭고기를 튀길 시간도 없고, 갖고 갈만한 게 집에 아무것도 없구나.”

교회에서 열리는 포틀럭 만찬에 갈 수 없다니! 에밀리는 너무나 실망했다. 그 긴 곧 주일 학교에 갔다가 다른 애들은 교회에 남아서 저녁을 먹을 때 에밀리는 바로 집에 와야 된다는 걸 의미했다. “가지고 갈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밀리는 애원했다. “기억나요? 도서관을 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도록 엄마가 목사님한테 다시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아빠는 찌든한 크림을 얹은 귀리 시리얼 한 그릇에 베이컨, 달걀, 감자튀김까지 다 먹고 난 후 “우리 집에는 항상 우유하고 달걀이 있잖소. 커스터드 파이는 어떻소?”

“교회에 가기 전까지 파이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대답했다.

에밀리는 포틀럭 만찬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특히 목사님 설교 중에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날에는 절대 빠지고 싶지 않았다. “엄마, 내가 커스

13) 참석하는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는 만찬

터드 파이를 만들어볼까요?” 에밀리는 부탁했다. “주일학교를 빠지고 바로 교회로 가도 된다면 만들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발요, 엄마.”

엄마가 에밀리를 향해 살며시 웃었다. “그래도 되겠다. 적어도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 자, 그럼 시작해보자.”

엄마가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에밀리는 빵 도마, 밀대, 파이 틀을 꺼냈다. 아 빠는 딸감 하나를 더 넣어서 화롯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에밀리는 식품창고에서 큰 사발하나를 꺼냈다. “뭘 넣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에밀리는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

“밀가루 두 컵 반.” 엄마가 말했다. “소금 약간- 한 티스푼 보다는 좀 적게. 가만. 라드¹⁴⁾ 조금. 내가 계량을 해야겠어.” 엄마가 식품창고로 와서 능숙하게 라드 통에서 라드를 꺼냈다. “자 에밀리, 칼 두 자루를 잡고 이 밀가루하고 라드가 옥수수가루처럼 곱게 될 때까지 마구 칼질을 해야 해.”

에밀리는 열심히 칼질을 하기 시작했다. 가볍고 바삭바삭한 파이크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말하려다가 엄마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교회 신도 모두가 에밀리가 만든 파이크러스트를 먹고 감탄하게 하고 싶었다. 에밀리가 만든 파이를 디저트로 고른 사람들은 한 입 먹은 다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머나 이렇게 가볍고 바삭바삭한 파이가 있다니.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에밀리는 겸손하게 미소를 짓고, 엄마는 “에밀리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모두 에밀리에게 가볍고 바삭바삭한 크러스트의 비법을 물어볼 것이다. 에밀리는 재빨리 베이킹파우더를 넉넉히 한 꼬집을 넣었다. 넉넉한 한 꼬집이 어느 정도인지 애매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 넉넉한 한 꼬집을 한 번 더 넣었다.

“맛있는 파이크러스트를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 비법이 있단다.” 엄마가 말했다. “물을 아주 적게 넣고 반죽을 아주 살며시 다루는 거야.”

에밀리는 혼자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세 번째 비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는 반죽을 빵 도마에 부었다. 파이크러스트라기 보다는 파이 부스러기 더미처럼 보였다. 밀대로 밀어도 파이크러스트라기 보다는 납작한 파이 부스러기처럼 보였다. 에밀리는 밀대로 더 세게 밀었다.

14) 돼지비계를 정제하여 하얗게 굳힌 것. 요리에 이용함

“살살, 에밀리.” 엄마가 말했다. “살살.”

소용이 없었다. 이 부스러기 조각들은 파이크러스트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엄마가 와서 에밀리가 밀고 있던 밀대를 집어 들었다. 엄마는 부스러기를 떼서 쌓은 후 부드럽게 조물거리고 가볍게 툭툭 두드린 다음 밀대로 밀었다. 파이크러스트가 만들어졌다!

“이제 내가 할래요.” 에밀리가 애원했다. 지금부터는 재밌는 부분이었다. 에밀리는 파이크러스트를 파이틀에 걸쳐놓고 지지분하게 빠져나온 부분을 싹둑싹둑 잘라 다듬었다. 그 다음,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예쁘게 물결모양을 만들었다. 엄마가 하던 대로.

파이 속을 준비하는 건 훨씬 쉬웠고, 에밀리는 금방 미나리아재비처럼 노란 커스터드로 채워진 파이주머니를 만들었다. 엄마는 오븐 안에 잠시 손을 넣어 온도를 확인한 다음 파이를 넣어 구웠다.

에밀리와 엄마가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입는 동안 부엌은 커스터드의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찼다. 에밀리는 교회 지하에 차려진 테이블 위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 사이에 놓여있는 에밀리의 파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황금빛 노란색을 띠고 너트맥¹⁵⁾이 박힌...

“에밀리, 파이를 확인해 볼 때가 된 거 같구나.” 엄마가 말했다. “칼을 찢러 넣어봐, 칼을 뺐을 때 묻어 나오는 게 없으면 다 된 거야.”

파이 냄새가 얼마나 좋았던지! 에밀리는 기대에 부풀어서 깨끗한 칼을 찾아왔다. 조심스럽게 오븐 문을 열고 속을 살짝 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환상적인 미나리아재비색의 파이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 에밀리가 소리를 질렀다. “얼른 와보세요!”

엄마가 하이힐을 신고 또각거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왜 그래, 에밀리?”

“파이가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보세요!”

엄마는 몸을 숙여 오븐 안을 보았다. “어쩌면 좋아, 에밀리,” 엄마도 놀라서 크게 외쳤다. “파이크러스트가 맨 위에 있어!”

“분명히 바닥에 깔았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어째서 맨 위에 있는 걸까요?”

“나도 잘 모르겠다만 파이가 다 익은 건 확실해 보이는 구나.” 엄마는 오븐용

15) 사향 맛이 나는 호두

장갑을 끼고 파이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식혔다. 이상하게 생긴 파이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파이크러스트에 듬성듬성 커스터드 크림이 빠져나와 있었다.

“교회에는 못 가지고 가겠어요.” 에밀리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풀이 죽었다. “이제 포틀럭 만찬에는 못 가게 됐고 목사님은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잊어버릴 거예요.”

아빠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식히고 있는 파이를 살펴보았다. “내가 보기엔 교회에 못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아빠는 말했다. “파이크러스트가 위에 있다고 해서 크러스트가 아래에 있는 파이보다 맛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엄마가 말했다. “뭔가 오븐 때문인 게 분명해요.”

“제 잘못이에요.” 에밀리는 쭈뼛거리며 털어놓았다. 그리고 베이킹파우더를 넉넉하게 한 꼬집 넣어서 가볍고 바삭바삭한 파이크러스트를 만들어 교회 신도들을 놀라게 하려던 계획도 얘기했다. 에밀리는 엄마, 아빠 모두 이 얘기를 재미있어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저 파이크러스트는 틀림없이 가벼워.” 아빠가 말했다. “너무 가벼운 나머지 동동 떠올라서 커스터드를 확 뚫어버린 거지.”

엄마는 좀 더 자세히 파이를 살펴보았다. “있잖니, 파이크러스트가 정말 가볍고 바삭바삭해 보이는구나. 사과나 건포도 속으로 살짝만 눌러주면 팬장을 것 같아. 자, 걱정하지 마, 에밀리. 파이를 싸서 교회에 가지고 가자.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파이를 꺼낼게. 그리고 다른 파이도 많이 있을 테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내가 두 조각 먹으마.” 아빠가 의리있게 말했다.

그리하여 바틀렛 식구들은 깨끗한 천에 파이 두 개를 정성껏 포장해서 교회로 향했다. 에밀리는 언제 봐도 맘에 안 드는 주일학교 모자를 쓰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여성용 모자를 아름답게 꾸미는 법을 잘 아는 분이지만, 에밀리 또래의 소녀들이 어떤 모자를 쓰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 에밀리는 꽃, 베일, 그리고 어찌면 타조 깃털 한 두 개 정도로 장식된 모자를 간절히 원했

다. 그런데 에밀리가 받은 모자는? 넓은 챙에, 치렁치렁한 검은색 리본 장식에다가 턱에 매는 고무줄 끈이 달린 뺏뺏한 검은색 챙모자였다. 엄마는 에밀리의 모자가 피치포크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지만, 에밀리의 생각은 달랐다. 외할머니를 사랑하는데도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모자가 맘에 안 드는 것은 큰 문제였다.

작고 하얀 교회에 바틀렛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주일학교는 이미 끝난 다음이었고, 아이들은 모두 교회마당에 나와서 얼음 땡 놀이를 하며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에밀리의 사촌 준이 뛰어왔다. “파이를 가지고 왔니?” 준이 물었고, 에밀리의 눈에 준의 머리핀이 언제나처럼 떨어질락말락 하는 게 들어왔다.

“그렇단다, 준,” 엄마가 대답했다. “에밀리가 파이를 좀 구웠거든.”

“무슨 파이요?” 준이 궁금해 했다.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다. “커스터드.” 아마도 만찬장에는 다른 커스터드 파이가 족히 열 개는 될 터였다.

“우리는 코울슬로를 가지고 왔어요.” 준이 말했다. 그러고는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는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턱걸이를 하러 경충경충 뛰어갔다.

“어머, 풍 쿠오크 영감님도 왔네.” 엄마가 할아버지를 보았다. 에밀리는 얼른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랬더니 죄책감이 들었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는 도서관에 거금 1달러를 준 분이였다.

“영감님이 밥을 가져왔으면 좋겠군.” 아빠가 말했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그리고 피치포크가 더 작은 마을이었던 시절에 할아버지는 일 년에 한 번씩 마을 파티를 열었다. 할아버지는 중국식 음식을 대접했고, 아빠는 그때 먹었던 그 밥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에밀리와 엄마는 파이를 들고 교회 지하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아주머니 몇 명이서 톱질모탕위에 판자를 얹은 식탁을 세팅하고, 큰 범랑 커피포트 안에 달기 위해서 커피를 소금포대 안에다 계량해서 넣느라 분주했다. 엄마는 모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파이를 싸고 있던 천을 벗겨내서 다른 디저트들 틈에 놓았다.

“엄마, 다른 커스터드 파이가 없어요,” 에밀리가 속삭였다.

“걱정 마, 있을 거야.” 엄마는 에밀리를 안심시켰다.

에밀리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쩌면 피치포크 아주머니들이 오늘은 아무도

커스터드 파이를 굽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에밀리의 파이가 유일한 커스터드 파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준은 무심결에 에밀리가 구웠다고 말해버릴 게 분명했다. 준은 뭐든지 무심결에 말해버리는 데 선수였다.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에밀리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대들의 종을 울려라’를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발음해보며 엄마 아빠와 함께 줄을 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에밀리는 아빠 옆에 앉은 것이 자랑스러웠다. 어두운색 정장을 입은 아빠는 건장하고 멋있었다.

에밀리는 교회에 있으면 항상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시달렸다. 긴 교회의자 등받이 뒤에 칠해진 갈색 페인트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라있었고, 거품에 구멍을 내서 밑에 칠해진 회색 페인트를 보고 싶었다. 의자를 따라 쪽 훑어보니, 이미 에밀리의 사촌 준은 부산스럽게 페인트 거품을 찢어대고 있었다. 유혹에 굴하지 말자, 에밀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말했고, 폼지락대지도, 커스터드 파이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에밀리는 본넷 목사님이 일어나 연단에서 정말로 도서관에 대해 얘기할 때 파이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다. 목사님은 피치포크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내준 모범적인 아주머니들에 대해서, 도서관에 더 많은 책과 기금이 마련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에 대해서, 또 피치포크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생긴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다.

그리고 깨끗한 밀가루 포대를 가지고 기찻길을 따라 걸어왔던 그 남자애에게도, 하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본넷 목사님은 그 날의 성경말씀을 전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에밀리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다섯 개의 빵과 두 개의 생선을 나눠 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그런데 본넷 목사님의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고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모자의 고무줄 끈이 에밀리의 목을 조를 것 같았다. 본넷 목사님은 신도들에게 피치포크 주민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밀리는 몸이 더욱 더 근질거렸다. 모든 게 쉽게 잘 자라는 피치포크에서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믿음을 갖기 힘든 것은, 예를 들면 도서관이었는데, 하지만 믿음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면 믿음을 가져보기로 했다. 에밀리는 꼼지락 거리다가 자기를 보며 쩡그리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가만히 앉아 있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바른 자세를 잡아보았다. 앞을 바라보고, 등은 곧게 펴고, 발은 바닥에 놓고, 손은 무릎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피치포크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았다. 문제는 에밀리의 모자에 달린 고무줄 끈이 너무 쥘다는 것이었다. 외할머니가 턱을 죄는 고무줄 대신에 모자 핀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어른들이 쓰는 모자를 만들어주기만 했어도...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에밀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였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추수철에 아빠가 밀한단을 품에 가득 안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에밀리는 최대한 빨리 계단을 내려가 교회 지하실 문으로 내달렸다. 도착하자마자 모자는 얼른 벗어 버렸다. 모자를 고리에 걸고, 디저트가 차려진 식탁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피치포크의 아주머니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빵을 굽는 것이었다. 파운드 케이크, 레이디 볼티모어 케이크, 엔젤 케이크, 데빌스 푸드(devil's food) (에밀리는 이 케이크를 교회에 가져 와도 되는 건지 궁금했다), 둥근 파인애플 조각 가운데마다 체리로 장식된 파인애플 업사이드다운 케이크, 설탕가루를 입히지 않은 호두 케이크 등 온갖 종류의 케이크가 있었다. 물론 파이도 있었다. 파이크러스트를 꼬인 짜임으로 만들어 윗부분을 장식한 체리파이. 사과파이. 파이크러스트 틈 사이로 빠져나온 계피 속이 보였다. 섬세하게 머랭으로 장식된 레몬 파이. 파이크러스트 사이로 찢든한 진홍색 즙이 나오는 블랙베리 파이. 그리고 커스터드 파이 두 개- 에밀리가 만든 바로 그 파이.

에밀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커스터드 파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준도 파이에 대해서 잊어버리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에밀리는 기다란 식탁 의자

에 앉아있는 아빠 옆에 앉았다. 엄마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음식을 차리느라 분주했다.

준이 와서 에밀리 옆에 털썩하고 앉았다. “배고파.” 준이 말했다. “소도 잡아먹을 정도야.”

본넷 목사님이 맞은편에 앉자 에밀리는 갑자기 수줍어졌다. 목사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였다. 연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요한 분. 에밀리가 이 분에게 무슨 말을 건넬 수 있을까?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분께.

아주머니들이 테이블에 차린 음식들! 튀긴 닭고기 요리. 닭고기 경단. 베이컨을 곁들여 오랫동안 쪄 크리스토크. 감자 에스칼로프. 코울슬로. 종이처럼 얇게 슬라이스 된 양배추. 그리고 밥.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큰 냄비 한가득 밥을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의 밥 때문에 피치포크의 모든 아주머니들은 다들 절망을 맛본 적이 있다. 남편들이 다들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하는 식으로 밥을 해달라고 졸랐고, 아무리 애써도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고슬고슬하며 냄비 바닥에는 바삭바삭한 누룽지가 있는 밥을 요리해 낸 아주머니는 한 명도 없었다. 피치포크의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시도하다가 밥을 아주 많이 태웠다.

이제 에밀리에게는 커스터드 파이에 대한 신경을 끄는 것과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관한 것 말고 문제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닭고기였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저녁식사, 가족 모임, 교회 만찬, 산장에서의 저녁식사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누군가가 에밀리에게 음식을 줄 때에는 마치 굉장히 대접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그리고 에밀리에게는 닭다리를 줄게.” 에밀리는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에밀리가 원한 건 위시본¹⁶⁾이 들어있는 가슴살이었지만 받는 것은 언제나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닭고기가 담긴 접시가 준에게 넘어왔다. 준은 닭다리 두 개를 자기 접시에 갖다놓고 에밀리에게 넘겨주었다. 에밀리는 닭고기 접시가 무거워서 테이블에 내려놓아야 했다.

“도와줄까, 에밀리?” 본넷 목사님이 물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에밀리

16) 닭고기·오리 고기 등에서 목과 가슴 사이에 있는 V자형 뼈. 이것의 양 끝을 두 사람이 잡고 서로 잡아당겨 긴 쪽을 갖게 된 사람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음

는 급히 대답했다. 아직 닭다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는 위시본이 들어있는 부분을 자기 접시에 갖다 놓았고 웬지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위시본을 집으로 가져가서 오븐에 넣고 건조시킨 후에 잘 부서질 정도가 되면 소원을 빌 때 쓸 생각이었다. 소원은 『블랙뷰티』였는데, 그런 건 사소하고 이기적인 소원이기 때문이었다. 믿음은 뭔가 위대하고 박애적인 것을, 예를 들면 마을 전체를 위한 도서관 같은 것을 빌 때 필요한 것이었다.

그 후로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본넷 목사님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에밀리는 목사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목사님은 여신도모임이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얘기했다. 또, 주일학교 교실에 파티션이 몇 개 더 필요하다고 했다. 목사님은 피치포크 아주머니들의 음식솜씨도 칭찬했다. 에밀리는 닭고기를 다 먹고 나서 위시본을 냅킨으로 닦은 다음 속바지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다. 에밀리는 속바지 주머니를 이런 저런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다-고무공, 카드, 심지어 줄넘기 줄도 넣고 다녔다.

본넷 목사님이 너무 많이 말을 한데다, 사람들이 예의바르게 듣느라고 먹다가 멈추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에밀리가 앉은 식탁의 식사가 가장 늦게 끝났다. 에밀리는 결눈질로 디저트가 놓인 식탁을 보았다. 디저트가 다 없어지고 파이 딱 두 개, 에밀리가 만든 커스터드 파이만 남아있었다. 당연했다. 너무나 희한하게 생긴 파이였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그 파이를 자르고 있었다. 이렇게 끄적할 수 가! 에밀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을 지경이었다.

물론 아주머니는 그 파이를 목사님께 제일 먼저 드렸다. “이게 무슨 파이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겸연쩍어하며 말했다. “커스터드 같기는 한데, 파이크리스트가 위에 있네요.”

“저거 네가 구운 파이야?” 준이 에밀리에게 물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자,” 본넷 목사님이 말했고, 교회 지하에 있던 군중들은 모두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 꼬마 숙녀가 파이를 구웠답니다!”

에밀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딱딱한 의자에서 몸을 비비 꼬았다. 모두들 몸을 돌려 그 파이를 구운 꼬마 숙녀를 쳐다보았다. 목사님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선 파이를 쳐다보았다. “잠깐만요.” 목사님이 말했다.

“파이가 열두 조각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는 스무 명이 앉아 있네요. 모두가 먹기에는 부족하겠어요.” 목사님은 나이프를 집어 파이 조각 하나하나를 두 조각으로 잘랐다. “자, 이제 훨씬 낫군요.” 목사님은 말했다. “다들 한 조각씩 먹고,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먹을 수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요. 그렇지, 에밀리?” 목사님은 자기가 한 농담에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 커스터드 파이를 군중들에게 먹이는 것은 에밀리가 원하는 일이 절대 아니었다. 미끄러운 커스터드 파이처럼 미끄러지듯 약삭빠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만든 파이였기 때문에 자기도 한 조각은 꼭 먹어야 될 것 같았다. 자기가 만든 파이를 먹고 싶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진짜 웃기게 생긴 파이네,” 준이 말했다.

그 때, 에밀리는 영감을 얻었다. “이건 업사이드다운(거꾸로) 파이에요.” 업사이드다운 케이크도 있는데 업사이드다운 파이가 안 될게 뭐람? 파이크러스트가 원래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파이를 한 입 먹었다. “맛있구나.” 목사님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파이크러스트가 가볍고 바삭바삭해.”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며 소곤거렸다. 에밀리의 파이크러스트는 정말 가볍고 바삭바삭했다. 사람들은 에밀리가 파이크러스트가 커스터드를 뚫고 솟아오르기 전에 듣고 싶어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있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사려 깊게 말했다. “커스터드 파이를 만들 때 파이크러스트가 위로 가게 하는 건 아주 멋진 생각이예요. 대부분은 바닥에 있는 크러스트가 눅눅해지거든요. 에밀리, 이렇게 가볍고 바삭한 파이크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얘기해 주겠니?”

에밀리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베이킹파우더를 넉넉하게 한 꼬집 넣었어요.”

불경기 파티

엄마는 속상했다. 정말 속이 상했다. 아빠한테서 그 해 작물 값을 얼마나 못 받게 될지 들었던 것이다. 헛간은 가득 찼고, 양털은 길고 두껍게 자랐으며, 돼지들도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뭐든지 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빠가 힘들게 일을 했는데도 내년 한해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정도밖에 벌지 못했다. 에밀리에게는 밭창을 한 번 더 덧댄 신발, 단을 한 번 더 늘인 원피스, 실용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의미했다. 그게 최악이었다. 실용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요?” 에밀리가 걱정스레 물었다.

“어떻게든 될 거야.” 엄마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늘 그랬어. 서부를 개척한 선조들만 봐도 그렇잖니. 오리건에 도착한 첫 해 겨울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차 지붕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대.”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다. 길이를 두 번 늘인 원피스가 마차 지붕 천으로 만든 옷보다는 나아졌다. 마차 지붕 천으로 만든 옷은 분명 뻗뻗하고 따끔거렸을 것이다.

외할아버지네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농부들이 외상으로 신발, 작업복, 설탕, 양념 등을 사갔지만 수확한 작물을 판 후에도 외상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다. 그랬다. 피치포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리고 에밀리는 사람들이 그 해 겨울에 도서관에 조금밖에 기부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 돈이나,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다닐 기름 값이 없을 때, 대신 도서관으로 몰린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그 해 겨울에는 빌려 줄 책이 부족할 때도 있었다. 책을 한 박스씩 보내 주던 주립 도서관은 한 번에 세 박스를 보내주었다. 그래도 『블랙뷰티』는 오지 않았다. 엄마는 받은 책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비가 내리던 추운 어느 날 오후, 에밀리는 하얀 밀가루 포대를 들고 오는 그 소년이 빌려갈 책이 남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 애를 위해 한 권, 그 애의 동생을 위해 한 권을 미리 빼 두기도 했다. 그 아이는 기찻길을 따라 먼 길을 걸어온 탓에 비에 훌쩍 젖은 채 추

위에 떨어져 나타났다.

피치포크의 아주머니들은 도서관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아주머니들은 메소닉홀에서 파티를, 불경기 파티를 열기로 했다. 파티 입장료로 25센트씩 받기로 하고, 수익금은 도서관을 위해 쓰기로 했다.

“불경기에 파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에밀리가 물었다. 파티라는 건 생일이나, 밸런타인데이, 할로윈 때 여는 것이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엄마가 보기엔 좋은 생각 같아. 인생을 살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 보아야 조금은 즐겁게 지내는 게 좋잖니.”

에밀리도 인생을 살면서 좀 즐겁게 지내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예쁜 겨울 원피스를 입어 볼 기회가 생기기를 바랐다. 바로 외할머니가 작년에 만들어 준 빨간색 태피터¹⁷⁾ 주름 치마였다. “엄마, 저도 이번 한 번만 파티에 가면 안돼요?” 에밀리는 부탁했다.

엄마와 아빠가 저녁에 외출 할 때면, 에밀리는 보통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가게 위층에서 잤다. 토요일 저녁에 가게에 있는 건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그날은 벌목꾼들이 마을에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가게는 매키노¹⁸⁾ 작업복을 입은 덩치 크고 시끄러운 아저씨들로 붐볐다. 밤에는 계산대 위에 식료품이 산처럼 쌓였다. 토요일 밤마다 콩, 커피, 베이컨과 치즈 몇 덩어리 등, 식료품으로 가득 찬 상자들이 벌목장 캠프로 실려 갔다.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외할머니가 에밀리를 위층으로 올려 보냈지만 집에서처럼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됐다. 에밀리는 외할아버지의 안락의자에 앉아, 가족표지가 많아서 호물호물해진 낡은 사전을 보며 온갖 종류의 소와 전 세계의 국기를 컬러 사진으로 보았다.

에밀리는 불경기 파티에 갈수만 있다면 이런 토요일 밤을 포기할 마음이 있었고, 결국 엄마가 허락해주었다. 이번 딱 한번만. 에밀리는 도서관에서 이번 파티에 대해 아주머니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머니들은 식탁보로 쓰기 위해 온 마을의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된 체크무늬 식탁보를 전부 다 모으기로 했고, 음식으로는 구운 콩, 호밀빵, 코울슬로를 내어 놓기로 했다. 그리고 재미

17) 광택이 있는 얇은 평직(平織)의 견직물. 블라우스·스커트 등의 여성복이나 양복 안감 등에 사용함

18) 두꺼운 모직 반코트

삼아서 캔 커피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경기라는 걸 감안하면 캔 커피가 적당해 보였고, 청소를 담당한 아주머니들도 커피포트를 씻을 필요가 없었다. 빈 캔을 버리기만 하면 됐다.

파티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파티에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생각하기 전까지는.

“회색 실크 드레스요.” 에밀리가 말했다. 제일 좋은 드레스 말고 무슨 옷을 입고 파티에 간다는 거지?

“그렇지만 불경기 파티잖니” 엄마가 말했다. “불경기 의상을 입고 가야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아는 줄 알았어.”

에밀리는 모르고 있었다. “불경기 의상이라는 게 뭐예요?”

“가진 옷 중에 제일 오래되고 낡은 옷이지.” 엄마가 설명했다. “아무 옷이나 낡은 옷이면 돼.”

에밀리는 경악했다. “대체 왜요?” 에밀리는 따져 물었다.

“재미있잖니.” 엄마가 말했다.

‘재미’라니! 이런 건 에밀리가 생각하는 ‘재미’가 아니었다. 에밀리가 생각하는 ‘재미’는 제일 좋은 원피스를 차려 입고 나갔을 때 피치포크 아주머니들이 “에밀리 바틀렛을 좀 봐, 파티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냐. 에밀리는 파티에 낡고 오래된 옷을 입고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절대로.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엄마가 아빠의 가장 낡은 작업복을 꺼내서 그 위에 옷감 천 조각들을 덧대자 너무나 못마땅했다. 다른 낡은 작업복의 청바지 천 올려내서 덧대는 게 아니라 옷감 천 조각을 모아둔 가방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화려한 분홍, 노랑, 초록 꽃무늬 천 조각들로 덧대었다. 게다가 구멍난 자리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다 바느질을 해서 덧대었다.

엄마가 갑자기 바느질을 하다 말고 큰 웃음을 터트렸다. “에밀리, 엄청나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마대자루를 뺀 다음에 한 개는 팔이랑 머리를 넣는 구멍을 내서 블라우스를 만들고, 두 개로는 치마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벨트로는 음- 어디 보자- 아빠 양말을 옷핀으로 이어붙이는 거지. 그리고 목걸이로는-목걸이는 뭘로 만들까?”

에밀리리는 너무나 끔찍해서 대답조차 하기 싫었다. 엄마가 마대자루를 입고 파티에 간다니! 이건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다.

“알았다!” 엄마는 영감이 떠올라서 신이 났다. “씨앗을 납작하게 한 다음에 줄로 이어서 목걸이를 해야겠어. 그리고 머리를 양 갈래로 땡고 아빠가 마대자루를 꿰맬 때 쓰는 노끈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묶어야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엄마의 검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노끈으로 묶다니! 이번에는 엄마의 상상이 고삐가 풀려 있었다.

“그리고, 에밀리.” 엄마는 에밀리가 못마땅해 하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얘기했다. “뭐가 제일 엄청나게 웃길 것 같은지 아니?”

에밀리리는 엄마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웃길 것 같은 게 뭔지 맞추기도 겁이 났다.

“너도 마대자루를 입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엄마는 자기가 생각해 낸 계획들로 너무나 즐거워했다. “우리 둘이 파티의 최고 미녀가 될 것 같아.”

반항하고 싶은 못된 충동을 느꼈다. 에밀리리는 우스꽝스럽게 입고 싶지 않았다. 에밀리리는 엄마가 우스꽝스럽게 입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건 점잖지 못했다. 그리고 어른들은 항상 점잖아야 했다. 그리고 파티의 최고 미녀가 된다는 것, 에밀리에게 파티의 최고 미녀가 된다는 것은 엄마가 얘기해줬던 ‘그 때’ 같은 상황을 의미했다. ‘그 때’는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서부로 왔을 때였고, 아빠를 만나기 전이었다. 엄마가 가르치던 작은 마을에서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과 춤을 추러 갔었다. 엄마는 마을에 새로 나타난 여자였던 데다 얼마나 춤을 잘 춰는지!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모두 엄마와 춤을 추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키가 크고, 잘생긴데다 신사다운 한 남자와 거의 내내 같이 춤을 췄다. 엄마는 그 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키가 크고 잘생긴 신사가 말 도둑이었고, 감옥에 갔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엄마는 유감스러웠지만, 도시에 사는 사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쓸 얘깃거리는 확실히 생겼던 것이다. 말 도둑과는 한 번도 춤을 춰 본 적이 없는 사촌들에게. 만약 엄마가 마대자루를 뒤집어쓰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일 마대자루를 찾아보자.” 엄마는 마치 에밀리도 동의한 것처럼 계속 얘기했다. “그리고 내 낡은 스타킹을 네 벨트로 쓰면 되겠어.”

“안 할래요.” 에밀리가 딱 잘라 말했다.

“뭘 안 해?” 엄마가 놀라며 물었다.

“파티에는 마대자루를 안 입고 갈 거예요.” 에밀리는 말했다, “그리고 낡은 스타킹을 벨트로 메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밀리-” 엄마가 말하려 했다.

“어쨌든 안 할래요.” 에밀리가 엄마의 말을 잘랐다. “그냥 안할래요.”

“그렇지만 에밀리.” 엄마는 설득하려고 했다. “우리 둘 다 마대자루를 입고 나타나면 정말 재밌을 거야.”

에밀리는 엄마의 말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대자루를 입고 파티에 가기는 정말로 싫었다. 이 집안에서 엄마만 깡다구가 있는 게 아니었다.

“에밀리.” 엄마가 말했다. “지금 집안에 벌이 있었으면, 네 입을 쏘았겠어.”

한 겨울밤 거실에 벌이 있을 리가 없었지만, 에밀리는 입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에밀리?” 엄마는 물었다.

엄마에게 파티의 최고 미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파티라는 건 한껏 차려입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건 불가능했다.

“왜냐면요.” 에밀리는 입을 삐죽 내밀지 않으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그 때, 식탁에서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던 아빠가 말했다. “에밀리, 엄마가 말하는 대로 입던지, 아니면 외할아버지네 댁에서 자던지 해.” 아빠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엄마는 다정하게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에밀리가 파티에 간다면 가서 재밌게 즐길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옷을 입고 싶니, 에밀리?”

“내 빨간 파티 원피스요.” 에밀리는 바로 대답했다.

“그래 좋아.” 엄마가 허락했다. “지금 가지고 오면 천 조각을 몇 개 기워줄게.”

엄마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근데요, 엄마.” 에밀리가 말했다. “천 조각은 안 붙일래요. 그냥 그 원피스 그대로 입고 싶어요. 파티에 잘 차려입고 가고 싶은걸요.” 에밀리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였지,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었다.

“알겠어,”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에밀리는 기분이 엉망이었다. 마대자루를 입고 파티에 가겠다고 해서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에밀리네 엄마를 도와서 파티에 가지고 갈 은식기 손잡이에 초록색 실을 감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과 섞여있어도 에밀리네 집 나이프, 포크, 숟가락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마칠 때까지도 그날 의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검고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땀아서 노끈으로 묶을 때까지는.

“오오, 에밀리.”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못마땅한 얼굴을 하지 마. 얼른 가서 파티 원피스로 갈아입으렴.”

그래서 에밀리는 1층 침실 옷장에서 제일 예쁜 겨울용 파티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예전보다 가슴 쪽이 좀 끼는 느낌이었지만, 엄마 서랍장 위에 달린 거울 앞에서 뒤도 돌아보고 빙글빙글 돌아봤다. 거울에 보이는 데까지는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나서 메리제인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작아서 발가락을 꼼지락 거리기도 힘들었다. 에밀리는 어찌해야할지 몰랐다. 잡초처럼 쭉쭉 자란다는 말을 들곤 했고, 그럴 때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밤에는 빨리 크는 게 너무 불편한 일이었다.

그 때, 엄마가 마대자루 원피스를 입고, 신나서 침실로 들어와 거울 앞에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보았다. 마치 패션잡지에 나온 최신 스타일의 옷을 입은 것처럼. 아빠는 걸어 다니는 천조각보 꼴로 들어와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는 씨익 웃었다. 아빠는 엄마의 허리를 팔로 감고 엄마를 들어올렸다. “마대자루 한 포대 무게도 안 나오겠네,”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

“저 어때요?” 에밀리가 물었다.

엄마와 아빠는 알 수 없는 눈빛을 재빨리 교환했다. “아주 멋져.” 엄마가 대답했다.

에밀리는 신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 때, 게다가 메리제인 신발을 살 돈이 없을 때에는 더더욱. 하지만 참기 어려울 만큼 신발이 꼭 죄었다. “엄마...신발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엄마는 무릎을 꿇어 에밀리의 발가락을 만져보았다. “어머나, 작아도 너무 작구나” 엄마도 인정했다. “발가락이 신발을 뚫고 나오려고 해. 미안하지만 평소에 신는 신발을 신어야 될 것 같아.”

“아아, 엄마아...” 에밀리는 파티 원피스에 뒷굽이 닳은 갈색 옥스퍼드 신발을 신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른 신발이 없었다.

“에밀리.” 문득 엄마가 말했다. “내 낡은 신발을 신는 건 언제?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옥스퍼드 신발을 신었다가 갈아 신으면 돼.”

파티에 하이힐을 신고 가 보겠냐고? 당연하지! 물론 아무리 엄마 발이 작고, 에밀리 발이 큰 편이라고 해도 엄마 신발이 맞을 리는 없었다. 그래도 파티에 온 다른 여자애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었다. “오오, 엄마, 정말 그래요?” 에밀리가 기대에 부풀어서 물었다. 엄마가 가끔씩 하이힐을 신어 보게 해주었지만, 신고 나간다는 건, 정말로 신는다는 건...엄마가 사람들 앞에 마대자루를 입고 나가도, 에밀리가 만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바틀렛 식구들은 종이가방 하나에 엄마의 낡은 하이힐을, 다른 가방에는 녹색 실로 표시한 은식기를 담고 메소닉홀로 출발했다. 도착하자마자 에밀리는 그 하이힐로 갈아 신었다.

다행히도 엄마는 아주머니들이 상 차리는 걸 돕기 위해 코트를 입은 채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에밀리는 복도에 있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댄스플로어에서 뛰어다니며 슬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뛰어내리며 놀고 있었다. 엄마의 하이힐을 신고 있던 에밀리에게는 그 모습들이 너무 유치해보였다. 사촌 준도 그 애들 틈에서 같이 뛰어다니며 슬라이딩을 하고 있었다. 준은 낡은 세일러 블라우스에, 저번에 철사줄로 된 울타리를 넘다가 찢어진 치마를 입고 짹짹 신발을 신고 왔다. 한 짹은 신발 끈을 매는 발목 높이의 갈색 신발이었고, 다른 한 짹은 너무 낡아서 에나멜가죽이 갈라진 메리제인 신발이었다. 준은 남루하고 단정치 못해보였지만, 그 애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았던 에밀리는, 준은 아마 신경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다른 사람들이 입고 온 옷들도 살펴봤다. 트렁크나 짜투리 천을 모아 놓은 가방에서 꺼낸 것들이라니! 줌벌레들이 피치포크에서 꽤나 바쁘게 활동했던 게 분명했다. 유행이 지난 바지들, 바래거나 덧대어진 작업복들, 실내복들, 밀가루 포대로 만든 치마들. 한 아주머니는 잡초로 장식한 남성용 밀짚모자를 쓰고 왔다. 다른 아주머니는 코에 빵가루를 바르고 왔다. 이발사 아저씨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삼각건을 두르고 나타나자 다들 혁하고 놀랐는데, 알고 보니 파

티를 위한 의상일 뿐이었다. 은행장인 아처 아저씨가 마치 만화 주인공 ‘해피 홀리건¹⁹⁾’처럼 토마토 수프 깡통을 머리 위에 붙이고 나타나자, 에밀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저씨의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멋있게 차리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 알린 트위첼만 빼고. 알린은 제일 예쁜 원피스에 분홍색 천 조각 몇 장만 붙이고 왔다. 예뻐 보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재미있는 모습과 대조되면서 마치 옷에 ‘공주병이에요’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때, 에밀리는 자기도 옷을 잘못 입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에밀리도 공주병 환자처럼 보일게 뻔했다. 엄마가 옳았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게 재밌는 일이었다. 에밀리는 두 발을 최대한 의자 밑으로 깊숙이 당겨 넣고, 코트 단추를 턱 아래까지 모두 채웠다. 사람들이 자기가 거만해서 불경기 의상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발사 아저씨의 아들인 버티 영이 스케이트를 타는 시늉을 하며 다가왔다. “안녕, 에밀리? 내 머리카락 냄새 맡아볼래?”

버티가 몸을 숙이자 에밀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흠-흠-흠. 이번엔 카네이션 향이었다.

준이 바닥에 슬라이딩을 하며 왔다. “안녕, 에밀리?” 준은 에밀리 앞에서 멈춰 섰다. “왜 코트를 안 벗었어?”

“벗기 싫어서.” 에밀리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서.” 준이 즐랐다. “뭐 입고 왔나 보여줘.”

에밀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아무 말도 안하면 준이 끈질기게 물어볼 거라는 건 알았다. “나...나는 파티 의상을 안 입었어.” 에밀리는 풀이 죽어서 사실을 말했다.

“왜 안 입었는데?” 준이 물었다.

“왜냐면.” 에밀리는 말했다.

준이 이대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왜냐면 뭐?”

“왜냐면 별로 입고 싶지가 않아서.” 에밀리는 준이 자기를 내버려두고 다시 슬라이딩 하러 가기를 바랐다.

19)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유행한 만화 주인공으로 머리 위에 빨간 깡통을 붙이고 다닌다.

“너 공주병이구나?” 준이 말했다.

"아니야!"

“그럼 코트 벗고 우리랑 슬라이딩 하면서 놀자.” 준이 말했다.

“못 해.” 에밀리는 안 되는 이유를 또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했다. “나...하이힐 신고 왔어.”

“하이힐?” 준이 껍하고 소리를 질렀다. 분명히 꽤나 놀랐다. “우와.” 준은 몸을 숙여서 의자 밑에 있는 에밀리의 발을 들여다봤다. “설마 누구 흉내 내는 건 아니겠지? 애들아! 여기 와 봐! 에밀리가 하이힐을 신고 왔어.”

에밀리는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에 둘러싸이게 되자 자기 혼자만 더 차려입은 것 같아서 더 불편해졌다. 남자애들은 에밀리가 웃기는 구식 하이힐을 신은 걸 비웃었지만, 여자애들은 감탄했다. 다른 엄마들은 딸들에게 하이힐을 신게 놔두는 법이 절대 없었다. 어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알린 트위첵의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어렵도 없었다. 에밀리는 여자애들 몇 명이 '공주병에 걸린 에밀리 바틀렛!'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였다.

사람들이 계속 도착했다. 부랑자나 찰리 채플린처럼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모아둔 자투리 천을 활용해서 파티 복장을 하고 왔다. 피치포크 마을 주민이 거의 다 모였고, 그건 도서관에 쓰일 25센트짜리 동전이 많이 모인다는 뜻이었다. 엄마는 마대자루 원피스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 원피스를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에밀리는 더 속이 상했다.

그 때, 워티 톱슨 부인이 무대 위의 피아노에 앉아 크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서 사람들을 집중시켰다. 아이들은 슬라이딩 놀이를 멈췄고, 모두들 조용해졌다.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 조용!” 낡은 야구 유니폼을 입고 온 읍장님, 에이버리 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말씀하세요!” 이발사 아저씨가 소리를 질렀다.

“대행진을 준비해 주세요.” 에이버리 삼촌이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심사 위원들께서 오늘 이렇게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베스트 드레서 커플을 결정할 때까지 무도회장을 돌아주세요!”

“이얏호!” 이발사 아저씨가 외쳤다. “시작합시다!”

워티 톱슨 부인이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5월의 여왕을 뽑을 때 항상 첫

던 그 곡이었다. 둠 둠 두 둠...

사람들은 들썩 짝을 지어 대열을 맞추기 시작했다.

“가자, 에밀리,” 준이 말했다. “나랑 행진하자.”

에밀리는 뒤로 물러났다. “난 그냥 구경이나 할래.”

“자, 에밀리.”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파티에 오고 싶어서 온 거잖니. 그럼 분위기를 잘 맞춰보렴.”

“그렇지만, 엄마,” 에밀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컷속말로 말했다. “난 너무 차려입었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내가 공주병이라고 생각할거예요.”

엄마는 뭔가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너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할 거야,” 엄마가 말했다. “코트를 벗고 준하고 같이 가렴.”

엄마 말을 들어야 하는 눈치였다. 코트를 벗고 행진 대열에 끼는 수밖에 없었다. 제일 좋은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은 모습을 드러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 발자국만 걸었는데도 윤이 나는 바닥에 미끄러졌다.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준을 짝 잡아야했다.

에밀리는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발가락을 힘껏 꼬부렸다. 걷는 게 쉽지 않았다. 에밀리는 준의 팔을 짝 잡고, 발가락을 힘껏 꼬부려 어기적어기적 걸었다. 발목은 자꾸 바깥쪽으로 휘었고, 똑바로 펴려고 하면 발목에 힘이 풀렸다. 준이 힘이 세서 다행이었다.

에밀리와 준은 워티 톰슨 부인의 둠 둠 두 둠 연주에 맞춰 메소닉홀을 돌았다. 앞에는 엄마와 아빠가 즐겁게 웃으며 가고 있었다. 에밀리는 하이힐을 신고 똑바로 서는 데 집중하느라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었다. 아무도 에밀리가 거만을 떨고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엄마는 무대 위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며 인사를 했고, 아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었던 에밀리는 준의 부축을 받으며 부들부들 힘겹게 무릎을 살짝 굽혀 인사를 했다. 모두들 웃으며 박수를 쳤다.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재미있는 파티의 일원이 됐기 때문이었다. 발가락에 힘을 너무 짝 쥐서 너무 아팠지만 상관없었다.

에밀리와 준이 홀을 한 바퀴 더 돌고 난 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워티 톰슨 부인에게 속삭였고, 톰슨 부인은 행진곡 연주를 마치고는 음악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 추가로 반복 악절 리프를 두 번 쿵쿵 쳤다.

에이버리 삼촌은 뒤돌아서 심사위원들과 의논을 한 다음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 조용! 심사위원들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얏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오늘의 1등은-” 에이버리 삼촌은 이렇게 크게 외치고 나서 사람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의 1등은 양힐 카운티 최고 멋쟁이 신랑 신부, 더치 비슬리 부부입니다.”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낡은 커튼으로 만든 면사포를 쓰고 비트와 당근으로 만든 부케를 든 비슬리 부인이 앞으로 나가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2등은,” 에이버리 삼촌이 외쳤다, “어린 친구들에게 돌아갔네요. 옷이 더 이상 안 맞을 정도로 자라버렸지만, 아직 신발이 맞을 만큼은 못 자란 에밀리 바틀렛! 그리고 그런 그녀를 든든하게 부축해준 그녀의 사촌, 준!”

사람들은 더 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에밀리는 어안이 병병했다. 정말로 파티 드레스가 에밀리한테 너무 작았던 걸까? 에이버리 삼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리고 상을 받았다면, 그렇다는 게 틀림없었다. 에밀리는 중심을 잃을 각오를 하고 몸을 숙여 치마단을 살펴봤고, 치마단이 무릎에서부터 한참 위에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소매는 - 이제야 소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 너무 딱 끼었다. 또, 허리에 있어야 할 술기는 거의 갈비뼈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러니 원피스를 입었을 때 가슴이 딱 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게 당연했다. 집에 있는 거울로는 몸 전체를 볼 수가 없었다...세상에, 절대 에밀리가 차려입은 것처럼 보였을 리가 없었다. 에밀리는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 엄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상을 탔어!” 준이 속삭였다. “그렇게 서 있기야? 가자!” 두 소녀는 겨우겨우 무대까지 나가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봉투를 받았다.

“뭐가 들었어?” 아직도 조금 멍한 에밀리가 물었다.

준이 봉투를 뜯었고, 1달러짜리 지폐 두 장을 꺼냈다. “봐봐!” 준이 놀라며 말했다. “자그마치 2달러야.”

“각자 1달러씩이네.” 에밀리는 이런 행운이 믿기지가 않았다. 1달러짜리 지폐라니! 에밀리는 한 번도 1달러짜리 지폐를 쥐어 본 적이 없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걸로 지금까지 번 돈이 1달러가 넘긴 했지만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짜리가 아니라 모두 5센트짜리 동전이였다.

“너는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준이 물었다.

“엄마한테 줄 크리스마스 선물 살래.” 에밀리가 대답했다.

준이 궁금해 하며 물었다. “왜 파티 의상을 안 입고 왔다고 한 거야?”

“그냥 흉내 좀 내 본 거야,” 에밀리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깜짝 놀래 주고 싶었거든.”

바이올린을 든 아저씨와 코넷을 든 아저씨가 워티 톰슨 부인과 함께 연주를 시작했다. 댄스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어 의자 쪽으로 간 다음 발가락에 힘을 뺐다. 신나기는 했지만 졸음과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졸리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평소였다면 잘 시간이 훌쩍 지났다. 훨씬 전에. 다른 아이들은 하나 둘씩 의자에 눕기 시작했지만, 에밀리는 강한 의지로 하품을 삼키며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있었다. 그 때 엄마가 다가와 속삭였다. “잠깐 눈을 좀 붙이는 게 어떠니?”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엄마는 의자 세 개를 이어 붙여서 최대한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해주었다. 엄마는 에밀리의 코트로 베개를 베어 주고, 엄마의 코트로 몸을 덮어주었다. 이 춤의 이름은 폭스트롯이었다. 이상한 이름이었다. 에밀리는 여우가 어떻게 뿔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에밀리는 조금만이라도 더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썼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너털 너털하고, 기운 무릎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다가, 문득 엄마에게 회전식 달걀거품기를 사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것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그리고 무엇을 사야할지는 분명했다. 도서관에 비치할 책! 엄마에게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면 포틀랜드에서 『블랙뷰티』가 우편으로 배송되고, 에밀리는 앉아서 책에 완전히 빠져들 것이었다. 유리엘 말대로 책이 정말 재미있으면 단숨에 연달아 세 번을 읽을 것이고, 그런 다음 도서관에 기증할 생각이었다. 엄마는 책 표지에 “에밀리 바틀렛 기증”이라고 쓸 것이고, 도서관에는 책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었다.

에밀리는 무거워지는 눈을 더 이상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잠이 들면

서 생각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힘든 때는 아닌 걸지도 몰라. 에밀리 바틀렛같은 여자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할 수 있는 걸 보면...

에밀리와 풍 쿠오크 할아버지

얼마 안 있어 조그마한 도서관은 커져갔다. 엄마가 『블랙뷰티』를 주문해 주었고, 유리엘이 얘기한 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에밀리는 그 책을 세 번 읽었다. 슬픈 이야기였다. 슬픈 내용은 괜찮았다. 에밀리는 슬픈 이야기를 좋아했다. 책을 읽으면서 우는 게 재미있었다. 엄마는 작은 아씨들을 읽어봐야 된다고 했다. 에밀리가 신경 쓰였던 내용은 말들이 자기 몸의 어디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었다. 피치포크에 있는 말들은 히히힃, 호호흥, 히힃하고 울었다. 서로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도 못했다.

엄마는 책 표지에 “에밀리 바틀렛 기증”이라고 적었고, 피치포크 도서관에는 책이 한 권 늘었다. 사실, 책이 여러 권 늘었다. 엄마가 불경기 파티 수익금으로 책을 사다 놓았기 때문이었다. 수익금 중에 일부는 진짜 도서관 같은 개가식 선반을 만들기 위해 피트 진티 아저씨네 목공소에 주문하는 데 쓰였다. 내년 선거에서 도서관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피치포크에서 돌기도 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커머셜 클럽룸의 한 코너에 있는 도서관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엄마가 해결해 줄 것이었다. 에밀리는 믿음이 있었다.

2월의 어느 날 아침, 에밀리는 종이, 크레파스, 풀, 그리고 들판에서 꺾어 온 깃털들 한 다발을 들고 식탁에 앉으면서 도서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포틀랜드에 사는 사촌, 유리엘에게 보낼 밸런타인 카드를 만들 것이었다.

에밀리는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고 하트 반쪽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종이를 폈다. 그랬더니 하트모양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갈색 크레파스로 종이 하트 가운데에 울타리를 그려 넣었다. 울타리 위에 풀로 점 세 개를 찍은 다음 그 위에 풍성한 깃털들 꽃을 하나씩 붙였다. 검은색 크레파스로 깃털들꽃에다 귀와 꼬리를 그려 넣었다. 짠! 울타리에 앉아있는 복슬 고양이 세 마리가 만들어졌다. 정말로 쓰다듬을 수 있는 아기 고양이 세 마리.

그림 아래에는 시가 들어갈 자리였다. 에밀리는 빨간 크레파스로 시를 또박 또박 적었다.

아기 고양이가 야옹야옹 우는 한은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학교에서 플롯킨 선생님이 암송하라고 했던 시, “아이들아, 귀 기울여 보아라, 너희들은 폴 리비어²⁰⁾가 한밤중에 말 달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처럼 감동적이진 않았지만, 운율도 있고 자기가 직접 지은 시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에밀리는 카드 가장자리를 빨강과 노랑으로 장식해서 마무리했다.

엄마는 행주에 손을 닦고 다가와 에밀리가 만든 카드를 칭찬해주었다. “정말 예쁜 밸런타인 카드구나.”

에밀리는 엄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뮤리엘은 문구점에서 파는 재료로 만들겠죠.” 에밀리가 말했다. 뮤리엘이 도시에서 밸런타인 카드를 만드는 모습이 그려졌다. 하얀색 레이스 종이에 장미와 파랑새가 인쇄된 하트무늬를 조그만 주름종이로 이어 붙이는 모습이. 뮤리엘이 보낸 밸런타인 카드를 봉투에서 꺼내면 작은 종이 스프링이 달린 레이스 종이 가 풍하고 튀어 올라올 것이다.

“아마 그렇겠지,” 엄마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엄마는 네 밸런타인 카드가 훨씬 예쁠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엄마는 아는 게 많았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서부로 오기 전에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오페라를 본 적도 있었다.

안심이 된 에밀리는 봉투에 카드를 넣고 침을 발라 봉투를 붙였다. 우체국에 가면 에이버리 삼촌에게 황하고 소인을 찍는 기계에 넣는 대신 손으로 조심스럽게 소인을 찍어달라고 부탁할 것이었다. 기계로 찍으면 깃털들 꽃으로 만든 복슬 고양이가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체국에 다녀오면 되겠구나.” 엄마가 말했다,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서 커피도 사오렴.”

20) 폴 리비어는 미국의 은세공이며, 미국 독립 전쟁 중에는 애국자로 활동했다. 렉싱턴 콩코드 전투의 전령 역할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에밀리는 부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낀 회색빛 하늘 틈으로 파랑색 하늘이 조금씩 보였다. 우산은 안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았지만, 새 고무장화는 신고 가야될 것 같았다. 새 장화는 이번에 받은 실용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농장 앞 코너에 다다랐을 때 에밀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왼쪽으로 가서 농장을 지나는 먼 길로 돌아가면 새 고무장화에 진흙이 묻지만, 그래도 풍 쿠오크 할아버지네 집을 지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직진을 해서 널빤지가 깔린 지름길로 가면 풍 쿠오크 할아버지네 집을 지나가야하지만, 고무장화는 검은색 윤을 반짝이며 그대로 새 장화 같을 것이다. 에밀리는 새 것을 좋아했다. 새 크레파스, 새 몽고메리 워드 카탈로그, 새 고무장화.

에밀리는 지름길을 선택했다. 만약 풍 쿠오크씨를 마주친다면? 불경기 파티 이후로 에밀리는 놀림 받는 걸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놀렸지만 에밀리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엄마가 낚을 때까지 신을 수 있도록 두 치수나 큰 장화를 사 주는 바람에 장화가 크기는 했지만, 병어리장갑을 낀 한 손에 밸런타인 카드를 쥐고 널빤지가 깔린 길을 짱충짱충 뛰어갔다. 느슨하게 깔린 널빤지를 밟으면 탕탕하는 소리가 났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네 집에 다다르자 할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날씨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에밀리를 봤고, 에밀리도 할아버지를 보았다. 이번에는 위를 올려다보며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보는 척하거나 탄척을 피며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았다. 서부를 개척했던 선조들이었다면 풍 쿠오크 할아버지네 집을 지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야를 건너는 긴 여정에서 인디언을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에밀리는 천천히 얇전하게 걸으며 미소를 짓고 고갯짓으로 살짝 인사했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해주었다.

에밀리는 흙,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 하는 인사로 팬찮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하며 다시 경쾌하게 짱충 걸음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우체국에서 에밀리는 편지를 분류하고 있던 에이머리 삼촌에게 깃버들 꽃으로 만든 복슬 고양이를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외할아버지의 가게로 갔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에밀리가 말했다. “엄마가 커피 사오래요.”

외할아버지는 식료품 주문을 받느라 바빴다. “알아서 가져가렴.”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에밀리는 설탕이나 로그 캐빈 시럽처럼 간단한 걸 사러 온 게 아니라 커피를 사러 왔다는 게 뿌듯했다. 에이버리 삼촌이 편지를 분류하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난롯가에 앉아 담배를 씹으며 정치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들이 에밀리를 보고 ‘세상에, 저 애가 커피를 계량하는 것 좀 보게!’라며 감탄하길 바랐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계산대 아래에 있는 통에서 커피콩을 꺼내 정확히 1파운드만큼 잴다. 콩 한쪽이 더 들어가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정확. 그리고 나서 빨간색 커피 그라인더에 부은 다음 핸들을 돌렸다. 그러면 그라인더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커피를 갈았고, 다 갈린 커피가루를 그릇에 쏟아냈다.. 에밀리는 그릇에 담긴 커피가루를 종이봉투에 옮겨 담았다. 으음. 고소한 커피향! 아직도 할아버지들은 아무도 에밀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종이봉투를 한 번에 착 하고 활짝 벌렸는데, 관심을 못 받은 건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에밀리의 관심이 갑자기 할아버지들에게로 향했다. 한 할아버지가 “퐁 쿠오크 영감이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들었는가?” 라고 말했다.

“암.” 다른 할아버지가 난로에 씹는담배 때문에 고인 침을 뱉으려 일어나면서 대답했다. “다들 그러더구먼.”

에밀리는 할아버지들이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 좀 더 얘기하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크고 동그란 회중시계를 꺼내 열어 보더니, “이봐, 우편물 나올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먼.”라고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가게를 나가버렸다.

“외할아버지, 퐁 쿠오크 할아버지가 정말로 중국으로 돌아가요?” 에밀리가 물었다.

“그리 들었단다.” 식료품 값을 계산하던 외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중국! 오리건 주 피치포크에서 누군가가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간다!

“언제 간대요?” 에밀리는 알고 싶었다.

“여기 일들이 마무리되는 대로.”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거기에 계속 있을 거래요?” 에밀리는 물었다.

“그럴 것 같구나.” 외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 영감 나이에 그런 여행은...”

“거기까지 어떻게 간대요?” 에밀리가 물었다.

“프리스코까지 기차를 탄다더구나.”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거기서부터는 배를 탈거고.”

어쩐! 그건 정말 신이 났다! 피치포크의 진정한 세계 여행자. 엄마는 늘 여행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피치포크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전쟁 때 군인이었던 에이버리 삼촌은 미국을 가로질러 뉴저지까지 갔고, 거기서 감자를 깎았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기 전 어느 겨울에 웰스 파고 은행에서 금괴를 지키는 일을 했었다. 아빠는 저 아래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에서 금괴를 지켰고 강도들은 아무도 그 기차를 공격하지 않았다, 아빠가 금괴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의 매일 누군가는 포틀랜드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에밀리도 포틀랜드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었다. 거기서 에밀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란! 전차, 경찰관, 조그만 코트를 입은 개 (상상이나 했을까, 개가 코트를 입다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자그마한 인형 접시에 버터 한 조각을 내어오는 레스토랑이었다.

하지만 피치포크 사람들 중에는 중국만큼 멀리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치포크에 오기 위해 먼 길을 왔다. 엄마도 멀리 동부에서 왔다. 당연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그랬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작은 꼬마였을 때, 외할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데리고 저 멀리 영국에서 범선을 타고 왔다. 그리고 또 미주리에서부터 지붕이 달린 마차를 타고 온 서부 개척자 선조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 한 번 피치포크에 오면 다들 눌러 앉았다.

그리고 이제 풍 쿠오크 할아버지는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에밀리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다. 우체국 밖에서 에밀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피트 진티 아저씨였다. 아저씨의 수염은 그 어느 때 보다는 검고 덩수룩했다.

“안녕, 에밀리.” 피트 아저씨가 인사했다.

에밀리는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라도 전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진티 아저씨.” 에밀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다시 그 멀고 먼 중국으로 간다는 거 아세요?”

피트 진티 아저씨가 우체국 벽에 기대어 엄지손가락을 벨트에 걸고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더구나.” 아저씨가 말했다. “퐁 영감이 몇 분 전에 직접 말해 줬어. 사실 멩키렌치를 들고 있더라고. 영감이 그걸 네 또래 정도 되는 여자애랑 바꾸고 싶다더라. 중국에 데려가고 싶다고.”

에밀리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몰랐다. 아저씨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수염이 너무 덩수룩해서 입도 어떤 표정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왜요?” 에밀리는 미심쩍다는 듯이 물었다.

“중국에는 아들들하고 손자들 밖에 없거든.” 피트 진티 아저씨가 대답했다.

“아.” 에밀리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퐁 쿠오크씨가 나를 멩키렌치랑 바꿔서 나를 중국에 데려가려고 한다는 소린가? 말도 안 돼, 에밀리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았다. 중국에 간다고?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떠나서? 그건 안 될 말이지! 피트 진티 아저씨가 에밀리를 놀리려는 걸 거다. 하지만 놀리는 거였더라면 절대 그런 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엄, 방금 전에 나한테 그랬어.” 피트 진티 아저씨는 말했다. “자, 그럼 잘 가렴, 에밀리.”

“안녕히 가세요, 진티 아저씨.” 에밀리는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아저씨에게 힘 없이 인사했다. 이럴 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멩키 렌치하고 맞바꾼다 니. 이건 분명히 장난이다.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았다. 에밀리는 피트 진티 아저씨가 검은 건반으로만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났다. 아빠는 피트 진티 아저씨가 또 뺑을 치는 거라고 했지만, 아저씨가 풀밭에 있는 나무를 베는 일에 대해서 아빠와 얘기를 하려고 거실에 왔던 어느 날 알게 되었다. 아저씨는 피아노에 가서 앉더니 ‘유파이드²¹⁾’ 를 검은 건반으로만 쳐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에밀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엄마와 아빠는 절대 에밀리를 멩키렌치와 바꾸지 않을 거라고, 멩키 렌치 열 개와도 안 바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퐁 쿠오크 할아버지와 마주치면 중국에 같이 가자고 물어볼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할아버지 말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지? 만약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뇨, 괜찮아요, 전 중

21) 유명한 TV 어린이 인형극에 자주 나오는 노래

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면, 할아버지는 에밀리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에밀리는 병어리장갑을 낀 손으로 커피를 꼭 쥐고 메인스트리트를 천천히 걸어갔다.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조지 A. 바비 할아버지였다. 엄밀히 말하면 만났다기보다는 봤다는 게 정확하겠다. 할아버지가 포드 차 아래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 그 날 아침은 정말로 ‘에밀리의 수염 난 아저씨들과 마주치기의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바비 할아버지.” 에밀리는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허리를 구부려서 인사했다.

“안녕, 에밀리.” 할아버지가 차 밑에서 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할아버지의 흰색 수염에 기름이 묻어있었다.

“퐁 쿠오크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세요?” 아직도 그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에밀리가 말했다.

“그렇다더구나.” 조지 A. 바비 할아버지는 렌치로 차를 툭툭 두드렸다.

어쨌면 조지 A. 바비 영감님한테서 뭔가를 더 알아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드...들리는 말로는 그 할아버지가 멍키렌치하고 내 또래의 여자애를 바꿔서 중국에 데려간다던데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조지 A. 바비 할아버지가 차 아래에서 머리를 내밀며 “피트 진티가 그러던?” 하고 물었다.

“네.” 에밀리가 대답했다. “네, 아저씨가 그랬어요.” 결국 그 말이 사실이었다. 조지 A. 바비 할아버지는 피트 진티 아저씨가 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쨌면 좋아, 이제 에밀리는 정말로 퐁 쿠오크 할아버지를 피해 다녀야 했다.

에밀리는 할아버지가 얘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바빠 보여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코너에 다다르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지름길, 널빤지로 포장된 길, 새 고무장화를 계속 새 것처럼 신을 수 있는 길? 돌아가는 길, 과수원 옆 진흙길, 퐁 쿠오크 할아버지를 피할 수 있는 길? 이번에는 돌아가는 길로 결정했다. 고무장화를 언제까지나 새 것처럼 신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에밀리는 진흙길로 한 걸음을 살짝 내딛었다. 질척한 초콜릿 색 진흙이 고무장화에 스며들었다. 걷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장화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한 발을 너무 빨리 들면 장화가 진흙에 박혀버렸다. 장화가 벗겨지지

않도록 발꿈치보다 발가락 쪽을 먼저 들면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엄마는 에밀리가 커피를 사러 갔다가 안 오는 줄 알지도 모른다.

한 번은 깜빡하고 발꿈치를 먼저 들었다. 장화가 진흙에 박힌 채로 발만 쪽 빠져나와 버렸다. 난감했다. 에밀리는 커피봉지를 짝 쥐고 코트에 진흙이 묻지 않게 하면서도 한 발로만 서서 진흙에 박힌 장화 한 짝을 당겨서 꺼내야 했다. 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특히 병어리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진흙이 질퍽거리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장간에 다다랐을 때, 에밀리와 친한 윌콕스 아저씨가 문을 열고 외쳤다. “안녕, 에밀리? 거기 진흙탕에서 뭐하는 거야?”

에밀리는 민망해졌다. “집에 가요. 가게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윌콕스 아저씨는 에밀리가 왜 저러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에밀리는 단호하게 혼잣말을 했다. 그놈의 피트 진티 아저씨가 에밀리를 놀린 것뿐이었다. 정말 그랬을까? 에밀리는 지난번에 말을 표백하고 있을 때도 아저씨가 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저씨는 오히려 도와주었다. 한 쪽 발이 또 벗겨질 뻔 했지만, 간신히 나무 덤불을 움켜질 수 있었고, 동시에 커피 봉지도 짝 쥐고 있었다. 진흙탕에 커피를 떨어뜨리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요즘처럼 커피 값이 그렇게 비쌀 때에는 더더욱.

신발이 벗겨지지 않고 집까지 잘 도착했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내린 겨울비로 시들고 축축해진 풀밭에 고무장화를 비벼서 진흙을 닦아냈다. 뒷 베란다에다 장화를 벗어놓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에밀리.” 엄마가 위층에서 대답했다.

뭔가가 에밀리의 눈에 들어왔고, 에밀리의 시선이 부엌 창문 밖으로 향했다. 에밀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집을 따라 걸어오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오버올 작업복 위에 격자무늬 매키노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멍키렌치가 들려있었다! 에밀리가 흘린 듯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집 모퉁이를 돌았다. 뒷문 계단에서 할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자 에밀리는 재빨리 움직였다. 어디에 숨지? 에밀리는 나무 상자 뚜껑을 열었다. 나무 상자는 너무 약해보였다. 발자국 소리가 더욱 커지며 뒷문 계

단에서 나던 소리가 성큼성큼 뒷 베란다에서 들리고 있었다. 에밀리는 쓴살같이 욕실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암힐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들어온 하얗고 차가운 욕조에 기댔다.

뒷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에밀리는 숨을 참았다. 엄마가 위층에서 왔다갔다하는 소리가 들렸다. 또 한 번의 노크소리, 이번엔 더 큰 노크소리. 엄마의 암힐 굽에서 나는 또각 소리가 계단을 내려와서 복도를 따라 거실을 지나 뒷문에 도착해서 그쳤다. “어머, 안녕하세요, 풍 쿠오크 영감님.” 엄마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들어오시겠어요?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에밀리가 아래층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큰 소리로 에밀리를 불렀다. “에밀리, 어디 있니?”

에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암힐 카운티 두 번째 욕조에 기대어 있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말소리도 들렸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아, 천만에요.” 엄마가 대답했다. 밖에서는 집에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장작창고에서 아빠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탁. 탁. 탁.

탁탁탁 소리 사이사이로 에밀리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엄마와 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에 귀를 바짝 대어봤지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농장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 같았다. 풍차는 삐걱거리고, 소의 목에 단 방울은 딸랑거리고, 암탉은 알을 낳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재주인지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 같았다.

“세상에, 풍 쿠오크 영감님!” 엄마가 외쳤다. “정말 그렇게-” 탁. 탁.

에밀리는 욕실문을 열었고, 엄마가 “세상에나, 안돼요. 전 에밀리를 그 먼 중국으로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 탁. 탁. 영감님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나를 조아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긴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다. 할아버지가 좀 더 크게 말해주었으면 했다.

“너무나 멋진 일을 하시네요!” 엄마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뭐가 멋지다는 거야, 에밀리는 궁금해 하며 엄마가 또 뭐라고 하는지 잘 들려고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 그리고 에밀리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몰라요!” 엄마가 하는 말이 들렸다. “에밀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이- 중국? 엄마가 에밀리를 중국에 데려가겠다는 풍 쿠오크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나? 엄마는 늘 여행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얘기했었다... 그래도 하나뿐인 딸을, 외할아버지의 하나뿐인 손녀를 그 멀고 먼 중국에... 하지만 에밀리는 엄마가 한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확신했다. 엄마는 분명 “에밀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에밀리에게 얼른 얘기해주고 싶어요. 들으면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아, 그럴 거야, 그럴까? 에밀리는 화가 치밀었다. 아니, 난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나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엄마는 그렇게 기뻐할 필요가 없었다.

탁. 탁.

“근데 애가 어딜 갔담?” 엄마가 말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여기 있었거든요. 에밀리!”

에밀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마 헛간에 갔나봐요.” 엄마가 말했다.

엄마와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뒷문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다. 뒷문은 열려 있었다.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풍 쿠오크 영감님. 모두들 그럴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영감님이 하신 일은 절대 잊지 못 할 거예요.”

“잘 이썬요, 잘 이썬요.” 풍 쿠오크 할아버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큰 소리로 인사했다.

엄마가 문을 닫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에밀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있었다. 말 그대로 엄청 화가 나있었다. 엄마는 에밀리를 중국에 보내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에밀리가 가지 않을 것이었으니까. 그걸로 얘기는 끝이었다. 안 갈 것이었다. 에밀리가 욕실문을 박차고 나왔다. “엄마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엄마, 난 안 가요!”

엄마는 에밀리가 난데없이 욕실에서 나오자 놀란 듯 했다. “어딜 가?” 엄마가 물었다.

에밀리의 시선이 부엌 식탁 위에 크레파스와 깃버들 사이에 놓인 멍키렌치에 꽂혔다. “중국에 풍 쿠오크 할아버지하고요,” 에밀리가 말했다. “엄마가 나랑 멍키렌치랑 맞바꿨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누구나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엄마가 힘이 빠진 듯 부엌 의자에 앉았다. 당황하면서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에밀리.” 엄마가 말했다. “제발 화 좀 그만 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말해주렴.”

“날 중국에 보내는 얘기 말예요.” 에밀리는 말했다. 그것 말고 할 얘기가 뭐가 있다는 거지? “피트 진티 아저씨가 나한테 풍 쿠오크 영감님이 멍키렌치랑 맞바꿔서 내 또래 여자 아이를 중국에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들들하고 손자들밖에 없으니까요.”

엄마는 사랑, 분노,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아아, 에밀리, 네가 상상의 고삐를 그렇게 풀어버리다니!” 엄마는 외쳤다.

에밀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멍키렌치를 한 번 더 힐끔 쳐다보았다. “그렇지만 피트 진티 아저씨가-”

“아아, 그 양반!” 엄마가 말을 잘랐다. “그 양반이 하는 소리는 다 헛소리라는 거 알잖니.”

“그치만 진짜로 검은 건반만으로도 피아노를 칠 수 있었잖아요...” 에밀리는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 풍 쿠오크 영감님은 아빠한테서 빌려간 멍키렌치를 돌려주러 왔던 거야. 피트 진티가 널 놀린 거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런 건 알아챘어야지.”

에밀리는 기분이 나아졌다. 그렇지만 피트 진티 아저씨가 놀렸다는 것을 무슨 수로 알아챘어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가끔씩은 어른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렇지만 엄마가 나한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말했잖아요.” 에밀리는 아직도 의심을 풀지 않고 말했다.

“책 세상을 말한 거야. 주립 도서관에서 몇 권씩 보내주는 책 말고, 많은 책들 말이야.” 엄마는 에밀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풍 쿠오크 영감님이 왔던 또 다른

이유를 아직 안 알려줬구나.”

“다른 이유요?” 에밀리가 물었다. 그게 뭐든 좋은 소식인 게 분명했다. 엄마가 너무나 신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요즘 때가 너무 어려워서 집을 살 사람이 안 나타났대. 그래서 피치포크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쓸 수 있게 주신대!” 엄마가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자, 어떻게 생각해?”

“엄마!” 에밀리는 소리를 질렀다. “집을 통째로 다요?”

“통째로 다.” 엄마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일 신나는 건, 이제 도서관으로 쓸 집이 생겼으니까 다음 선거 때 사람들이 도서관에 쓸 돈을 마련하자고 할 게 분명하다는 거야.”

에밀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집 한 채 통째로 진짜 도서관이 생기다니! 풍 쿠오크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 에밀리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집에. 어쩐 이렇게 편할 수가!

“영감님이 참 안됐어.”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영감님은 여기에 친구들이 많고, 다들 영감님을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도 외로운 적이 많았을 거야.”

“왜요, 엄마?” 에밀리가 물었다. 영감님은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항상 교회에 나왔고, 사람들과 메인스트리트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리건으로 왔을 때 잘 모르는 마을에 정착해서 새로운 언어와 관습을 배워야 했잖니. 처음 왔을 때엔 성공을 좇아서 여기에 왔던 다른 중국 사람들이 있긴 했어도 분명 고향이 그리웠던 적이 많았을 거야.”

에밀리는 그렇게 좋은 할아버지를, 자기 집을 통째로 도서관으로 쓰라고 주는 훌륭한 분을 피했던 자기 모습이 부끄러웠다. 또 바로 여기, 피치포크에서 그 분이 외로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했다. 에밀리는 아직도 식탁 위에 널브러진 크레파스와 풀과 갯버들을 보았다. “엄마, 풍 쿠오크 할아버지가 밸런타인 카드를 좋아할까요?” 에밀리가 물었다.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럼 됐다. 에밀리는 당장 종이와 크레파스로 작업에 들어갔다. 크레파스로 그런 울타리에 풀로 점을 세 개 찍고 그 위에 갯버들 꽃을 붙였다. 그런 다음 빨간

색 크레파스로 적어 넣었다.

아기 고양이가 야옹야옹 우는 한은요,
퐁 쿠오크,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누구일까요?

밸런타인 카드를 봉투에 넣기 전에 에밀리는 이름 이니셜을 카드 한 구석에 조그맣게 써 넣었다.

그런 다음 다시 코트를 입고 고무장화를 신고 널빤지 길을 폴짝폴짝 뛰어서 퐁 쿠오크 할아버지네 집으로 갔고, 그 집 현관에, 곧 도서관 현관이 될 그 곳에 까치발을 들어 살금살금 다가갔다. 문 아래로 밸런타인 카드를 밀어 넣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밀어 넣기에는 갯버들이 너무 뚱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면 절대 모를 수 없게 밸런타인 카드를 문에 기대어 놓았다.

에밀리가 다시 까치발로 살금살금 현관 계단을 내려갈 때, 분명 처음부터 에밀리를 보고 있었을 퐁 쿠오크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 밸런타인 카드를 집어 들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고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새끼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영감님은 에밀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고, 에밀리도 손을 흔들었다.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경쾌한 기분으로 폴짝 폴짝 뛰어왔다. 이 훌륭한 분, 자신의 집을 통째로 도서관으로 기증한, 그 멀고 먼 중국까지 여행을 하게 될 이 분은 피치포크에 사는 누군가가 자기를 그리워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각해 보자. 이제 피치포크에는 진짜 도서관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소녀, 에밀리 바틀렛은 1년 전쯤에 우표 하나를 붙였는데, 그 우표는 어떤 봉투 위에 붙여졌고, 그 봉투는 주립 도서관으로 보내는 편지를 담고 있었다.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랬다. 에밀리는 결론을 내렸다. 고삐 풀리는 상상을 가진 건 꽤 행운이었다고.

참고문헌

조영학(2012), 「에드거 앨런 포의 그림자 더 레이븐」 pp.398,
(주)알에이치코리아 출판.

번역 원서

제목 Emily's RUNAWAY IMAGINATION

지은이 Beverly Cleary

출판사 HarperTrophy

초판 출판년도 1961년

감사의 글

처음으로 장편 소설을 번역하게 되어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이 나의 서툰 번역 때문에 재미없게 되어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부담감을 안고 시작한 번역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모두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지적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지도교수 박경란 교수님, 국어답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신 김재원 교수님, 힘내서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원보 교수님,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Larry 교수님, 졸업 논문을 써 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조언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인수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함께 공부하며 제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15기 동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동기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힘든 대학원 과정과 졸업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대학원 다니는 내내 이것저것 물어보며 귀찮게 했던 저를 항상 반겨주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준 이미진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잡한 생각들에 묶여서 고민할 때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고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에게 이 글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졸업논문을 쓰면서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해서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 하고나니, 오히려 시작을 위한 서툰 첫 발걸음을 땀 기분입니다. 앞으로 힘차게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